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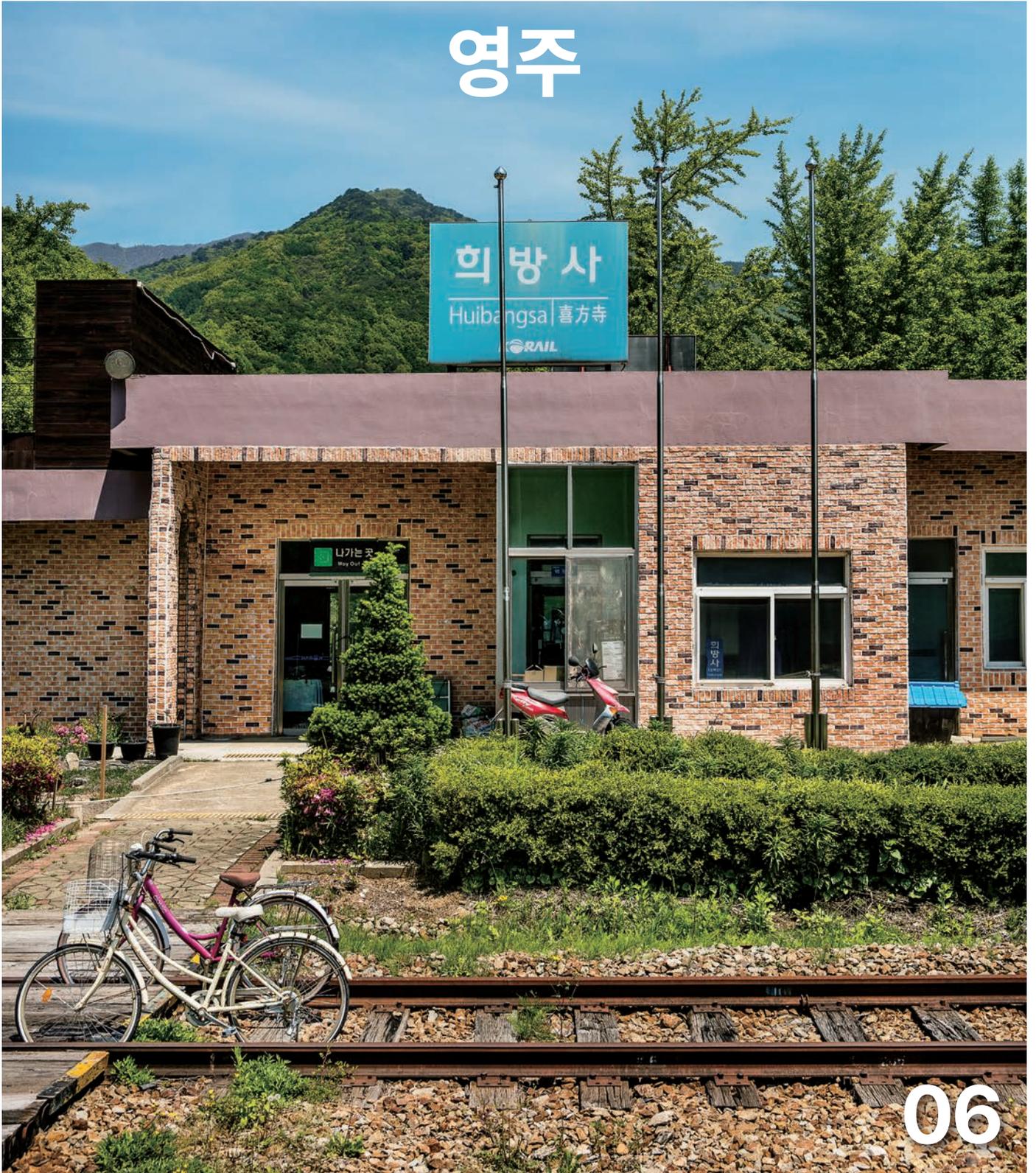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KTX

바로 지금, 여행

영주

희방사
Huibangsa | 喜方寺
RAIL



06

소백산 자락길 따라 물 맑은 영주 여행 | 청풍호 바람 맞으며 제천 유람 | 반짝이는 해변을 만끽하다, 베트남

CONTENTS

2023.06



032 테마 여행 영주

6월, 연둑빛에서 진녹색으로 물드는
경북 영주 소백산 자락길을 거닐기에
이보다 아름다운 시절도 없을 것이다.
죽령옛길, 달밭길, 구곡길, 선비길을
살피며 걷는 기쁨을 한껏 누리 보았다.
드디어 여름이 왔다.



AHILO

2023.06



008

세계 도시 이야기

버킷 리스트로 품은 크루즈 여행의 낭만, 그리스 카타콜로에서 마음껏 즐긴다.

010

우연한 발견

요즘 러닝 클럽 이야기가 종종 들린다. 사람들은 왜 달릴까, 그것도 모여서.

014

주방 속 여행

B3713의 정혜민 셰프는 재료에 대한 존중이 코리안 노르딕 퀴진의 시작이라 믿는다.

016

맛집 탐방

서울 영등포역과 문래역 사이사이 생겨난 색다른 미식 공간을 다녀왔다.

050

이 계절 이 여행

람사르습지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향연, 전북 고창에서 압도하는 자연을 만났다.

058

이달의 공간

군사시설에서 문화 예술 공간으로 거듭난 서울 평화문화진지를 찾았다.

064

기차 타고

보기 좋게 영근 초여름의 총복 제천으로 떠났다. 유람선에서 맞는 바람이 시원했다.

078

문화 돋보기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열릴 정도로 진화한 게임 음악 세계를 탐구했다.



KORAIL INFORMATION

090

한국철도 소식

098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100

열차 이용 안내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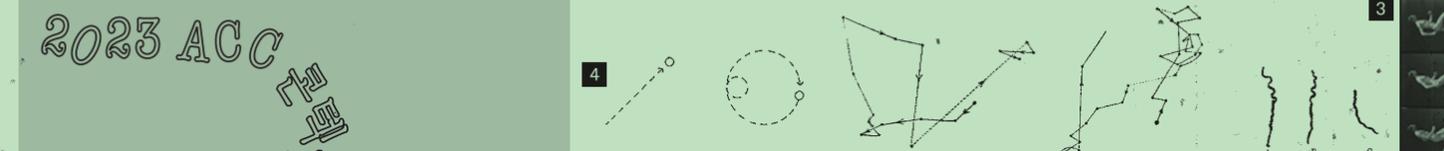
비상시 행동 매뉴얼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서 들려주며, 60여 개 언어로 번역도 지원합니다. 자동 번역기를 사용하기에 번역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2023 ACC CONTEXT: Walking, Wandering

April 27- September 3, 2023

ACC Creation Space 3 & 4, Asia Culture Center



강동주, 김방주, 김재민이, 량즈위 + 사라 웡, 레지나 호세 갈린도, 리스투더시티, 리 카이 청,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미라 리즈키 쿠르니아 박고은, 새로운 질서 그 후, 이창운, 프란시스 알리스

Dongju Kang, Bangjoo Kim, Gemini Kim, Leung Chi Wo + Sara Wong, Regina José Galindo, Listen to the City, Lee Kai Chung, Marina Abramović, Mira Rizki Kurnia, Goeun Park, After New Order, Changwoon Lee, Francis Alÿs

들어가는 글



걷는 것을 누구보다 좋아하지만, 부끄럽게도 제 별명은 '파당'입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걸음을 옮기느라 정작 발 딛는 일에 무심경하기 때문입니다. 경북 영주 소백산 자락길을 걷는 동안에도 여지없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권화자 문화관광해설사님이 글썽, "잘 넘어지셨네요. 안 넘어지려다가 더 크게 다치거든요"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나, 넘어져 놓고는 칭찬을 받았습시다. 이 말을 오래도록 곱씹었습니다. 잘 넘어졌다, 잘 넘어졌다. 어쩌다 다시 넘어지고 부러지고 쓰러지는 순간이 오면 스스로를 다독이며 잘했다고, 더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해 줄 생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부디 잘 넘어지시기를. 운이 좋으면 이렇게 귀여운 다람쥐도 볼 수 있답니다.

<KTX매거진> 수석 기자 강은주

KTX 바로 지금, 여행 JUNE 2023

2023년 6월호 제20권 제6호 통권 제228호 2023년 6월 1일 발행

발행인 고준영(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편집 (주)서울문화사 02-3785-0900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221-19

편집인 심정섭

편집장 김현정 kimhj@seoulmedia.co.kr 수석 기자 강은주 unddu@seoulmedia.co.kr 기자 옥송이 ocksong@seoulmedia.co.kr 남혜림 nhr@seoulmedia.co.kr

교열 오미경 번역 박경리

디자인 아트 디렉터 권영주 kyj@seoulmedia.co.kr 디자이너 임보영 lby@seoulmedia.co.kr 객원 디자이너 엄정윤

사진 라이트팩토리(LIGHT FACTORY) 070-4119-3014 디렉터 신규철 실장 이규열 조지영 이철 박정우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seoulmedia.co.kr 부장 심재우 jwshim22@seoulmedia.co.kr 사원 김수연 ktxad@seoulmedia.co.kr

배포 소장 이재우

경영지원실 본부장 정영기

제작팀 팀장 이수행 차장 정승현 과장 정수호

기획팀 팀장 임용욱 차장 박선주 사원 조소연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KTX매거진>은 KTX와 ITX-새마을, ITX-청춘 열차 내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보신 뒤에는 다음 승객을 위해 제 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편집 02-799-9338 광고 02-799-9175





내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SNS에 #KTX매거진을 태그해 올려 주세요.



@ktxmagazine

선물받아 가세요!

기차 안 SNS에 선정된 분께는 고통축 풀빅산을 함유해 두피 및 모공 관리에 도움을 주는 탈모 예방 샴푸 '풀빅 헤어 샴푸 & 토닉 세트'를 선물로 보내 드립니다. 두피와 모발 케어에 적합한 약산성 샴푸로 온 가족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제품 문의 1522-9158

*당첨자에게는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로 <KTX매거진>을 만나 보세요!

이유있는 1등

진심을 심어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매나테크에 독점 공급되는 매나폴

매나폴은 고품질의 알로에 베라 추출물로 높은 '에이스 만난' 함유량을 자랑합니다. 에이스 만난은 알로에 베라 겔의 유효성분인 다당체의 일종으로 면역력, 피부 건강,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진정한 에이스 만난은 1-2백만 달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매나테크는 진정한 에이스만난을 제공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코스타리카 자연이 주는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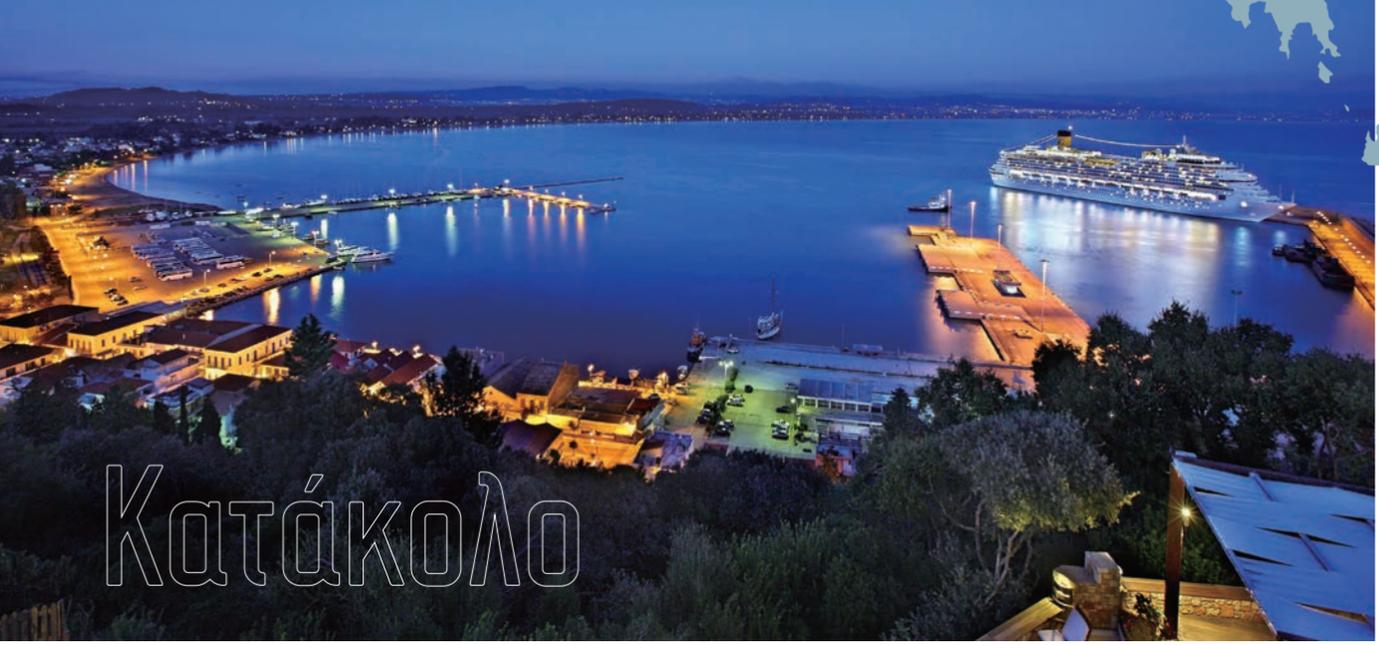
매나테크는 완벽한 알로에를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긴 여정 끝에 매나테크는 비옥한 화산토와 365일 일정한 기후를 유지해, 완벽한 알로에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풍요로운 해변' 코스타리카에 도착했습니다. 10여년 전 매나테크는 내추럴 알로에 코스타리카와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지금까지도 완벽한 알로에베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완성하는 하나의 공예품

알로에 가공은 단 6시간만이 주어지는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매나테크는 최고 품질의 에이스만난을 얻기 위해 모든 공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며 한번에 숙련된 전문가들의 수작업으로 진행합니다. 마침내 탄생한 가장 순수하고 안정적인 형태의 에이스 만난은 하나의 정성스러운 공예품과도 같습니다.

기항지의 낭만, 그리스 카타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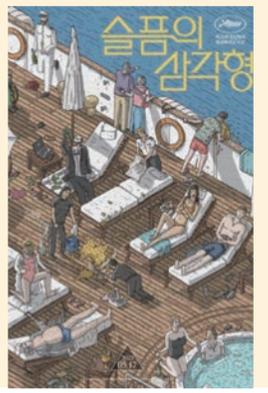
그리스 펠로폰네소스반도 서쪽, 피르고스의 작은 바다 마을 카타콜로는 지중해 크루즈의 기항지이자 고대 도시 올림피아의 관문이다.



Κατάκολο

인생이란 항해에도 숨 돌릴 기항지가 있다면 좋겠다. 이왕 바라는 거, 온화한 해풍이 1년 내내 밀려오는 고즈넉한 부둣가이기를 꿈꾼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낮잠을 늘어지게 잔 뒤, 낮 모르는 얼굴 틈에 섞여 헤엄치고 낚시하고 맥주 마시면서 한없이 게으른 시간을 보내다가, 언제든 가벼운 마음으로 훌쩍 떠나도 괜찮은 곳. 그리스 펠로폰네소스반도 서쪽 일리아 지방 피르고스시에 자리한 작은 바다 마을 카타콜로는 막연한 상상에 실감을 부여하는 장소다. 한가로이 낚싯대를 드리운 노인과 부둣가에 정박한 통통배, 외벽을 알록달록하게 칠한 노천카페가 소박하면서도 다정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 작은 마을엔 사로니코스만의 피레우스에 이어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여객 규모가 큰 크루즈 항구가 있다. 초호화 크루즈에서 벌어지는 희비극을 그린 영화 <슬픔의 삼각형>에 나오는 장면 일부도 바로 이곳에서 촬영했다. 영상 속 카타콜로의 풍광은 온갖 소동이 난무하는 선실과 대조를 이루며 묘한 잔상을 남긴다.

영화 <슬픔의 삼각형> 최고급 크루즈 여행을 떠난 승객들이 배가 전복되면서 뜻밖의 사고를 겪는다. 웃음 뒤에 쓴맛이 남는 블랙코미디로, 지난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카타콜로 항구는 이오니아해를 누비는 동부 지중해 크루즈 여정의 기항지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출발한 배가 사나흘이면 여기에 닿는다. 아침에 잡아 올린 해산물을 파는 식당과 선술집이 늘어진 길 뒤편엔 전형적인 해변 상점이 모인 거리가 이어진다. 일리아 지방에서 빛은 잘 익은 포도주, 갓 짜낸 듯 향긋한 올리브유를 파는 식료품 가게와 아기자기한 수공예품 공방이 이따금씩 발길을 멈추게 한다. 크루즈 승객 중엔 항구에서 500미터 정도 떨어진 카타콜론 박물관까지 둘러보는 호기심 많은 이도 있을 테다. 플라톤이 사용했던 알람시계의 원리를 비롯해 고대 그리스의 과학기술을 소개하는 알찬 전시를 선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들 대부분은 마을 밖으로 떠날 준비를 한다. 자동차로 30여분 달리면 올림픽 성화를 채화하는 도시로 유명한 올림피아에 닿는다. 제우스와 헤라 신전의 빛나는 기둥을 마주하는 순간, 인생이란 제법 살아 볼 만한 것이라며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①



GO! 여름은 고창이다!

제20회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

2023. 6.16. (금) - 6.18. (일)
선운산 도립공원 일원





Running

같이 뛰자, 러닝 클럽

요즘은 정말 나 빠고 다 뛰는 것 같다. 사람들은 왜 달릴까. 그것도 모여서.

머리가 복잡할 때면 740번 버스를 탄다. 집 근처에서 출발해 삼성역을 갔다가 승차했던 곳으로 돌아오는 노선이다. 이 노선의 백미는 한강을 옆구리에 바짝 끼고 건너는 잠수교 구간이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 그 옆에서 돛자리 펴고 앉은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이전엔 한강이 정적이라 생각했는데, 얼마 전부터 역동적인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무리 지어 달리며 땀방울을 재촉하는 러닝 클럽 회원들이다.

러닝 클럽은 한강공원이나 다리, 올림픽공원 등 운동하기 좋은 곳 어디 서나 볼 수 있다. 혼자 달리던 이들, 언젠가 달리기를 해 봐야겠다고 생각한 이들이 SNS를 구심점으로 모여 뛰고 있다. SNS가 기반이다 보니 참여가 자유롭다.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면 달리고 싶은 사람만 참여하는 식이다.

SNS에서 러닝 클럽의 열기는 뜨겁다. 5월 18일 기준 인스타그램에서 '러닝 크루'를 검색하니 관련 게시물이 38만 건에 달한다. '러닝 클럽' 게시물은 1만 건, '러닝'은 298만 건이 넘는다. 달리기와 각광받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러닝 클럽 회원을 모집하기도 한다. 서울시 광진구는 3월 30일을 시작으로 총 10회에 걸쳐 '광진 러닝크루'를 진행하고 있다. 홀수 차례에는 독석한강공원을, 짝수 회차에는 어린이대공원을 달 리는데, 3회 차 때는 접수 시작 5분 만에 조기 마감되었다.

집단을 이뤄 달린 경험이 있다. 학창 시절 체육 시간에 열 맞춰 운동장을 뛰던 기억이다. 숨이 턱에 차서 대열을 이탈했다가 친구들의 응원에 힘입어 완주했다. 러닝 클럽도 이와 유사하다. 홀로 달리기 목표 한 시간과 거리에 닿으려는 고독한 싸움이라면, 러닝 클럽은 참여자들

이 함께 결심과 각오를 다독여 달리게 한다. 그 따뜻한 응원에 퇴근런, 새벽런, 야간런 등 러너들의 달리기 시계는 하루 종일 돌아간다. 제대로 달리기 위해서도 함께 뛰는 것이 좋다. 몸 풀기부터 달리는 자세, 호흡법에 이르기까지 운동 방법을 알면 효과가 배가되기 때문이다. 일정한 패턴으로 달리는 것뿐 아니라, 속도를 높였다 줄였다 하며 쉬지 않고 달리는 인터벌 트레이닝 등 다양한 러닝을 시도할 수도 있다.

러닝 클럽 회원에게 달리는 놀이인 동시에 멋이다. 운동복을 똑같이 제작해 입거나 '찍터발'도 즐긴다. 찍터발은 사진 찍는 행위와 인터벌 트레이닝을 합친 말로, 뛰다가 사진을 찍는 것을 일컫는다. 포토그래 퍼가 함께 달리면서 러닝 클럽 회원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러너가 자신의 모습을 셀카로 남긴다. 자기만족의 한 방법이다. 강아지 모양 러닝 지도를 만들어 그 구간을 반려견과 함께 달리고 SNS에 인증하는 '댕맹런',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모금하고 기부를 하는 '기부런'도 빼놓을 수 없다.

문득 궁금하다. 사람들은 왜 달리는 걸까.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답을 찾았다. 검프는 어느 날 갑자기 달리기 시작한다. 그저 달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자마자 집을 박차고 나가 그날부터 달리기 매진한다. 그를 보고 뛰고 싶다고 느낀 사람들이 뒤따르며 무리를 이룬다. 달리는 단순하지만 즐겁고, 힘들지만 성취감 넘치는 행위다. 동행이 있다면 10초가 10분이 되고, 작심 3일이 30일로 늘어날지 모른다. 달리는 이들은 말한다. 똘 이후 삶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괜찮다. 일단 한 발짝 내디뎌 봐야겠다. ③



보훈 가족과 국군 장병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호국 보훈의 달

Instagram 감사의 댓글 이벤트

참여만 해도 아메리카노 1잔 무료 증정!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용사들께 감사하는 마음 담아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추첨을 통해 영무파라드호텔 '주중 디럭스 숙박권' 을 증정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1. 영무파라드호텔 공식 인스타그램 @ymparade_official 을 팔로우하고, 이벤트 게시물로 들어간다.
2. 이벤트 게시물에 응원 댓글을 작성한다. (예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장병님들 감사합니다!)
3. 6월 말, 영무파라드호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첨자 발표'를 확인한다.

이벤트 기간 2023. 6. 1(목) ~ 6. 25(일)

당첨자 발표 2023년 6월 마지막주 (예정)

6월 호국 보훈의 달 기념 이벤트

RESTAURANT
CIELG

레스토랑 씨엘로 '조식 2+1' 프로모션

보훈가족 및 현역군인을 동반한 투숙객 대상

조식 2인 결제시

추가 인원 1인 '조식 무료 제공'

예약문의. 051-743-0003

*본 프로모션은 사전 신청에 한 해 제공되며, 예약상황에 따라 사전 마감될 수 있습니다.

6월 카카오톡 프로모션&특가

| 카카오톡 친구 객실 특가 프로모션

'보훈의 달'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QR



카카오톡에서 영무파라드호텔 채널

친구추가 후 '보훈의 달' 메시지를 보내면

6월 30일 까지 10% 할인 특가로 객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가락국 김해를 즐기는 두 가지 방법

가야의 역사가 찬란한 경남 김해를 스탬프 찍으며 여행한다. 여권과 휴대전화 챙겨서 가야왕도로 출발하자.



“거북아 거북아/머리를 내어라/내놓지 않으면/구워 먹으리라.” 학창 시절 문학 수업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본 고대가요 ‘구지가’로, <삼국유사>에 가락국 건국 신화, 수로왕 탄생 신화와 함께 수록되었다. 느닷없이 고대가요 이야기를 꺼낸 데에는 이유가 있다. 가락국 땅이던 김해로 떠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아홉 우두머리가 땅을 치며 노래를 부르자 하늘에서 황금 알 여섯 개가 내려왔다는 구지봉, 가야 수로왕과 그의 배필 수로왕비의 거대한 무덤, 수로왕비가 아유타국에서 가져온 풍랑을 잠재우는 파사석탑 등 김해 여기저기에 가야의 흔적이 남았다. 유적지와 함께 둘러볼 여행지도 넉넉하다. 가야와 관련한 기록이나 신화를 주제로 꾸민 김해가야테마파크, 군용 철도 개통으로 생긴 진영역을 박물관으로 재단장한 진영역철도박물관, 꽃놀이 명소로 이름난 연지공원 등 김해만의 이야기를 품은 여행지가 방문객을 기다린다. 어디부터 가야 할지 고민인 이에게 가야왕도 김해 스탬프 투어를 추천한다. 참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김해 스탬프 투어 여권을 지참하고 인증 장소에 가서 스탬프를 찍거나, 스마트폰으로 김해관광포털에 접속해 모바일로 스탬프를 모으는 것이다. 여권과 모바일의 스탬프 수령 장소가 겹치지 않아 다양한 여행을 방문할 수 있다. 김해가 궁금해졌다면 어느 방법이든 상관없다. 가야 역사만큼 눈부신 김해로 떠나자. **k**

가야왕도 김해 스탬프 투어

여권형·모바일형 스탬프 인증 장소는 각각 18개, 19개로 여행지가 서로 겹치지 않는다. 도장을 3개 이상 받으면 풍경 자석 등 기념품을 증정한다.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골라 스탬프를 모두 찍은 이에게는 그랜드슬램 인증 배지를 준다.

문의 055-330-4448(김해시청 관광과)

자료 제공 김해시청

김해가야테마파크

가야 역사를 테마파크에 녹였다. 왕궁을 재현한 태극전에서 가락국 사람이 된 듯 거닐고, 가야 유물을 활용해 꾸민 가야무사 어드벤처에서 신나게 뛰어논다. 스릴을 만끽하고 싶다면 익사이팅 체험에 도전한다. 22미터 높이에서 고공 자전거를 타고 둘러보는 테마파크 풍경은 말 그대로 압도적이다.

☎ 김해시 가야테마길 161 ☑ 여권형 스탬프



진영역철도박물관

진영역은 1905년 일제가 군용 철도를 개통하며 지었다. 지금은 옛 역이 KTX 진영역에 역할을 내어 주고 김해의 근대와 철도 역사를 보여 주는 박물관으로 새 삶을 사는 중이다. 철도 관련 전시나 기관사 체험 시간을 마련하고 실제 사용했던 무궁화호 열차 등을 놓아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든다.

☎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145-1 ☑ 여권형 스탬프



화포천습지생태공원

화포천 종류부터 하구까지 펼쳐진 습지로, 총면적은 310만 제곱미터(약 94만 평)에 달한다. 상류에 위치한 공장 때문에 수질오염이 심각했으나 2008년 환경 복원을 시작해 2012년 생태 공원을 조성했다. 수달, 노랑부리저어새 등 멸종 위기 동식물의 보금자리이니 조심히 다녀야 한다.

☎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183-300 ☑ 여권형 스탬프



수로왕릉

가락국 시조이자 황금 알을 깨고 태어났다 전하는 수로왕의 무덤이다. 왕의 무덤을 지키는 남릉정문의 물고기 문양 쌍어문과 비석의 태양문을 찾아보며 가야의 모습을 상상한다. 왕릉 주위 약 5만 9500제곱미터(1만 8000평)를 공원으로 조성해 산책하기에도 좋다.

☎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 ☑ 여권형 스탬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가야는 철뿐 아니라 토기 문화도 융성했다. 흙을 의미하는 ‘클레이’와 건축을 뜻하는 접두사 ‘아크’를 조합한 이름처럼 흙, 건축을 주제로 한 건축 도자 미술관이 그 전통을 잇는다. 현재 풍화작용으로 플라스틱이 변형되어 만들어진 암석 ‘뉴룩’에 대한 전시가 진행 중이다.

☎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275-51 ☑ 여권형 스탬프



연지공원

산책하듯 여행하고 싶은 이에게는 도심에 자리한 연지공원을 추천한다. 벚꽃, 튜립, 연꽃 등 다양한 꽃과 수목이 자라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데, 특히 여름에는 연꽃과 어리연이 자아내는 풍경이 감성을 자극한다. 음악에 맞춰 물을 뿜는 음악 분수와 레이저 쇼 등도 볼거리다.

☎ 김해시 금관대로 1368번길 7 ☑ 모바일 스탬프





세상 모든 재료를 위하여

한국과 덴마크, 호주로 오가며 요리를 익힌 B3713의 정혜민 셰프는 재료를 존중하는 것에서 코리안 노르딕 퀴진이 출발한다고 믿는다.



정혜민 셰프가 추천하는 미식 공간

강원도 정선의 전영진 어가는 조만간 방문할 계획이라 꼭 소개하고 싶어요. 향어백숙과 송어비빔회로 유명한 곳인데, 쌀과 작물을 직접 기르는 것은 물론 장과 젓갈에 이곳만의 독특한 맛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의 돈대박 돼지국밥 24시, 전남 순천의 대원식당,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의 안동집 손칼국시, 서울 종로의 온지음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좋아하는 식당이 많아서 몇 곳만 추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혜민 덴마크의 '노마' '108', 호주의 '아티카' 등 미식가들이 사랑하는 세계적 레스토랑에서 경험을 쌓으며 자신만의 단단한 요리 철학을 일구어 왔다. 2021년부터 발효를 중심으로 코리안 노르딕 퀴진을 전개하는 'B3713'에서 헤드 셰프로 일하고 있다. 한국의 다양한 식문화와 식재료를 알리고, 지켜야 할 전통을 발굴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한다.

B3713 서울서 강남구 선릉로132길 27 02-3404-5299 @b3713_cheongdam

잇하기 쉬운 것들을 식탁 위로 불러내어 맛보고 즐기고 보존하는 일. 어떻게 조리해야 좋을지 몰라 사 먹지 못하는 온갖 식재료와, 명맥이 끊길지도 모를 전통 조리법을 활용해 미식의 다양성을 수호하는 길. 코리안 노르딕 퀴진을 지향하는 'B3713'의 정혜민 헤드 셰프가 생각하는 자신의 목표이자 책무다. 서울 청담동 한복판에서 몸소 허브를 기르고 발효를 연구하며, 때때로 장을 담그거나 술 빛의 여행을 떠나는 이유다.

코리안 노르딕이라는 정체성 한국 식문화와 식재료를 뉴노르딕 퀴진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계승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코리안 노르딕입니다. 덴마크의 레스토랑 '노마'에서 메뉴 개발팀 일원으로 머물며 배운 노르딕 퀴진의 미덕은 재료와 생산자를 대하는 겸손한 자세, 그리고 식문화 유산을 발전시키려는 올곧은 의지예요. 노르딕 퀴진과 한국 식문화의 접점은 발효와 전통입니다. 예컨대 한국에서 소금·물·콩으로 장을 담글 때, 노르딕 퀴진은 소금과 식초로 그라블락스(연어 절임)나 청어 절임 등 어패류의 보존 기간을 늘리는 요리법을 적용하죠. B3713은 발효와 전통을 매개로 두 퀴진을 아우르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중입니다.

B주방과 B멤버 B3713의 주방을 'B주방', 구성원을 'B멤버'라고 부릅니다. B주방은 오픈 키친 형태라 쿡쿡한 발효취가 조리대를 넘어 이따금 매장 전체를 가득 메우곤 해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발효를 제대로 하는 공간이구나!'라고 느낄 만큼요. B멤버들은 손 기술을 드러내는 음식에 그치지 않고 사유하고 감각할 거리가 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발효도 그런 노력 중 하나죠. 무엇보다 B주방에서는 '자연스러운' 재료의 사용을 지향해요. 바뀌 말하면, 한국에서 나지 않거나 제철이 아닌 식재료를 가급적 쓰지 않으려 해요. B멤버들은 재료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데도 능숙해요. B주방의 미래가 밝은 건 B멤버들 덕분입니다.

청년 셰프로 산다는 것 요식업계 여성 전문가 인터뷰집 <여자가 전부는 아니지만>에서도 이야기했듯, 셰프는 이야기와 문화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에 부합하는 셰프가 되기 위해선

싱그러운 계절을 담은 B3713의 메뉴

'맛조개'는 전남 순천에서 공수한 맛조개를 채수에 데치듯 익힌 뒤 곰피장아찌와 소금에 절인 견과를 얇게 잘라 썰어두고, 발효한 토마토 오미자 브로스와 어수리 오일로 마무리해 만들었습니다. 이 계절의 풍미가 흐드러지죠. 강원도 양구 사과를 저며 발효 포도 드레싱에 절이고 얇게 썬 콜라비를 쌓은 후, 소금에 절인 매실과 간장에 절인 인삼꽃을 곁들인 '사과 콜라비 샐러드'는 싱그러움으로 가득해요. '돈 살치살 스테이크'는 약불로 천천히 익혀 육즙을 가득 돼지갈비 뒷살에 5년간 숙성한 진석화전 갈로 만든 소스를 곁들여 완성했습니다. 삼겹살이나 목살 말고도 맛있는 부위가 많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맛조개에는 '양구 애플펀치 드링크'를, 스테이크에는 '블루베리 타르트 주스'를 페어링합니다. 주스의 산미가 침샘을 자극할 거예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해요. 체력을 유지하며 주방 구성원의 사기를 북돋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죠. 저와 구성원의 일상을 단단하게 하는 루틴에 충실한 이유예요. 재료를 살피고, 허브에 물을 주고, 오픈 준비를 할 때 사이의 '에술이야'를 함께 듣고, 노래가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 브리핑을 하고, 서비스 이후엔 식사를 만들어 먹으면서요. 청년이라 좋은 점은 크고 작은 일에 에너지를 투자하고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것!

여행이란, 감동 경험과 이야기를 쌓기 위해 식재료 여행을 떠납니다. 최근엔 전남 담양의 기슭도 전통장을 찾았어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다이닝 '에빛'의 알렉산더 헤드 셰프님, 인도 뭍바이 '시퀸'과 '눈'의 베니카 셰프님과 동행했죠. 긴 세월, 여러 세대를 거친 장을 맛보는 일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감칠맛이 어찌나 대단하던지 어떤 재료와도 비교할 수 없겠더라고요. 전남 해남 보해매실농원에서 보낸 시간도 뜻깊었습니다. 한국의 매실주, 매실청을 잘 활용해서 'plum' 만큼 'maesil'이란 이름을 널리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죠. 강원도 양구 펀치불에 있는 사과 농장 '애플카인드'도 꽃이 피었다기에 다녀왔어요. 사과 한 그루 한 그루가 온전히 자라도록 구축한 작농법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사과꽃으로 음식을 만



들면 어떨까 상상하기도 했죠. 많은 것이 변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데도 불구하고 똑심 있게 자신의 것을 지켜 나가는 농부님, 명인님을 만날 때마다 깊은 감동을 느껴요.

논알코올과 제로 웨이스트 요즘 저의 관심사는 논알코올 음료예요. 한식에서 국이나 찌개를 중요하게 여기듯, 덴마크에서는 주스나 와인 페어링을 일상적으로 즐겨요. 여름이 다가올수록 달콤한 과일이 많이 나오는데, 음식뿐 아니라 음료로도 계절감을 전하기 위해 심재현 소믈리에와 논알코올 음료 페어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일도 저를 사로잡은 것 중 하나예요. 요리 과정에서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할 순 없을까 고민하다가 바 '체스트'와 협업해 버려지는 재료로 음식과 음료를 선보인 '크로스 폴리네이션(Cross Pollination, 타가수분)' 팝업 행사를 꾸며 보았어요. 지금 제가 맛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잘 보존해 다음 세대에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초여름의 맛 레스토랑 테라스 가든에 있는 허브가 어느새 숲을 이루어서, 이것을 메뉴로 옮겨볼 계획이에요. 머지않아 산딸기와 오디, 복숭아와 자두도 나올 텐데, 이 붉은 열매들을 음료나 차가운 디시 혹은 메인 디시의 가니시로 활용할 구상도 하고 있어요. 계절 재료인 조선평박, 초당옥수수, 키조개도 놓칠 수 없겠네요. 맛이 차오르는 여름을 기대해 주세요. 1



영등포역에서 문래역까지, 숨은 맛집 찾기

과거 공장과 철공소가 즐비했던
서울 영등포역과 문래역 일대.
그 사이사이로 색다른 미식 공간이
생겨나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

snack room

☞ 메밀면과 장아찌 2만 2000원 뇨끼와 요거트 소스 1만 8000원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03-2 @snackroom_seoul

이곳의 뇨끼는 밀가루와
달걀, 유제품 없이
감자만으로 만들어 속이
편하다.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도 다양하다.



TRAVEL TIP

영등포역에서 문래역까지 이어지는 길은 과거와 현재 분위기를 함께 느껴 보기에 좋다. 공업 지대였던 이곳이 지금은 철공소와 예술이 공존하는 동네로 거듭났다. 2010년 창작 공간 '문래예술공장'이 생기면서 예술가들이 하나둘 모여든 것이 시초다. 버려진 철과 연장을 재활용한 조형물, 담벼락에 그린 그림이 걷는 내내 동반자가 된다. 공장과 공방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식당과 카페를 찾다 보면 이 지역의 매력에 빠져들 것이다.

카페&와인 스낵룸 _주인장의 미식 탐구 과정을 온전히 담은 식당이다. 포도밭집 손자로 자라 어려서부터 포도와 친했던 정익진 대표. 커서는 와인에 관심이 가 내추럴 와인 바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 집을 열기 전 한 달간 머무른 덴마크에서는 음식 개발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곳 음식은 하나같이 담백하면서도 감칠맛이 났는데, 비결은 발효였다. 모든 경험을 망라해 차린 곳이 '카페&와인 스낵룸'이다. 한 가지 더. 밀가루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자신의 체질을 고려해 빵과 면 등 모든 메뉴가 글루텐프리다. 국산 쌀가루와 현미 가루를 사용한 덕분에 밀가루 가공식품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 오후 5시가 되면 이 공간은 와인 바로 바뀐다. 카페였던 낮과는 다른 매력을 지닌 곳으로 변모하는 것. 와인에 곁들이는 음식은 한식이다. 덴마크에서 얻은 힌트를 적용해 식재료 본연의 산뜻한 맛이 느껴지는 한식을 만든다. 직접 고추장을 담고, 재료를 발효·숙성한다. 메뉴 '메밀면'의 면은 쫄깃하고, 이 동네 방앗간에서 뜬 짬그림과 돌김 튀리로 맛을 낸 국물은 고소하다. 여기에 직접 만들어 고명으로 올리는 취나물·방풍·파프리카 장아찌가 상큼하다. 와인에 곁들이니 맛이 배가된다.

02 송어의 꿈



☞ 2인 코스 4만원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801-1 📱 @swkm20p2



송어의 꿈은 원 테이블 레스토랑 '시즌1'과 테이블을 각각 마련한 '시즌2'가 있다. 시즌1은 2~12인이 이용할 수 있다.



송어의 꿈 철공소 건물들이 나란히 마주하고 있는 영등포역 인근 대로변에 소음과 불꽃이 잦아들면 적막한 저녁이 찾아온다. 일을 파하고 셔터를 내린 공장 사이로 자동차 소리만 울려 퍼지던 이곳에 5년 전 변화가 생겼다. 철공소 건물 한쪽에 레스토랑 '송어의 꿈'이 들어선 것. 강원도 출신 주인장이 고향에 많이 서식하는 송어를 떠올리며 지은 이름이다. 가게는 단출하다. 내부 벽은 여전히 기계 흔적과 못 자국이 가득하다. 그저 주광색 전등 아래 거대한 테이블이 자리할 뿐, 간판도 없다. 공업소 거리를 홀로 밝힌 것만으로 홍보가 됐다. 테이블 하나

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모습에 손님이 하나둘 늘었다. 합리적 가격에 코스 요리를 맛보는 원 테이블 레스토랑이라는 점도 입소문에 한몫했다. 2인 코스는 구운 가지와 애호박, 각종 채소가 발사믹 소스와 어우러진 두부샐러드부터 시작한다. 차례로 갈릭버터 새우, 시금치 크림파스타, 부챗살 스테이크, 과일 디저트 순으로 테이블에 오른다. 시그너처인 시금치 크림파스타는 꾸덕꾸덕한 크림에 매콤한 고추를 넣어 뒷맛이 개운하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다 친구가 되기도 한다.

고트델리 문래 젓빛 외관이 인상적인 '고트델리 문래'. 본래는 어떤 공간이었고, 지금은 어떻게 운영할까? 곳곳에 숨은 힛트를 참고하면 정답을 유추할 수 있다. 매장으로 향하는 계단마저 예사롭지 않다. 초록색 옷을 덧입은 난간을 따라 오르자 고전 영화에서 본 듯한 호텔 카운터가 등장한다. 여인숙이었던 이곳의 특징을 재치 있게 풀어 낸 공간이다. 주위에는 식료품 진열대와 큼직큼직한 빵들이 눈에 띈다. 조리된 육류와 식료품을 판매하는 외국의 식품 판매소에서 착안한 샌드위치 가게라서 그렇다. 가장 품을 들이는 것은 고기다. 샌드위치는 대표

적인 패스트푸드지만, 안에 들어가는 고기만은 오랜 시간 정성 들여 만드는 것이 대표의 신념이다. 훈연실에서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염지하고 훈연·수비드 등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 보통 염지에만 열흘 넘게 소요된다. 미세한 소금기 차이가 맛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한다. 가장 사랑받는 메뉴는 장봉뽕. 파삭한 겉과 달리 부드러운 바게트 속살에 1밀리미터 두께로 얇게 저며 넣은 고기와 버터가 조화롭다. 올드스쿨 파스트라미도 인기다. 육포가 연상되는 고소하고 스모키한 파스트라미의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진다.



가게 근처에 있는 훈연실은 고기뿐 아니라 빵도 준비하는 공간이다. 매일 오전 6시면 어김없이 빵 굽는 구수한 냄새가 퍼진다.



☞ 장봉뽕 9000원 올드스쿨 파스트라미 1만원
 📍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139길 14 📱 @goattdeli



03 고트델리 문래

04 계육정



☎ 모듬구이 3만 5000원 특목살 소금 1만 5000원 안창살 소금 1만 5000원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9길 17-2 📱 @gyeokjung_mullae



주인장은 닭고기 각 부위의 맛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 처음엔 소금만 찍어 먹으라고 권한다. 그 후에 세로로 길게 썬 대파에 싸 먹거나 소스를 찍어 먹는다.



계육정 닭 요리는 왜 가슴, 다리, 날개만 주로 이용할까. 철공소 두 곳을 합쳐 만든 닭구이 전문점 '계육정'은 선입견을 깨고 다양한 부위를 쓴다. 최성민 대표는 맛집 전문 블로그로 활동하면서 1500군데에 이르는 식당을 가 봤는데, 문래동만 200여 곳을 방문했다. 공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된 이 동네의 매력에 빠졌기 때문이다. 맛집 블로그로 활약한 이력이 외식 트렌드를 이해하고 차별화된 메뉴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다. 최 대표는 돼지고기나 쇠고기는 부위별로 분리해 특유의 맛을 느끼는 반면, 닭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 모듬구이 메

뉴를 선보인다. 익숙한 다리살, 안심부터 가슴 연골, 모래주머니, 염통 등 총 다섯 가지 특수 부위가 접시 하나에 담겨 나온다. 신선함으로 승부하기에 따로 양념을 하지 않았다. 숯불에 구워 소금을 찍어 먹으면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닭고기 맛을 경험할 수 있다. 모래주머니는 오독오독하고 염통은 쫄쫄한 동시에 차지다. 여기에 가늘게 찢은 가슴살과 채소를 얹은 '초계 물 쫄면'으로 입가심하니 마무리가 깔끔하다. 오롯이 닭고기만으로 이루어진 끼니지만 단조롭지 않다. 이토록 풍성한 닭의 세계라니. 맛의 지평이 한층 넓어진다.

中国茅台 香飘世界

CHINA MOUTAI
A TOAST TO THE WORLD



용성통상(주)
Yongsheng Co., Ltd.

귀주마오타이주
한국공식 수입판매법인

문의 02-3665-6611
www.moutaikorea.net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하루 동안 정원을 바라보며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유원재
수안보가 품은 아름다운 풍경과 심신에 파스칼을 더하는 온천,
진정성이 담긴 공간적 체험을 통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온전한 물입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물입 가능한 휴식



딸기 과육을 넣어
새콤달콤한 우유 빙수

GS25. 춘식이 딸기 빙수 3.6점

김현정 빨간 딸기에 시럽, 딸기 아이스크림, 우유 아이스크림 4단 그레데이션 비주얼부터 예쁘다. 시럽 부분은 단독으로 먹기에 달아서 부담스럽지만 밀의 아이스크림과 섞으니 딱 적당. 춘식이가 말아 준 딸기 빙수 맛있네요. ★★★★★ / 강은주 3500원으로 살 만한 굳건질거리가 마땅치 않은 때, 귀여운 춘식이 얼굴을 내건 이 딸기 빙수 정도면 꽤 만족스럽다. 촉촉한 딸기 과육과 농밀한 우유 얼음의 조화가 기분을 화사하게 한다. ★★★★★ / 옥송이 정! 말! 맛있다! 달콤한 딸기 시럽과 우유 빙수가 상큼하게 어울린다. 너무 맛있어서 또 먹고 싶다. 사각사각 얼음까지 맛있다. 조만간 냉동실에 쟁이고 만다. ★★★★★ / 남혜림 딸기 시럽에서 인공적인 맛이 나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걱정이 현실로... '생딸기 좋아'를 외치는 저로서는 실망이에요. 저렴한 가격은 조금 호감입니다. ★☆

3.8점 빙그레 D.D.D 비비빅

김현정 팔을 못 먹어서 비비빅도 못 먹는 일인, 여기 있어요. 팔빙수 주문할 때 "팔 빼고 주세요" 하는 나란 사람... 팔이 씹힐까 봐 경계하며 한 입 먹었는데 다행히 그건 없더라. 도전한 데 의의를 두고 팔과 다시 헤어지기로 했다. 콘셉트는 재미있어요! ★★★★★ / 강은주 누가 비비빅을 할때 입맛 아이스크림이라 하는가. 이렇게나 우아한 단맛을 구현하기란 분명 간단치 않았을 터. 딱딱한 바 형태보다 부드러운 크림 질감과 더 잘 어울리는 맛이다. ★★★★★ / 옥송이 텅텅해서 별로인가 했는데, 먹을수록 점점 맛있습니다. 살짝 목 막히는 빵을 좋아하는 저는 '호'입니다! ★★★★★ / 남혜림 팔봉어빵, 팔빙수, 팔죽. 팔을 넣은 음식은 뭐든 좋습니다! 그러니 제가 비비빅롤을 좋아할 확률은 100퍼센트. 팔 알갱이가 없는 게 약간 아쉽습니다. 비비빅 맛과 비슷해서 신기했어요. ★★★★★



아이스크림 롤케이크로
변신한 비비빅

여름이니까~ 아이스크림

더위, 비켜! 네 명의 에디터가 특이한 아이스크림을 모아 먹어 봤다.



제로 슈거 핑크솔트 시럽과
모나카의 만남

스키니피그 핑크솔트 모나카 2.8점

김현정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점은 알겠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겉의 과자가 진갈색인 게 뭔가 신경 쓰신 느낌이고 당 함량도 낮추어서 죄책감을 덜어 준다. 문제는 맛. 이렇게 느끼하기 있기 없기... '크리미'한 거라는데 다른 크리미보다 더 크리미한가 봐요. ★★ / 강은주 이롭도 만듦새도 공주님처럼 사랑스럽지만 맛은... 살짝 모호하다. 제로 슈거 재료를 사용한 까닭일까? 단맛과 짠맛이 모두 선명하지 않아 인상이 희미하게 느껴진다. ★★★★★ / 옥송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첫입에 조금 실망했습니다. 녹녹한 겉면과 이도 저도 아닌 듯한 아이스크림이 제 취향과는 안 맞는 것 같아요. ★ / 남혜림 맛, 모두 이 제품 한 번만 다시 드셔 보세요! 먹자마자 "으음~" 연발! '단짠'은 잘 모르겠지만 부드럽고, 달콤하고... 당 함량도 낮으니 한 개 더 먹을래요. ★★★★★

3.4점 CU. 이 정도는 약과지 바

김현정 물 들어올 때 노 저으셨군요. 약과 알갱이가 넘나 소박해서 특유의 찐득한 씹는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아, 그렇다고 약과를 덩어리째 아이스크림에 넣어 먹고 싶다는 말도 아니다... 오늘도 특이하고 좋은 경험 한 걸로. ★☆ / 강은주 한국을 떠나 타지에서 잠시 체류할 적에 10킬로그램 정도가 불었다. 바로 약과 때문이었다. 이걸 먹으면서 그 시절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떠올랐다. 맛있다. 무섭도록 맛있다. ★★★★★ / 옥송이 약과 마니아로서 인정합니다. 명백히 약과 맛입니다. 첫입에 느끼한 듯 무거운 약과 특유의 향이 퍼져요. 단, 정말 담니다. 그래도 오후에 이 정도 달콤함은 괜찮잖아요? ★★★★★ / 남혜림 약과를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우유와 약과가 섞여 달콤하고 씹는 맛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서주 아이스크림 바를 닮았네요. '약깃팅' 실패하신 분들! 이 제품으로 마음 달래세요. ★★★★★



진짜 약과가 콕콕 박힌
우유 아이스크림

여름, 단오, 강릉

질푸른 바다와 시원스러운 남대천, 단오의 흥겹고 달콤한 공기를 오래도록 떠올리게 할 강원도 강릉의 물건들을 모았다.

강릉

1 (오브젝트 단오) 강릉단오제 공식 굿즈 '오브젝트 단오'가 출시됐다. 관노가면극부터 창포까지, 단오제 전통을 모티브로 제작한 제품이 17종 94개에 달한다. 오방천 단오 가방에 관노가면극 캐릭터 키링을 달아 멋을 부리거나, 범일국사 호랑이 아크릴 오브제로 액운을 막거나, 창포삼푸 바로 머리 감으며 단오장 풍습을 제대로 계승한다. 강릉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목록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danojefestival.or.kr



문은주 ©

2 (포스트카드오피스) 우체국을 콘셉트로 세계관을 구축한 엽서 가게다. 우체국장 미스터 레이더와 직원 버리의 아기자기한 '캐미'가 돋보이는 일러스트 엽서가 BTS 버스 정류장에서 오죽헌에 이르는 강릉의 여러 명소를 묘사하며 여행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한다. 엽서뿐 아니라 마그넷, 마스크 테이프 등 다양한 문구 제품으로 강릉 풍경과 캐릭터 친구들을 간직하고 추억한다. 문의 postcardoffice.myportfolio.com



4 (버드나무브루어리) 강릉을 대표하는 수제 맥주 브랜드 '버드나무브루어리'는 해마다 단오절을 기념해 창포를 가미한 한정판 맥주를 만들어 왔다. 올해는 벨기에서 농주 '세종'에 창포를 더할 예정이다. 창포 향과 과일의 단맛이 느껴지는, 초여름에 어울리는 가벼운 맥주다. 강릉의 '동네 예술가' 최제현의 몰트 포대 업사이클링 에코백에 맥주를 담아 가도 좋겠다. 문의 budnamu.kr

3 (관동별곡) 강릉의 아름다움에 영감을 받아 만든 디자인 소품을 선보이는 공간이다. 송강 정철이 관동 8경을 찬미한 가사의 제목에서 상호를 따왔으며, 흘림체로 쓴 '관동별곡'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한 질부채와 맥주잔, 키링, 경포대의 경도와 위도를 시각적으로 풀어낸 프린티드 티셔츠까지 선보인다. 관동의 지역색과 문화를 반영한 제품 면면이 눈을 즐겁게 한다. 문의 gdbk.kr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소노펠리체 빌리지 비발디파크]

6,000만원대로 누리는 2억원가치의 독보적 혜택 프리미엄 멤버십!!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 도약하는 대명리조트의 새이름 2023년 소노호텔앤리조트 신규회원모집 (마감임박)

새 브랜드로 글로벌 체인 사업에 나선 **소노호텔앤리조트(구. 대명리조트)**가 **VIP 고객을 대상으로 '이그제큐티브클럽(Executive Club)' 멤버십을 출시했다.** 이그제큐티브 클럽은 럭셔리 호텔 서비스와 실속있는 리조트 서비스를 결합한 프리미엄 회원권으로 식음, 골프, 승마, 요트 혜택 등을 담아 고객에게 스페셜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

소노호텔앤리조트는 국내 최대 규모인 전국 16곳 체인망과 11,000여개가 넘는 객실을 보유하여 업계 1위를 자부한다. 폭넓은 여행지 선정은 물론 레저&스포츠 시설을 신규 회원권 하나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개인 및 법인 명의로 분양이 가능하며, 이번 이그제큐티브 클럽은 회원제 상품으로써 20년 만기시 전액을 반환 해준다.

이그제큐티브 클럽 멤버십은 기존의 회원권과 완전히 차별화하여 신규 특별 혜택뿐만 아니라 입회 기간 내내 상시 혜택을 제공받는 것이 특징이다. 정회원은 연간 2인 10회 조식 뷔페와 노블리안 라운지 음료 30회가 무료이며, 호텔 내 휘트니스, 수영장, 사우나, 발렛 파킹 서비스 등이 상시 제공된다. 또한 정규 18홀의 소노펠리체 CC(비발디파크 WEST, EAST/델피노), 오션월드, 스키, 승마클럽, 요트 등 다양한 레저&스포츠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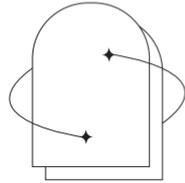
소노호텔앤리조트 측은 "타 업체와 다른 전문 교육을 이수 레저컨설턴트가 상담부터 계약 및 예약까지 1:1 회원 전담 관리 체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노호텔앤리조트 회원권의 가치는 '지속적인 개발과 인수 사업'으로 지난 **2021년 10월 소노펠리체 델피노가 그랜드 오픈했으며, 브레이크힐스 등이 개발 중이다.** 특히 이그제큐티브 클럽 멤버십은 회원권 시장에 없는 **독보적인 혜택을 담은 멤버십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이번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분양 카탈로그를 배송해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세요. **H.P 010-4140-6540** 문의전화 (주말 및 24시간 상담가능) **02)2222.5917**





© National Gallery Global Limited 2023, Published under licence by ENA Partner, © National Gallery, London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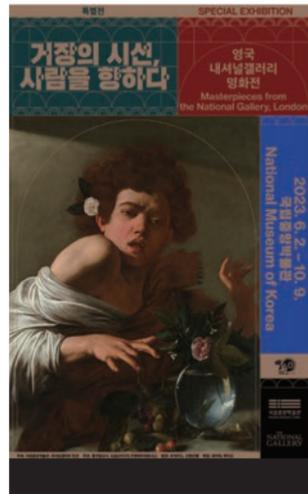
• EXHIBIT •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영국 내셔널갤러리 명화전>

서울 06.02~10.09

르네상스에서 인상주의에 이르는 15~20세기 초 다양한 유럽 회화를 한자리에 모았다. 한국에서 영국 내셔널갤러리의 소장품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파엘로의 '성모자와 세레 요한'부터 토머스 로렌스의 '찰스 윌리엄 램튼'까지, 서양미술의 주제가 신(神)에서 사람과 일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조명한다. 렘브란트 판레인, 빈센트 반 고흐, 카라바조, 컨스터블, 마네 등 서양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거장들의 명화를 음미할 기회다.

장소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문의 1688-2063



배운성, '가족도'

• EXHIBIT •

<다시 보다: 한국근현대미술전>

서울 04.06~08.27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35주년을 맞아 구본웅, 김환기, 나혜석, 박수근, 이응노 등 근현대미술사를 대표하는 작가 25명의 회화·조각·드로잉 작품 160여 점을 소개한다. 1920년부터 1988년 서울올림픽에 이르는 동안 한국 현대미술의 변화 과정과 작가별 특징, 시대별 변천사 등을 한눈에 담는다.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골목 안(창신동 풍경)' 등이 관람객을 한국 미술의 세계로 이끈다.

장소 서울 소마미술관 문의 02-425-1077



* <KTX매거진> 인스타그램을 방문해 독자 초대 이벤트 정보를 확인하세요! (6월 2일~8일)



• SHOW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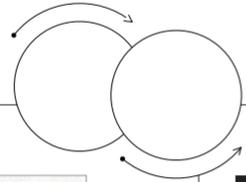
<VITA>

김해 06.17

컨템퍼러리 발레 중심의 안무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보여 준다. 와이즈발레단이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를 배경으로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생명의 힘 또는 지구온난화, 환경오염으로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자연 등을 역동적으로 표현한다. '비타(vital)'는 라틴어로 일상, 삶, 인생이라는 뜻이다. 작은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이 우리 삶과 맞닿은 자연의 존재를 다시 일깨운다.

장소 경남 김해서부문화센터 문의 055-344-1800





what's up



• EXHIBIT •

<백희나 그림책>전

● 서울 ● 06.22~10.08

<구름빵> <알사탕> <장수탕 선녀님> 등을 펴낸 그림책 작가 백희나의 첫 개인전이자 예술의전당 전관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으로, 작품 원화와 입체 모형을 공개한다. 그림책 속 캐릭터와 공간을 실제로 체험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꾸며 더욱 흥미롭다.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문의 02-580-1300



• FESTIVAL •

제13회 화성 뱃놀이 축제

● 화성 ● 06.09~11

이색적인 요트 승선을 즐기는 해양 문화 축제가 찾아온다. 축제는 희망의 바다를 향해하는 콘셉트로 진행된다. 올해는 밤바다 승선 체험 등 낮부터 밤까지 뱃놀이를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상 스테이지 공연을 감상하는 해상 파티와 어촌 체험, 플로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시원한 요트 위에서 바다를 만끽하고 더위도 날리자.

장소 경기도 화성 전곡항 및 제부도 일원
문의 070-8880-0109



• FESTIVAL •

무주 문화재야행

● 무주 ● 06.23~24

무주 한풍루를 중심으로 문화유산을 돌아본다. 한풍루는 평상시 출입을 금지하나, 축제 기간에 한해 야간에만 개방한다.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 봉안 행렬을 디오라마로 펼쳐는 행사도 기대를 모은다. 이 외에 태권도 시범단 공연 등이 무주의 밤을 밝게 빛낸다.

장소 전북 무주 한풍루 외
문의 063-324-1300



• FESTIVAL •

제3회 떡볶이 페스티벌

● 대구 ● 06.17~18

친구들과 함께하던 학창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떡볶이. 한국인의 '솔 푸드' 떡볶이와 함께한 찬란한 추억의 순간으로 초대하는 먹거리 축제다. 길거리 감성을 그대로 살린 '떡볶이 포차'에서 전국 떡볶이를 즐긴다. 베틀시장과 다양한 체험 및 게임 부스도 마련했다.

장소 DGB 대구은행파크 일원
문의 053-665-2795



• SHOW •

<베르나르다 알바>

● 서울 ● 06.16~08.06

뮤지컬의 배경은 1930년대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마을이다. 두 번째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은 베르나르다 알바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 받고 권위적인 가정이 된다. 알바에게 억압당한 다섯 딸이 그와 집 안에서 대립한다. 정영주, 강애심 등 스무 명의 배우가 열연을 펼친다.

장소 서울 국립정동극장
문의 02-751-1500

아시아의 또 다른 바다

Alternative Sea for Asia

Kang Honggoo
Kim Seungyoung
Kim Cheonil
Kim Whanki
Nakamura Kazumi
Lee Yihhong
Murai Hironori
Paik Namjune
Oh Jiho
Uchida Aguri
Yuan Huili
Imazu Kei
Chen Yujung
Heo Geon
Heo Baekryun
Huang Bohao

강홍구
김승영
김천일
김한기
나카무라 가즈미
리아홍
무라이 히로노리
백남준
오지호
우치다 아구리
원혜리
이마즈 게이
천위룡
허백련
황보하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념 전시
전남도립미술관
6~9 전시실



23. 4. 11.(tue) - 7. 16.(sun)

세상 끝 다정한 바다

소설 <재와 물거품>으로 이름을 알린 김청굴 작가가 연작소설 <해저도시 타코야키>로 돌아왔다. 그가 상상하는 환상적인 세계에 대해 물었다.

빙하가 모두 녹았다. 대륙이 물에 잠기자 사람은 딛고 설 땅을 잃는다. 설상가상으로 전염병까지 돈다. 김청굴 작가의 판타지 소설 <해저도시 타코야키>의 배경이다. 그럼에도 소설 속 인물들은 살기 위해, 또는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애를 쓴다. 연대와 배려는 찾아볼 수조차 없는 디스토피아에서 늘 사랑을 외치고, 타인 대신 희생한다. 무녀와 인어의 관계를 그린 <재와 물거품>도 마찬가지다. 그의 소설을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사랑. 곧 망해 버릴 세계에서도 끝내 추구와 사랑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엮는 낭만적인 예술가에게 대화를 청했다.

Q. 작가님의 작품 대부분이 판타지 문학입니다. 비현실적인 세계를 설정하거나 SF라는 장치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A. <해저도시 타코야키>를 예로 들게요. 실제로 빙하가 모두 녹으면 해수면이 60미터 정도 상승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책의 배경처럼 바다만 존재하는 세상은 아닌 거죠. 하지만 판타지 세계에서는 모든 땅이 잠기고, 바다에 갑자기 새로운 종이 나타난다고 해도 어색하지 않아요. 상상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실이 힘들어서 상상에 기대나 봐요. 인간은 너무 많은 걸 만들고, 과소비하죠. 그 결과 지구는 점점 오염됩니다. 한쪽에서는 인간, 동물 할 것 없이 새 생명이 계속 태어나요.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세상이 멸망한다 해도 선한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디스토피아에서도 행복한 인물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Q. <재와 물거품>과 <해저도시 타코야키>는 다른 이야기지만 바다라는 배경이 같습니다. 작가님에게 바다는 무슨 의미인가요? A. 어릴 적 바닷가에서 살았어요. 조금만 달려가면 바다에 닿았죠. 떠오르는 기억은 몇 없지만,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던 것과 잠수해서 수면을 올려다보던 기억이 선명해요. 제게 바다는 그리운 곳이에요. 어릴 때 기억이 소중한 바다가 배경으로 한 소설을 쓰는 것 같아요. 바다는 생명, 순환을 의미하

도 해요. 반대로 모든 것을 앗아 가는 무서운 곳이기도 하고요. 죽음과 생명이 돌고 도는 공간에서 사랑을 시작하고, 끝내고, 다시 사랑하는 일이 어울리지 않나요?

Q. 작가님의 작품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작품마다 주제는 다르겠지만, 작가님이 소설로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A. <해저도시 타코야키>에 "우리는 멸망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웃는 날이 더 많을 거라 믿었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작가의 말에는 "가끔은 힘들고 지칠 때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많이 즐겁고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라고 썼어요. 태어나면 죽는 게 당연해요. 그 사이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하지요. 어쩔 수 없는 일이 밀려오고, 지치고, 좌절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웃고, 사랑하고, 행복하자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차기작 역시 로맨스입니다. 여름이 떠오르는 <재와 물거품>과 다르게 겨울과 어울리는, 몸종과 아씨가 주인공인 고전풍 소설입니다.

Q. 바다의 계절 여름입니다. 작가님이 추천하는 여름 여행지가 궁금합니다. A. 지난봄에 바다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운전 못해서 기차나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가능한 곳을 찾다가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해운대에 갔는데 모래사장이 정말 길더라고요. 파도 소리 들으며 해변을 걷는 것도 좋았고, 벤치에 앉아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이는 바다를 바라보던 순간도 생각나요. 다시 부산을 방문하더라도 바다를 실컷 보고 싶어요. 돼지국밥도 먹으러 갈 거예요! **k**

김청굴 청굴 10킬로그램을 사서 고군분투하며 청굴청을 만들었던 기억 때문에 필명을 김청굴로 지었다. 2019년 안전자옥 단편 공모전에 당선된 <세대전네거리역 미세먼지 청정구역>을 시작으로 앤솔러지 소설집에 참여했고, 경장편 <재와 물거품>, 연작 소설 <해저도시 타코야키>를 출간하는 등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2023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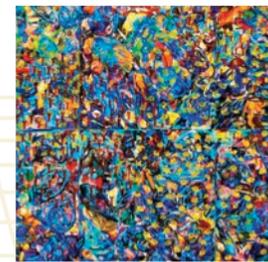
2023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예술 여행

기차여행센터

예술의 도시 광주에서 제14회 광주비엔날레가 개최되었다. 올해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를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세상에서 물이 가장 유약하지만, 공력이 아무리 굳세고 강한 것이라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유약이수(柔弱於水)'는 이질성과 모순을 수용하는 물의 속성에 주목하며, 개인과 공동체에 스며들어 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현실에 나름의 방향성과 대안을 지속해서 제시하는 예술의 가치를 탐구해 보게끔 한다. 스며드는 부드러움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물의 힘을 표본으로 삼아, 이런 힘이 어떻게 분열과 차이를 포용하는지 모색해 보자.



전시 장소 1)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2) 국립광주박물관 3) 무각사 4) 예술공간 집 5)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누구나 바라던 예술

1인 패키지 : KTX 승차권
+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 렌터카

제14회 광주비엔날레가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soft and weak like water)'를 주제로 7월 9일까지 94일간 개최됩니다. 세계 각국의 80여 명 작가가 참여하며, 40여 명 이상의 작가들이 신규 커미션 및 신작을 선보입니다.

여행일	2023년 4월 7일 ~ 7월 9일
상품가	74,800원~ (서울역-광주승정역 기준)
포함 내역	1인 왕복 KTX 승차권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불포함 내역	여행자 보험, 식대, 숙박, 개인 경비 등
추가 상품	광주승정역 투유 렌터카 24h 이용권
안내 사항	다른 출발역문의



QR 코드로 광주비엔날레 상품 확인하고 여행 가자!

SR KTX 공식 협력 여행사 전화 문의 1899-2550
TALK 카카오톡 채널 상담 '기차여행센터'



물 맑은 영주

소백산에 안긴
경북 영주로 떠났다.
철길, 숲길, 울길 따라
걷고, 쉬고, 콧노래를
들었다.

소백산 자락길





01 죽령옛길, 철길과 무쇠달마을의 삶

갓 세수한 듯 말갭게 갠 하늘 아래 희방사역이 있다. 바지런한 손길로 매만진 까닭에 곱고 단정하게 낡았다. 1942년 중앙선 간이역으로 문을 연 이곳은 1951년 보통역으로 승격되었고, 개역 78년이 지난 2020년 12월 중앙선 복선화 사업으로 영업을 중단해 폐역이 됐다. 녹슨 철길 틈에 노랗게 피어난 애기똥풀과 썸바귀를 헤치며 한 발씩 디딘다. 폐선로에 레일바이크를 놓는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오늘도 희방사역을 맴도는 건 소백산에서 밀려온 싱그러운 숲 내음뿐이다. 승강장 한편에 집 짓고 사는 검둥개 희방이와 흰둥이 수철이가 이따금 적요를 깨뜨린다. 희방이는 소백산 기슭의 사찰 희방사에서, 수철이는 마을 지명인 풍기읍 수철리에서 딴 이름인데, 기분이 딱 화창한 모양인지 꼬리를 이리저리 흔들고 왕왕 짖는다.

우리가 소백산 자락길에 올라야 하는 이유

흔들 꼬리가 없다면 두 팔을 휘적이며 콧노래를 흥얼거릴 수밖에. “야생초 곱게 피면 맑은 물 계곡을 따라/ 님과 함께 어화둥둥 사랑을 노래하리/ 내 사랑 소백산아...”. 가수 주현미의 ‘소백산’을 따라 부르다, 비로봉이 어디쯤 솟았을까 짐작해 봤다. 이쯤, 아니 저쯤이려나. 담묵빛 소백산 능선이 손에 닿을 듯 아물거렸다.

소백. 녹음이 짙어질 때 생각나는 이름이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드나들어 걸기 좋은 이 계절, 143킬로미터 소백산 자락길에 첫걸음을 내딛기로 했다. 이번 여정의 시작점은 3자락길 중 한 구간인 죽령옛길이다. 희방사역에서 출발해 느티쟁이 주막 터를 거쳐 죽령마루에 이르는 2.8킬로미터 코스다. 죽령은 경북 영주 땅에서 충북 단양으로 넘어가는 고개다. <삼국사기>와 <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삼국시대부터 수많은 이가 오르내리며 영남을 대표하는 길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죽죽이라는 옛 사람이 길을 처음 닦았다는 기록부터 2톤에 달하는 오대산 상원사 동종이 마차에 실려 이 고개를 지났다는 설화, 풍기군수였던 퇴계 이황이 넷째 형이자 충청감사를 지내던 온계 이해를 마중하고 배웅하던 죽령대 일화까지. 발 닿는 곳마다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서려 있다.

2020년 폐역이 된 희방사역은 풍기읍 수철리 무쇠달마을의 관문이다. 수철리는 과거 수철교리였고, 수철교를 풀어 쓰면 무쇠 다리다. 희방폭포에서 수행하던 두운대사가 한 여인을 호랑이로부터 구했는데, 여인의 부친이 고마움을 표하고자 무쇠 다리를 놓고 희방사를 창건했다는 설화가 전한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청량리역에서 KTX를 타고 영주까지 1시간 40분 정도 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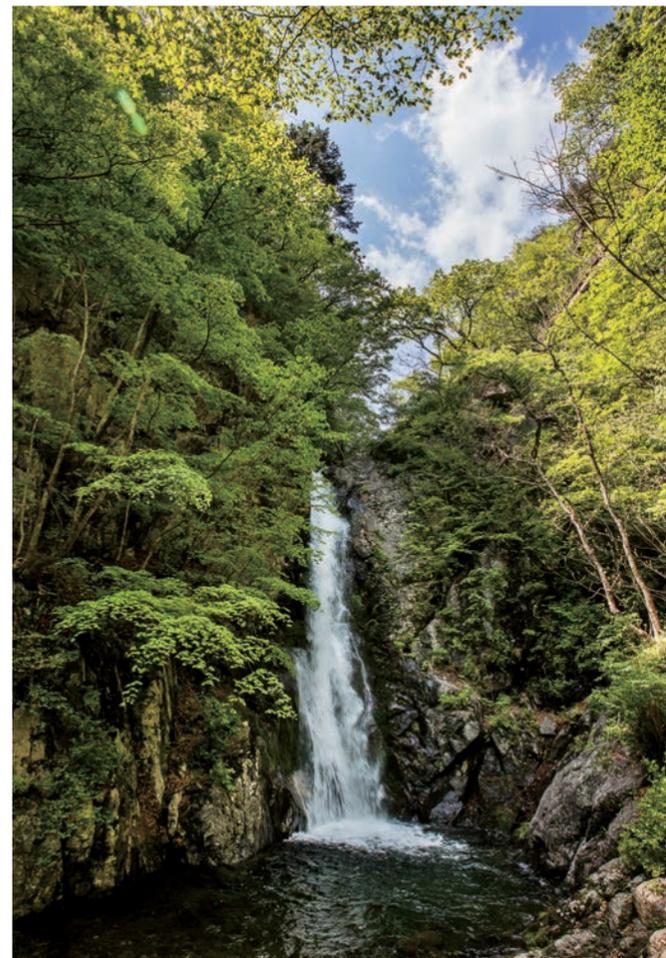
죽령로를 벗어나
산자락 깊숙이
들어서자 시원스러운
물소리와 가까워진다.
산길을 밟아 나가면
천둥처럼 쏟아져
내리는 거대한
물줄기 앞에 닿는다.
하늘이 내린,
꿈같은 풍경이다.



죽령옛길을 소백산 자락길 여행의 들머리로 삼은 건 산골 마을의 삶을 가까이서 들여다 보고 싶어서다. 역사 한편에 자리한 ‘무쇠달다방’의 주인이자 무쇠달협동조합을 이끄는 여광웅 대표는 마을 생태계를 보존하고자 온갖 수고로운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승객의 발길이 끊긴 역을 살뜰히 관리하는 것은 물론, 주말마다 수공예품과 먹거리를 파는 벼룩시장을 연다. 여 대표가 직접 마을의 역사와 문화와 풍속을 담아 제작한 출판물도 함께 놓았다. 조합에서 운영하던 무쇠달마을식당은 팬데믹 여파로 끝내 문을 닫아야 했지만, 그는 지금도 무쇠달다방에서 커피를 내리며 마을의 중흥을 기약한다. “저기 보이는 철길 끄트머리까지 걸으면 터널에 다다릅니다. 죽령터널과 이 철길은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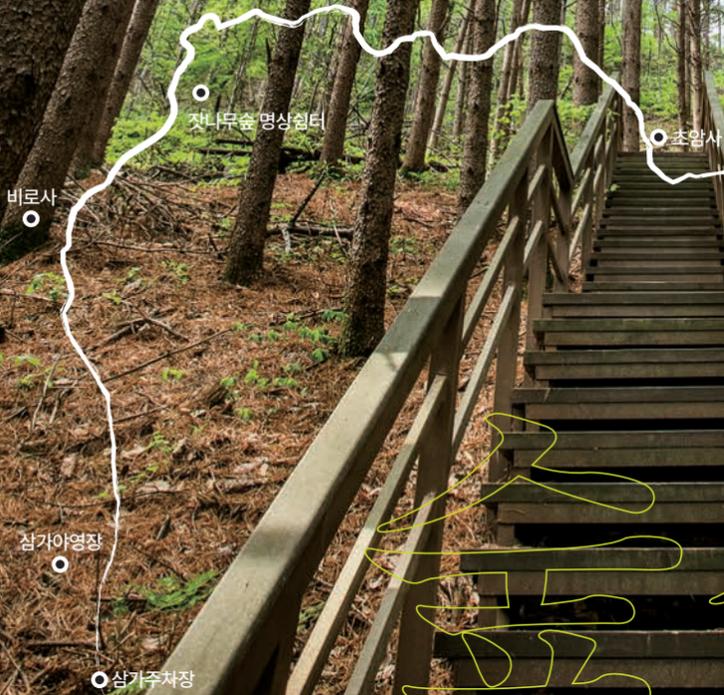
제가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건설한 거예요. 1923년에 계획을 세웠다고 하니 그로부터 꼭 100년이 됐네요. 더 많은 이가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도록 온전하게 보존했으면 합니다.” 그의 말이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그리하여 희방사역과 무쇠달마을을 지켜 내기를 온 마음으로 바랐다. 수철리를 떠나기 전 농쳐선 안 될 비경이 하나 있다. 희방폭포다. 죽령로를 벗어나 산자락 깊숙이 들어서자 시원스러운 물소리와 가까워진다. 조금 더 산길을 밟아 나가면 천둥처럼 쏟아져 내리는 28미터 높이의 거대한 물줄기 앞에 닿는다. 눈앞이 아득해진다. 조선의 문장가 서거정 선생은 이 폭포를 두고 ‘천혜몽유처(天惠夢遊處)’라 했다. 과연 하늘이 내린, 꿈같은 풍경이다.

해발 700미터 지점에 위치한 희방폭포는 소백산 연화봉에서 발원한다. 물줄기가 28미터 높이의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데, 낙차가 큰 만큼 우렁찬 물소리로 골짜기를 울린다. 예부터 영남 제일의 폭포로 이름 높다.





달밭길 중턱에
펼쳐진 잣나무숲
명상쉼터는 소백
자락이 숨겨 둔
황홀한 은신처다.
나무에서 비우고
덜어 내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02 달밭길, 비로봉 남쪽 기슭의 은신처

소백산 자락길이 품은 또 다른 마을로 간다. 이름은 달밭골. 비로봉 아래 달빛이 닿는 첫 번째 마을이란 뜻이다. 소백산 1자락길의 소자락길 중 하나인 달밭길은 이 촌락을 중심으로 삼가주차장과 초암사를 잇는 구간이다. 삼가주차장의 '삼가'는 풍기읍 삼가리에서 왔다. 소백산을 찾는 산꾼들에겐 비로봉에 이르는 비교적 수월한 등산로인 '삼가동 코스'로 익숙한 지명이다. 풍기역에서 비로봉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삼가로를 타야 하는데, 이 도로가 달밭길 구간과 일부 겹친다.

숲 그늘 아래 드러누워 삶을 살필 때

달밭길 중턱에 드넓게 펼쳐진 잣나무숲 명상쉼터는 소백자락이 숨겨 둔 황홀한 은신처다. 뻣뻣하게 자라난 잣나무 사이에 펼쳐진 선베드가 지친 몸을 누라고 손짓한다. 거스를 도리가 없는 유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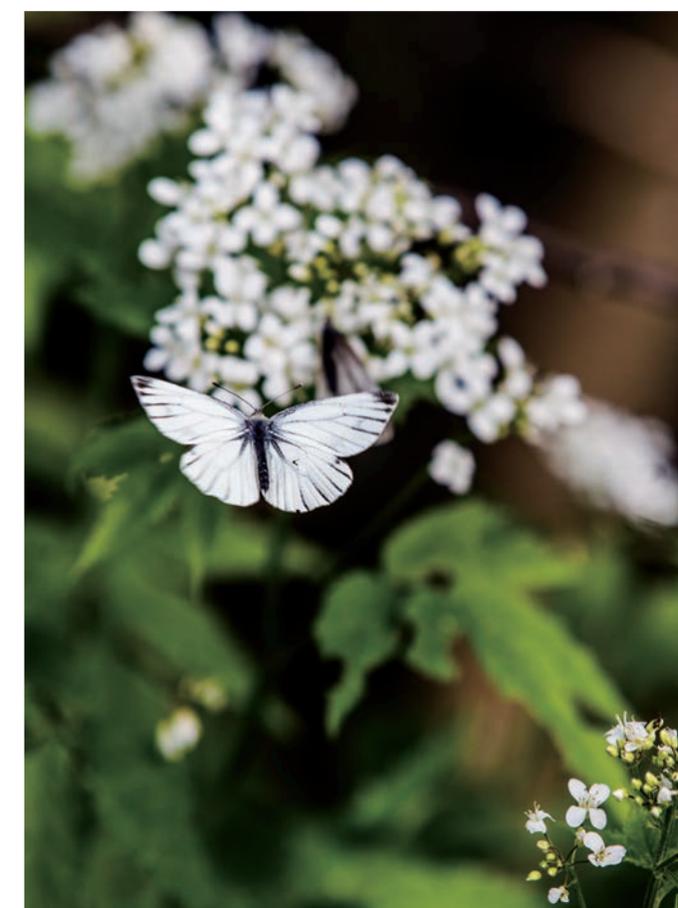
가만히 등을 대고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다. 다닥다닥 붙어선 나무이건만, 가지와 잎이 서로 엉기거나 붙지 아니하고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자라나 있다. 이 신비로운 현상을 '크라운 샤이니스'라고 한다. 덩굴 종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무가 마치 부끄러움을 타듯 적당한 여백을 유지한 채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경쟁과 질투와 혐오 속에서 갈팡질팡 흔들려 온 삶이 문득 덧없다. 잣나무에서 비우고 덜어 내는 법을 배우니, 명상의 힘이 이렇게나 대단하다. 나무 향내가 섞인 달콤한 공기를 멍치게까지 깊이 빨아들여 본다. 순식간에 온몸이 푸르러진다.

비로사는 이 길 위에 놓인 또 하나의 이정표다. 683년 의상대사가 창건하고 진공대사가 중창한 고찰로, 처음 지었을 당시에는 소백산사라는 이름이었으나 의상대사가 비로사로 바꿔 불렀다는 설도 전한다. 계단식 구조를 갖춘 산사의 전형이지만, 유구한 세월을 지나며 전각이 스러진 까닭에 적광전과 나한전, 삼성각과 망월당, 월명루와 범종각, 보연당과 염불당 등 1990년대 이후 새로 지은 10여 개 당우로 규모가 단출해졌다.

깊은 산기슭의 작은 절집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비로사의 내력을 알려 주는 진공대



소백산 자락길을 오래도록 누리려면 자락꾼 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 특히 자락길이 농장이나 과수원을 끼고 이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작물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문의 www.sanjarak.or.kr





달밭길은 비로봉 아래 첫 마을을 가로지르는 구간이다. 풍경이 근사하고 비로사와 초암사 등 볼거리가 많아 하루 묵어 가기에 그만이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운영하는 삼가야영장은 국립공원공단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 예약하면 편리하다. 문의 054-637-3794 reservation.knps.or.kr

사보법탐비도 그중 하나다. 고려 태조는 소백산에서 수도하던 승려에게 법문을 청하고 설법을 들곤 했는데, 그가 입적하자 진공대사라는 시호와 보법이라는 탐호를 내리고 탐비를 세웠다. 탐비는 비로사를 다시 지은 것이 진공대사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본전인 적광전에는 석조아미타여래좌상과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을 모셨다. 두 불상을 한데 봉안한 것이 이채로운 데다 통일신라 시대 석불이 간직한 단아함이 엿보여 시선을 떼기가 어렵다. 둥글고 온화한 얼굴에서 단단하고 넓은 어깨로 이어지는 곡선, 몸을 가볍게 감싼 듯한 옷의 주름, 섬세하면서도 안정적인 손 모양까지. 눈 닿는 곳마다 유려하지 않은 구석이 없으니, 절로 불심이 솟고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깊고 푸른 소백산의 밤, 삼가야영장

낮이 긴 여름이라 해도 소백산 골짜기엔 어둠이 금세 찾아든다. 여장을 풀고 편안히 쉴 곳을 물색하는 건기꾼에겐 삼가야영장만큼 적당한 숙소도 없다. 차갑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무수한 별을 헤아리는 캠프의 서정이 그곳에 있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정갈하게 관리한 하우스형 솔막 여섯 동과 텐트형 산막 스무 동, 자동차 야영장 열아홉 동 중 취향에 맞는 숙소를 골라 마음 편히 잠을 청해 본다. 달밭길 초입인 삼가주차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소백산 자락길 탐방 경유지로도 더할 나위 없는 베이스캠프다. 야영장의 밤, 하늘은 점차 깊어지고 여정은 무르익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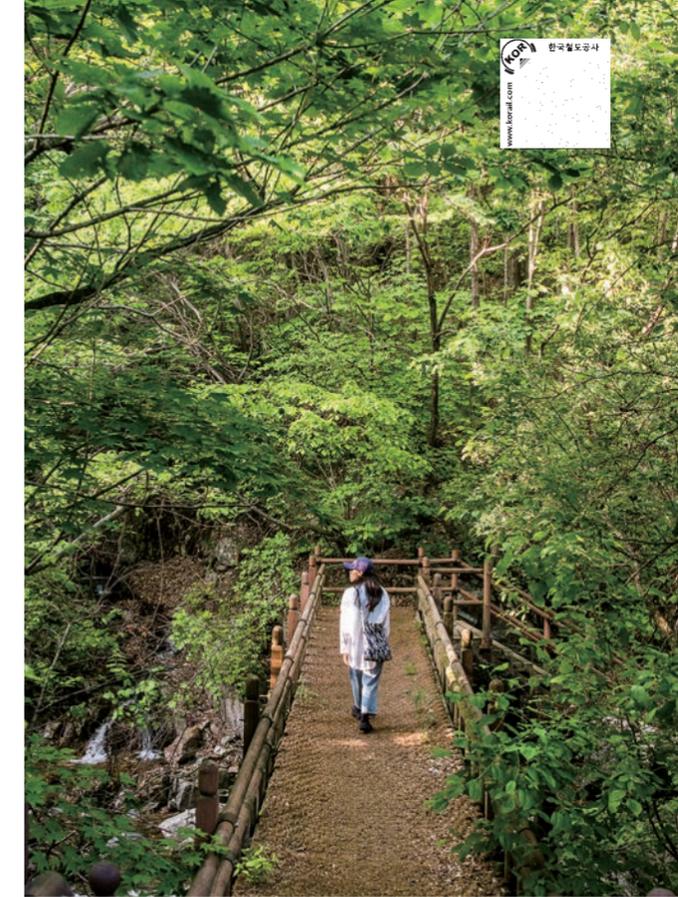


03 구곡길과 선비길, 맑은 물에 씻는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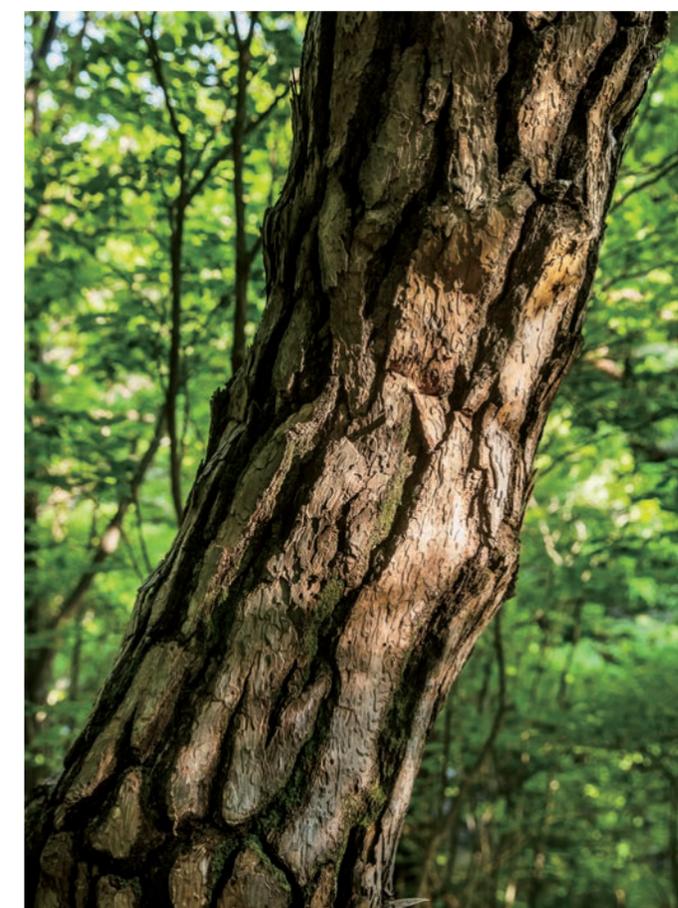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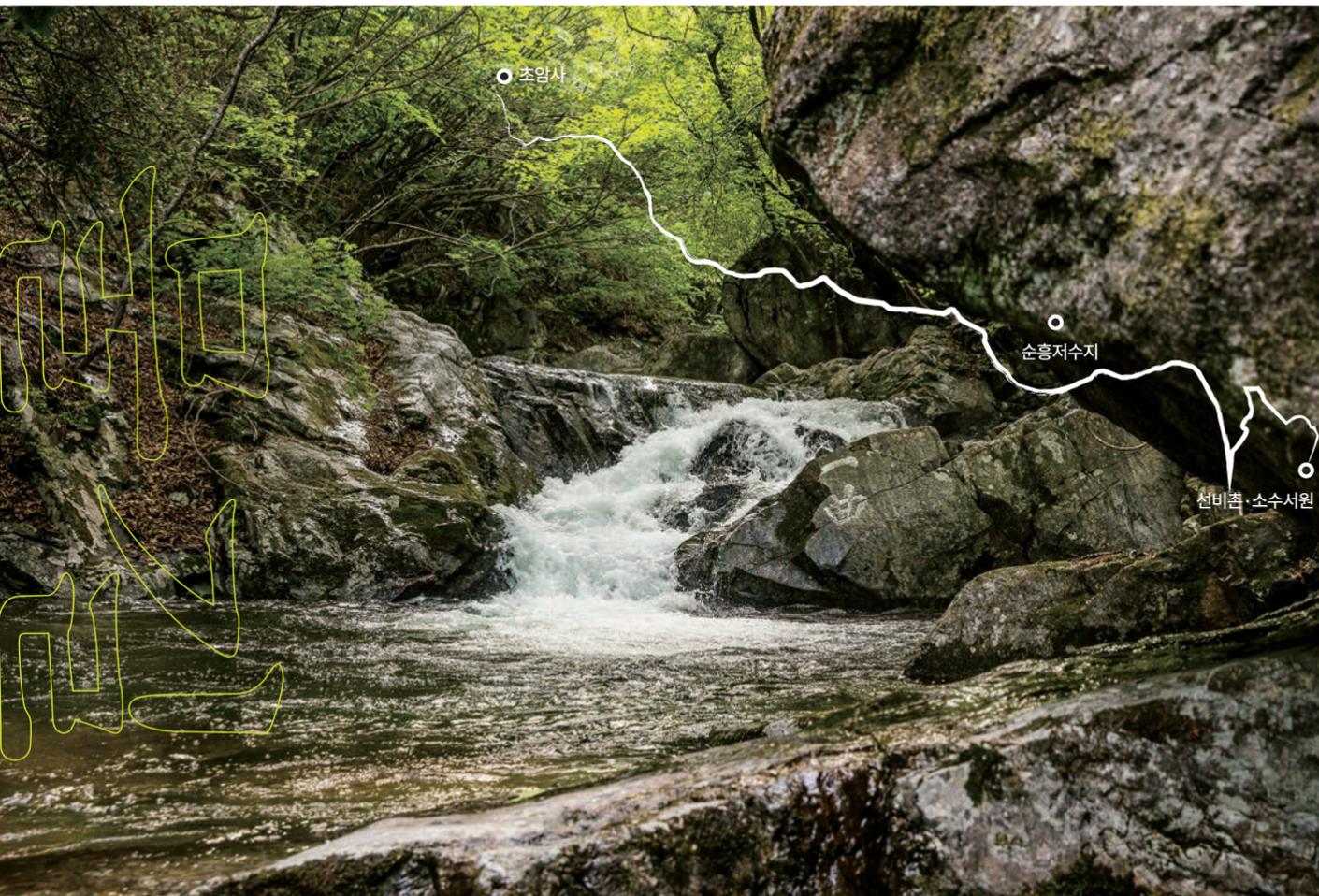
소백산 1자락길의 남은 두 구간을 걸을 차례다. 먼저 발길 이 닿은 곳은 구곡길로, 초암사와 삼괴정을 잇는 코스다. 하이라이트는 죽계구곡이다. 국망봉에서 산기슭을 따라 굽이 치는 약 2킬로미터 길이의 물길을 두고 문장가 안축은 ‘죽계별곡’을 지어 불렀으며, 퇴계 이황은 아홉 굽이를 손수 헤아려 별명을 붙이고 서각할 만큼 사랑해 마지않았다. 오늘날 구곡의 이름은 퇴계가 명명한 것을 그대로 따르지만, 굽이 하나하나에 부여한 숫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졌다는 설도 있다. 현재 아홉 굽이는 다음과 같다. 1곡 금당반석, 2곡 청운대, 3곡 척수대, 4곡 용추비폭, 5곡 청련동애, 6곡 목욕담, 7곡 탁영담, 8곡 관란대, 9곡 이화동. 헤아리는 것만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목덜미가 시원해지니 신선이든 선녀든 이무기든 누구든 흥청망청 노닐기엔 아까울 만큼 맑고 투명한 풍치다.

물소리에 발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의상대사가 부석사 창건을 구상할 때 잠시 기거하며 수도 하기 위해 만든 사찰이 바로 초암사다. 통일신라 말기에 지어 올린 3.5미터 높이의 삼층석탑을 감상했다면 숲길을 따라 조금 더 깊숙한 골짜기로 들어가 본다. 그곳에 1곡 금당반석이 있다. 팔팔 쏟아지는 외폭 한편에 조선 영조 때 순흥부사였던 신필하가 새겨 넣었다 전하는 글자 ‘一曲(일곡)’과 거대한 바위가 단숨에 눈을 사로잡는다. 1곡을 시작으로 9곡을 전부 둘러볼 때, 4곡부터 8곡까지 이어지는 세차고 활달한 물길 앞에서 걸음이 조금 더 느려 지곤 했다. 맑은 물에 갓끈을 씻고 발을 담갔을 선비들의 피서 풍경을 머릿속에 상상하거나, 묵은 시름을 애써 닦아 내느라 그랬을 것이다. 구곡길이 끝나는 곳에서 선비길이 뻗어 간다. 삼괴정에서 순흥저수지를 지나 선비촌에 다다르는 경로이자, 죽계천 물길을 따라 난 길이다. 소수서원 남쪽에 자리한 취한대는 오롯이 죽계천을 관망하려고 만든 공간이다. 사방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경자바위 주변에 흙과 돌을 도탑게 쌓아 올리고 주변을 소나무, 잣나무, 대나무로 가꿔 완벽한 구도의 살아 있는 산수화를 완성했다. 서원에서 글 읽



초암사 근처 1곡부터 삼괴정 부근 9곡에 이르는 유려한 물길을 일컬어 죽계 구곡이라 한다. 높이가 낮은 폭포인 외폭으로 이어져 굳건하고 호방한 기운이 느껴진다. 퇴계 이황이 모든 굽이에 이름을 붙였다.





마음을 씻어 내고
 싶은 날이면
 다시 이곳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어떤 날에도
 소백 자락은
 우리를 끌어안을
 것이다.



던 선비들은 지치면 취한대로 나와 시를 노래하며 풍류를 즐겼을 테다. 이런 정경을 옆에 끼고서 부와 명예에 집착하는 건 헛된 일 아닌가. 학문에만 마음을 쏟는 고매한 선비 정신이 비로소 이해되는 순간이다.

해가 주홍빛으로 저물어 가는 즈음 순흥저수지로 간다. 죽계천을 유입해 만든 이곳의 또 다른 이름은 송림호다. 1986년 3월 착공해 1996년 9월 완공했으니 축조하는 데 10년이 걸린 셈이다.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조성했다고는 하지만 저수지 둘레에 나무 덕을 놓아 산책하기에도 더없이 좋다. 일몰과 동시에 불 밝히는 경관 조명도 설치해 밤 산책의 즐거움을 더한다.

불그스름하던 하늘이 군청색으로 짙어지자 별안간 수심, 아니 수백 마리 개구리가 목 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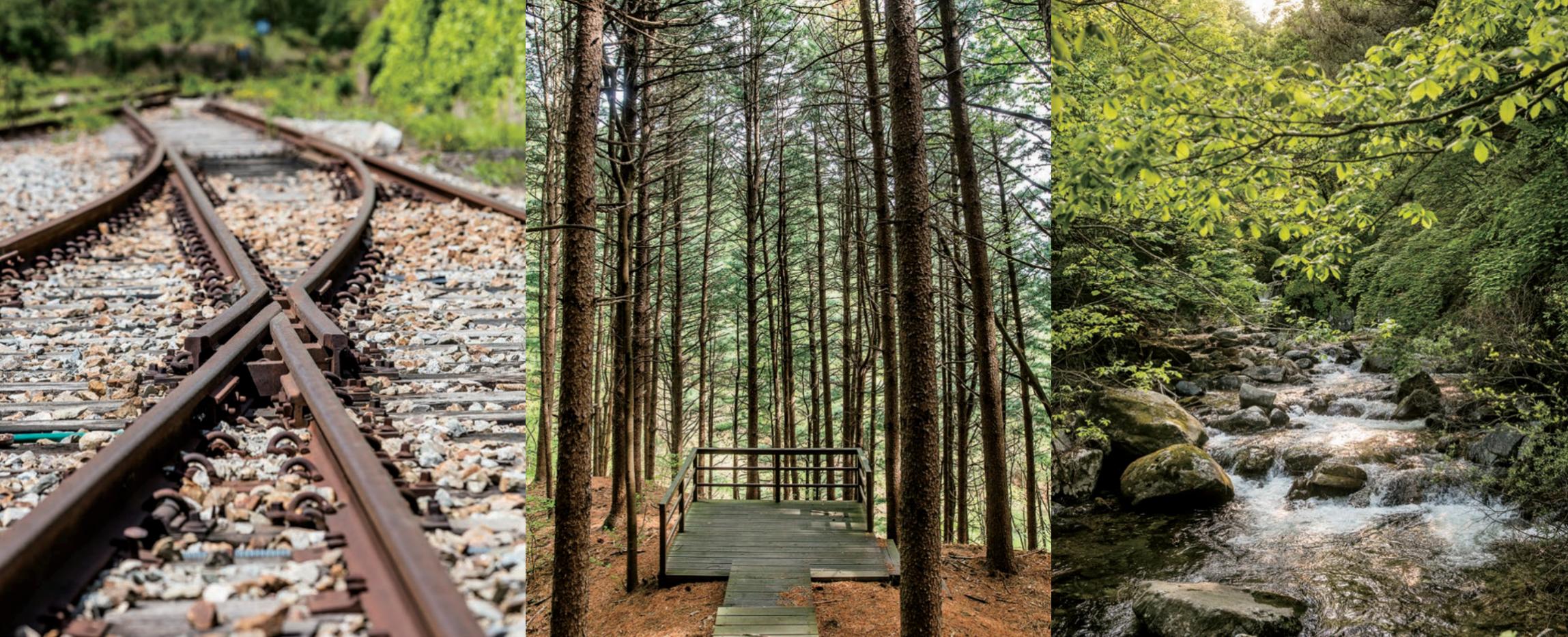
아 울기 시작한다. 여기 살아 있다고, 보란 듯 소리치는 울음이다. 잔잔하던 수면도 파르르 떨린다. 물 안에 가만히 잠긴 나무마저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것 같다.

그리고 보면 울음이야말로 마음을, 응어리와 슬픔을 씻어 내는 일일 터. 언젠가 울고 싶은 날이면 다시 이곳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한다. 물론 웃고 싶은 날에도, 누군가 그리운 날에도, 그 어떤 날에도 소백 자락은 우리를 기꺼이 끌어안을 것이다. **K**

소수서원 입구 쪽에 자리한 취한대는 죽계천 물길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장소다. 취한이란 단어는 '연화산의 푸른 기운과 죽계의 시원한 물빛에 취해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긴다'라는 뜻의 '송취한계'에서 따 왔다. 문의 054-639-5852

<KTX매거진> x MBC 라디오 <노중훈의 여행의 맛>
 경북 영주에 다녀온 <KTX매거진>이 MBC 표준FM <노중훈의 여행의 맛>을 통해 독자, 청취자 여러분과 만납니다. 기자의 생생한 목소리로 취재 뒷이야기, 지면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여행 정보를 함께 들려 드립니다.
 * 6월 3일 오전 6시 5분(수도권 95.9MHz)
 * QR코드를 스캔하면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Deep In the Valley of Sobaeksan Mountain

I set off to Yeongju in Gyeongsangbuk-do Province, nestled in Sobaeksan Mountain. I walked along the railway, forest trails and streams while humming to myself.

Sobaek. It's a name that comes to mind when the green of nature thickens. This pleasant season, with cool breezes in the morning and evening, seemed like the best time to take on the 143-kilometer Sobaeksan Mountain Jarak-gil Trail. The starting point of this journey is the Old Path of Jungnyeong Pass. The 2.8-kilometer starts from the abandoned Huibangsa Station, passes Neutijaengi Tavern, and reaches Jungnyeong Maru. Jungnyeong is a mountain pass that connects Yeongju in Gyeongsangbuk-do Province to Danyang in Chungcheongbuk-do Province.

Setting Foot on the Mountain Trail

I chose the Old Path of Jungnyeong Pass as the starting point because I wanted to get a close look at life in the rural village. Yeo Gwang-ung, the owner of Moosodal Café, located in Huibangsa Station, and the head of Moosodal Cooperative, works tirelessly to preserve the village ecosystem. He not only watches over the abandoned station, but also organizes a flea market every weekend, selling various handicrafts and food. On one side, there is a book written by Yeo himself on the village's history, culture and customs. While Moosodal

Restaurant, which was run by the Cooperative, had to close its doors due to the pandemic, Moosodal Café is still open, and visitors will find Yeo brewing coffee and making beverages.

A Time to Ponder Over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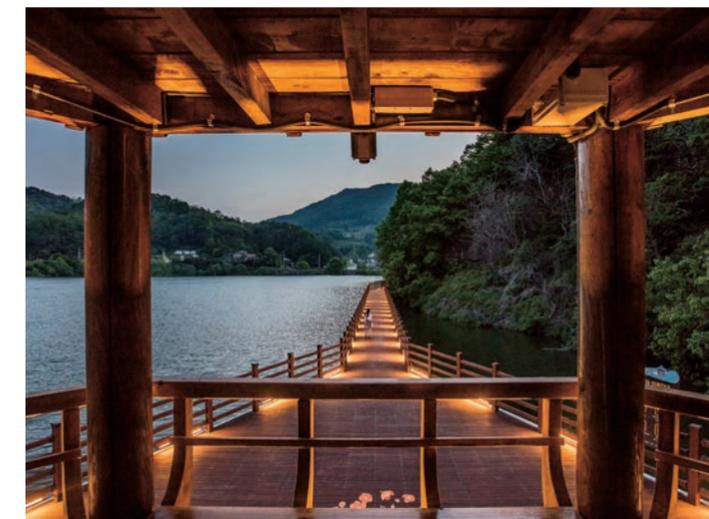
I head to another village near the Sobaeksan Mountain Jarak-gil Trail. Its name is Dalbatgol, which means the first village where moonlight touches under Birobong Peak. Dalbatgil is a section of the trail that connects Samga Parking Lot and Choamsa Temple. The pine forest meditation area, spread out in the middle of Dalbatgil, is an enchanting hideaway on Sobaeksan Mountain. The sunbeds among the dense pine trees beckon to your weary body. It is simply irresistible. I am impressed by the power of meditation as I learn how to clear up my mind. I inhale the sweet air infused with the scent of pine, and my whole body becomes refreshed.

Walking to the Rhythm of Water

Choamsa Temple was built by Great Monk Uisang when he needed a place to stay temporarily while developing his idea for the establishment of Buseoksa Temple. After admiring the 3.5-meter-high stone pagoda built during the late Unified Silla period, take a walk along the forest trail and venture deeper into the valley. There, you will find a magnificent view of Jukgyegugok Valley. Next to the roaring waterfall is a large rock with the characters "first valley" carved by Shin Pil-ha, who was a deputy prefect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Gugok-gil leads to Seonbi-gil, a path that passes through Sunheung Reservoir and reaches Seonbichon Village, all the while following the Jukgyecheon Stream. Chwihandae Pavilion, located south of Sosuseowon Confucian Academy, was created solely for the purpose of admiring the stream. Soil and stones were piled up around Gyeongjabawi Rock, and the surrounding area was adorned with pine trees, white pine trees, and bamboo trees, completing a living landscape painting.

As the sun sets with a crimson glow, I head to Sunheung Reservoir. Another name for this place, where Jukgyecheon Stream is dammed, is Songnimho. It is also perfect for a stroll, with wooden decks placed around its perimeter. The installation of landscape lighting that illuminates the scenery at night adds to the pleasure of walking. Whenever I want to cleanse my mind, I will come back to this place. Of course, Sobaeksan Mountain will warmly embrace its visitors on any given day. 📍





영주에서 여기도 가 보세요



즐길 거리



비로 오토 캠핑 & 펜션 소백산국립공원 중턱에 자리한 캠핑장이자 펜션이다. 팔팔 쏟아지는 맑은 계곡이 바로 옆에 흐르니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여행자가 뛰놀며 쉬기 좋다. 드넓은 사이트는 A구역부터 E구역까지 다섯으로 구분한다. 쾌적하게 관리한 샤워장과 음수대, 취사장과 화장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펜션 객실 일곱 개와 단체 숙박객을 위한 복층형 객실, 별관 등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했다. 비로사는 물론이고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촌과도 멀지 않아 영주의 주요 여행지를 두루 둘러보는 데 편리하다.

문의 010-4804-0000



영주호 오토캠핑장 영주댐을 짓고 담수 후에도 여전히 잠기지 않아 지붕처럼 솟아오른 지역을 생태 공원으로 탈바꿈시킨 곳이 바로 영주호 용마루공원이다. 영주댐 일주도로와 자전거도로가 이곳을 휘돌아 흐르니, 자전거 라이더나 들살이를 즐기는 캠퍼라면 여기서 가까운 영주호 오토캠핑장에 여장을 풀어 본다. 특별한 장비 없이 머물 수 있는 캐러밴형 숙소와 캐빈하우스, 가족 단위 숙박객을 위한 택 사이트, 숲속에 위치한 오토 사이트 등이 펼쳐져 있다. 놀이터와 농구장, 족구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을 마련해 지루할 틈이 없다.

문의 054-632-7400

먹거리



구구리책다방 이름도 사랑스러운 단산면 구구리. 그곳에 자리한 옛 구구리초등학교 건물이 북 카페로 변모했다. 사회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지구본과 과학 수업에 사용했을 법한 교구, 음악 수업을 떠들썩하게 했을 탬버린 등 학창 시절을 추억하게 만드는 물건이 향수를 자극한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저 좋은 재료를 사용할 뿐이라고 겸손을 내비치는 주인장은 구구리에서 수확한 딸기로 라테를 만든다. 당도 높기로 유명한 단산면 포도로 담근 잼을 바른 토스트도 맛갈스럽다. 여름엔 복숭아와 자두, 가을엔 사과로도 잼을 담근다.

문의 054-633-9925



카페 담원 8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문수양조장 건물이 돈가스와 차를 파는 카페테리아로 거듭나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됐다. 한옥 골조를 살린 인테리어가 정겨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식사 메뉴는 단 하나, 담원 수제 돈가스다. 국내산 돼지고기를 얇게 저며 튀긴 까담에 바삭바삭한 식감이 살아 있다. 참깨 소스 샐러드와 노란색 강황밥, 낙지젓이 풍미를 돋운다. 구기자, 생강, 우엉, 도라지, 국화 등 다섯 가지 재료를 넣고 우린 차를 함께 내놓는데, 소화를 돕는 것은 물론 돈가스의 묵직한 뒷맛도 깔끔하게 잡아 준다.

문의 054-634-2736

프로모션

강한 체력이 필요한 여름, 보양식 대신 프리주비네이션

불볕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여름 나기를 준비할 때다. 울여름, 뜨거운 보양식 대신 산뜻한 노화 예방 주사 프리주비네이션에 도전해 본다.

한낮 기온 30도. 때 이른 더위가 나날이 이어진다. 여름철에 유독 보양식이 생각나는 건 더위에 맞서느라 기력을 당겨쓰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기운이 없고 온몸이 물에 빠진 듯 무겁게 느껴진다면, 날씨 탓만 하기보다는 체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게 조찬호 청담셀의원 대표원장의 조언이다. 조 원장은 건강한 체력을 오래 유지하도록 돕는 프리주비네이션이 근본적인 노화 예방에도 주효하다고 설명한다. 이어 “최근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안티에이징 개념을 넘어 노화를 예방하는 프리주비네이션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부연한다. 프리주비네이션이란 일종의 ‘노화 예방 주사’다.

만성질환과 통증, 미리미리 관리하는 프리주비네이션

누구나 태어난 순간부터 성장하고, 일정 시기에 접어들면 노화가 진행된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더위가 아닌 세포 손상, 혈액순환 저하, 단백질 합성 저하로 인한 근육 감소 등 노화 현상과 연관이 깊다. 이런 증상은 당연히 해가 갈수록 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다. 간헐적으로 섭취하는 보양식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평상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식단과 근육량을 유지하는 꾸준한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 노화 부스터인 만성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활동을 힘들게 만드는 통증은 초기에 잡아야 하는 것이다. 프리주비네이션이 건강관리의 열쇠인 이유다. 대표적인 프리주비네이션 시술은 줄기세포 정맥주사다. 줄기세포는 자가 재생 능력과 분화 능력을 가진 원시세포다.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혈관을 형성해 혈액순환을 도우며, 단백질 합성 효과를 높여 기초 체력을 끌어올린다. 여기서 나아가 난치병 치료, 치매 예방 등의



효과로 의료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 원장은 “프리주비네이션 시술은 줄기세포를 충전함으로써 몸을 젊게 깨우는 것”이라며, 건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수록 노화가 가속화되는 시점도 더 늦춰진다고 분석한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줄기세포 효과

줄기세포를 정맥에 주사하면 체력 증진 효과를 볼 수 있다. 청담셀의원은 이 같은 줄기세포 효과에 주목, 체력 저하와 노화된 몸을 개선하기 위한 줄기세포 정맥주사 ‘청셀(淸Cell)’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체 줄기세포를 채취해 링거로 주입, 전신 재생 작용을 촉진하는 시술이다. 이 밖에 줄기세포를 타깃 부위에 집중 투여해 젊음을 잃어 가는 국소 부위 회복도 기대해 볼 만하다. 성 기능을 증진하는 ‘성셀(性Cell)’, 피부 탄력을 높이고 주름을 개선하는 ‘미셀(美Cell)’, 두피에 주사해 탈모를 치료하는 ‘모셀(毛Cell)’, 약해지기 쉬운 인대를 더 탄탄하게 해 주는 ‘활셀(活Cell)’ 등이 여기 속한다. 조 원장은 이와 함께 건강을 과신하지 말고, 1년

에 두세 번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건강 상태를 체크하라고 조언한다. 유전자 검사로 취약점을 미리 인지하고, 바이오마커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파악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내 몸을 잘 아는 ‘단골 의사’를 만드는 것도 현명한 건강관리 비결이다. “미래 의학은 발병하고 난 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선제적 안티에이징에 집중하고 있다. 건강한 몸과 외모를 오래 유지함으로써 활기찬 인생을 설계하는 게 건강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유리할 것”이라고 조 원장은 말한다. 청담셀의원은 ‘헬스케어 디자인’을 지향하는 의료 기관으로 줄기세포를 활용한 전신 항노화 치료에 특화됐다. 특히 한국에서 골수·지방 줄기세포를 모두 활용하는 극소수 의료 기관 중 하나다.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항노화줄기세포치료 부문에서 5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병원을 이끄는 조찬호 원장은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항노화 의학 전문가다.



충만한 하루, 충분한 하루

30년 동안 인간이 자연에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
기적이 일어난다. 전북 고창에서 압도하는 자연을 만났다.

고창 여행

저 위에 떠 있어 사람은 밑바닥만 보는 것, 비행기 같은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는 그저 아래에서 고개 들고 모양만 가늠하는 것. 구름은 손에 쥘 이가 없으며 아득하고 신비로워, 사람은 땅에서 그만큼 좋은 곳에 구름이란 글자를 넣곤 했다. 고창 아산면 운곡리 이름도 구름에서 따 왔다. 다섯 개 봉우리가 품어 안은 땅에 구름이 내려앉은 듯 안개가 짙었다 했다. 하늘에 뜬 구름은 구름이고, 사람은 입에 무언가를 넣어야 사니 오래전부터 주민은 거기서 농사를 지었고 어느 날 세상 사정에 따라 터전을 비워 달라 했을 때 떠났다. 이후 약 30년. 잊힌 땅이, 바랜 지명이 다시 돌아왔다. 구름처럼 신비로운 풍경을 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람사르습지를 함께

1981년 전남 영광에 원자력발전소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해 고창에 운곡저수지를 조성한다. 산자락을 층층이 다져 다랑논을 일구어 살아가던 운곡리와 용계리의 9개 마을 150여 가구가 정든 땅을 등졌다. 발전소까지 거리, 이주 가구 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결정이었겠지만 누군가에겐 서러웠을 일이다. 원자력발전소가 뉴스에 종종 나오고, 이주민은 새로운 터에 적응하느라 종종거리는 동안 저수지 이름으로만 남은 운곡은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렇게 약 30년이 흘러 2009년 운곡이라는 지명이 다시 등장한다. 사람 손을 타지 않은 땅은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가 있었다. 환경 전문 공무원 출신인 당시 부군수가 고창 구석구석을 둘러보다 우연히 습지를 발견한다. 수개월 조사를 거쳐 2011년 3월 습지보호지역에 지정되고, 4월 람사르습지로 등록된다. 숨 가쁜 움직임이 운곡습지의 엄청난 가치를 증명한다. 고창의 보물이자 지구의 자산인 습지를 지키려는 군과 주민의 노력도 이어져, 약 182만 제곱미터(55만 평) 땅에 무려 860여 종의 생물종이 살게 되었다. 눈발 시절엔 상상도 못 할 수치다. 자연을 자연답게 두었을 때 자연의 생명력은 이토록 왕성하게 피어났다. 드넓은 습지를 탐방하는 코스는 총 4개다. 1코스 출발점인 탐방안내소에서 여정을 시작한다. 뜻밖에 눈에 들어오는 건 야트막한 산자락에 점점이 놓인 고인돌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바로 그 고인돌 447기 가운



고창과 가까운 역은 정읍역이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정읍역까지 1시간 40분 정도 걸린다.

고창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고인돌과 갯벌, 무형유산인 농악과 판소리를 보유한 고창이다. 람사르습지인 운곡습지를 탐방하는 1코스 출발점에 고인돌유적지가 있다.
문의 063-564-7076(운곡습지)
063-560-8666(고창고인돌박물관)



데 상당수가 이곳에 있다. 무심한 눈으로는 그냥 돌이지만, 고인돌은 청동기시대에 여기 살던 이들의 흔적이다. 문자가 없어 그들의 존재를 기록하진 못했으나 이로써 확실한 자취를 남겼다. 탁자식, 바둑판식 등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이 혼재해 역사적으로 더욱 의미가 큰데, 이는 그만큼 오랜 세월, 여러 부족이 거쳐 갔음을 보여 준다. 20여 년 전만 해도 주민이 이 돌 사이사이로 집 짓고 농사했을 생각을 하니, 한편으론 애뜻하고 한편으론 신기하다. 누군가는 돌이 너무 많다고 꾸밈했을 테고, 아이들에게 놀이터였을 것이다. 지금은 세계유산으로 세계가 보호하는 고인돌. 양지바른 언덕에 햇볕 받고 누운 옛 무덤이 풀과 나무, 들꽃과 그림처럼 어우러진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풍경이 이토록 아름답다.

그들의 낙원, 운곡습지

드디어 습지에 발을 들인다. 초입은 과거 주민이 이용한 산길이다가 이내 폭 80센티미터 좁은 나무 데크 등장한다. 습지 훼손을 막으려 너비를 줄이고, 바닥에서 충분한 공간을 띄워 설치했다. 이 외에 인공물은 전혀 없다. 온통



1980년대 초 저수지를 조성하면서 주민이 이주한 뒤 논밭이 방치되자 약 30년간 자연이 스스로 복원해 습지를 형성했다. 동식물 860여 종이 살아가는 운곡습지는 자연의 왕성한 생명력을 만끽할 수 있는 현장이다.



자연, 자연, 자연뿐. 연두에서 초록으로 변해 가는 잎사귀가 세상 무엇보다 어여쁘다. 내가 뿌리박을 몇 뼘 땅이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며 제 삶을 꾸려 나가는 나무와 풀이 당당하다. 담쟁이는 이웃 잎이 별을 공평하게 받도록 나란히 자란다. 온갖 새가 노래하건만 ‘까막귀’라 구분을 못해 아쉽다. 바닥에 찰랑찰랑 고인 물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는지, 지금 함께 있으면서 결국 모르고 지나간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다. 다만 바깥 세계에서 온 무지한 여행자가 860여 종 어느 동식물에도 상처를 입히지 않기만 바라며 조심하느니라.

계절이 여름을 향하는 지금 습지는 생명력이 팽팽히 부풀어 올라 있다. 나무가 숨 쉬는 소리를 들었다고, 착각 아니라고 누구든 붙잡고 말하고 싶었다. 태풍 같은 요인으로 쓰러진 나무도 군데군데 보인다. 물을 좋아하는 나무는 대부분 뿌리가 깊지 않아 바람에 잘 넘어진다 한다. 이 또한 자연의 이치라 생을 다한 나무는 거름이 되고 다른 동식물의 터전이 된다. 인공 소음과 조명 없는 ‘그들만의 낙원’에서 살다 갔으니 괜찮은 생이었다 하려나. 마을이 고

논밭이던 곳을 30년 가까이 스스로 복원한 자연은 압도적이다. 사람이 보기 좋게 계획하고 가꾼 공원과 다른 차원이 다른 풍경 앞에서 태고의 신비라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 사람은 생각의 중심에 버릇처럼 사람을 놓지만, 지구에 사람이 존재한 시간보다 존재하지 않은 시간이 훨씬 길다. 겨우 30년만 주어져도 자연의 회복력은 거대하다. 눈으로 코로 밀어닥치는 풍경과 향기의 감동이 벅차서 걸음을 자꾸 멈추어야 했다.

싱그러운 생명의 합창을 들으며

운곡저수지를 따라 산책하다 조류관찰대에서 새를 관찰하고 발길을 돌렸다. 물속에 사는 침수식물, 물 위에 떠서 사는 부엽식물, 뿌리는 물밑 흙에 두고 잎은 물 위에 뜬 채 사는 부엽식물이 공존하는 생태연못을 지났다. ‘생물 다양성’의 교과서와 같다는 설명이 아니라면 이 자그마한 연못이 얼마나 건강하고 소중한지 모른 채 그저 예쁘다고 사진이나 찍고 갔을 텐데, 습지를 안내받고 나니 물 한 방



자연이 안아 준, 자연과 대화한 시간

세계유산과 하루를 보냈다. 자연에 폭 파묻힌 하루였다. 눈앞의 풍경에 감탄하고, 뒤에 두고 온 풍경이 아쉬워 계속 돌아보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작은 존재인 사람을 거대한 자연의 기운이 감싸고 안아 주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했다. 멸종 위기종인 진노랑상사화 한 송이를, 물기 머금고 잔뜩 싱그러운 버드나무 한 그루를 키우려면? 온 지구가 필요하다. 그들이 사는 지구가 지구다. 갯벌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하다. 지구는 흙과 나무와 물이고, 오늘 여행은 지구와 나눈 대화였다. 지구를 좀 더 알 것 같다. 충만한 하루가 저문다. ❶

울이 달리 다가온다. 붉은배새매, 담비, 산제비나비, 수달, 진노랑상사화... 이곳의 주인이고 주인인 이들의 이름을 속으로 불러 본다. 여름엔 노랑어리연꽃이 만발하고, 애반딧불이가 6월 밤을 수놓는다. 이 습지는 자연이 인간의 손길에서 벗어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펼치는 축제장이다. 축제에 잠시나마 초대받아 함께 생명력을 누리는 시간이 황송했다. 구름 속, 꿈결 속을 다녀온 기분이다.

특별하고 신비로운 갯벌에 해수욕장까지

고창은 대한민국의 군 가운데 하나지만 세계가 관심 기울이는 고창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세계자연유산인 갯벌, 인류무형유산인 농악과 판소리를 보유했으며 유네스코가 군 전체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번엔 고창의 또 다른 세계유산이자 지난 5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지정된 갯벌로 간다.

광활한 갯벌은 습지만큼이나 왕성한 생명력이 피어나는 현장이다. 작은 존재들이 손톱만 한 구멍을 드러내면서 최선을 다해 생을 살아간다. 멀리서는 커다란 타원을 그리며

새 떼가 날았다 몸을 낮췄다 한다. 바닷바람에 떠밀린 나무들은 몸을 뒤로 물린 채 뿌리로 버티고 섰다. 저만치 바다와 갯벌 사이에 이곳의 자랑이라는 세니에가 눈에 들어온다. 총길이 1.3킬로미터, 폭 40~200미터에 이르는 세니에는 무려 1800년 전부터 모래나 조개 등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움직이는 섬'으로, 세계에서 희귀한 지형이다. 물과 달과 시간의 합작품. 새가 거기 앉는 모습이 익숙한 것이 세니에가 오랫동안 쉼터 역할을 했나 보다. 역시 자연은 누구에게나 휴식을 선사한다. 갯벌 근처에 동호해수욕장이 있다. 일자로 쭉 뻗은 모래사장을 따라 소나무가 나란히 자라 별을 피하기 좋다. '차박'을 즐기는 이도 종종 보인다. 서해라 해 질 무렵 풍경은 더 말할 나위 없겠다.

고창갯벌은 세니에는 독특한 지형으로도 유명한데, 이는 긴 세월 모래나 조개 등이 퇴적해 만들어진 '움직이는 섬'이다. 갯벌 근처에 동호해수욕장이 있다. 수심이 얕고 해변엔 소나무가 그늘을 드리워 바다를 즐기기에 좋다.





PEACE

평화를 새기다

군사시설에서 문화 예술 공간으로 거듭난 서울 평화문화진지를 찾았다. 6월, 잊어서는 안 될 흔적이 그곳에 있었다.



노력하지 않아도 각인되는 순간이 있다. 처음으로 혼자 기차를 탈 때 느낀 두근거림, 무언가를 이뤄 낸 후 밀려오는 성취감, 그리고 사랑하는 이가 곁을 떠난 슬픔. 사람이 하는 일 중 가장 끔찍한 것은 전쟁이다. 사랑하는 이뿐 아니라 동료, 이웃, 길에서 어쩌다 마주쳤던 이들이 원래 없던 존재인 양 사라진다. 숨 쉬는 동안 행복하기도 바쁘는데 지구 저편에서는 아직도 누군가의 생명을 앗기 위해 총을 겨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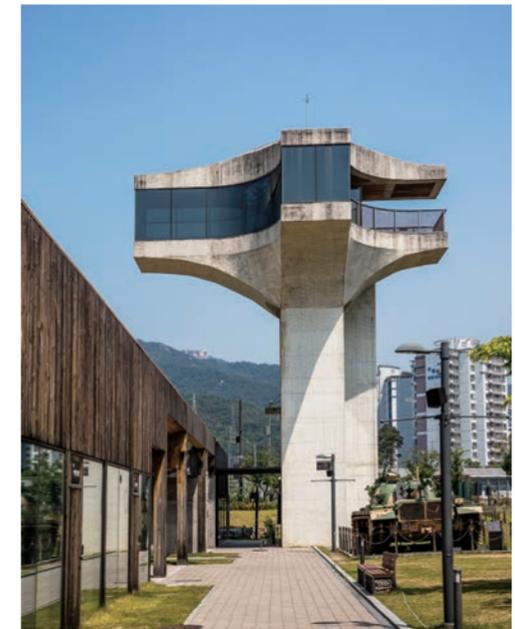
1950년, 한국도 같은 비극을 겪었다. 포탄 터지는 소리와 총성, 비명이 이 땅을 울렸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종전이 아닌 휴전 중이란 사실을 떠올리며 사는 이는 많지 않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풍경이 평온하기 때문일까. 어쩌면 너무 쓰러져서 외면해 버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여전히 과거의 상흔을 품은 공간은 존재한다.

전쟁이 남긴 흔적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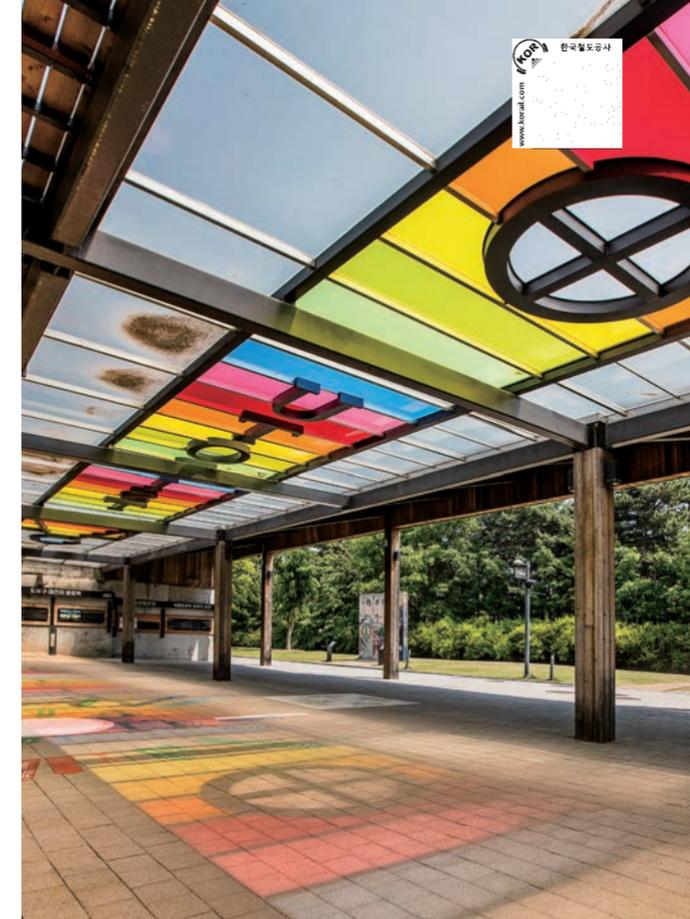
수도권 전철 1호선 도봉산역 1-1번 출구로 나오자마자 네모난 건물이 보인다. 입구를 찾으려 건물을 살피는데, 드문드문 콘크리트 벽이 그대로 드러난 채다. 공사가 덜 끝난 것인지 궁금하던 찰나 ‘평화문화진지’라는 간판을 마주한다. 이 공간은 ‘시민’ ‘창작’ ‘문화’ ‘예술’ ‘평화’까지 총 다섯 개 동과 평화광장으로 이루어진다. 길을 나무로 꾸며서 ‘진지’라는 이름과 다르게 아늑한 분위기다. 발걸음은 ‘상설 전시관’ 팻말이 붙은 예술동으로 향한다. 공간에 들어서자 전시장 대신 작은 도서관이 나타난다. 도서관 이름은 평화문화진지에서 이름을 딴 ‘진지한 책방’. 그림책, 소설책 등이 꽂힌 책장을 둘러보다 벽 한 귀퉁이에 난 통로를 발견한다. 이곳이 전시장 입구다. 동과 동 사이를 잇는 통로를 전시관으로 만든 것이다. 전시 시작점에 서자 긴장감이 느껴진다. 따뜻한 느낌이 드는 도서관과 다르게 전시관은 회색 콘크리트로 가득하다. 한

발씩 디딜 때마다 소리가 쿵 하고 울리는 통로를 천천히 걷는다.

평화문화진지의 정체는 대전차 방호시설로, 전차가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방공 구조물이다. 방공 구조물이 왜 이곳에 있는지 알려면 조선 시대부터 차근차근 살펴야 한다. 이 장소는 예부터 수도와 북쪽을 잇는 주요한 길목이었다. 조선 시대에는 관리나 행인에게 숙박을 제공하던 누원도 있었다. 현재도 의정부와 서울을 잇는 3번 국도가 근처를 지난다. 6·25전쟁 당시 적이 3번 국도를 따라 서울로 내려올 정도였으니, 가장 효율적인 길임이 증명된 셈이다. 1953년 휴전협정이 이뤄졌지만 전쟁의 기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1968년, 무장간첩이 서울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한 이른바 ‘김신조 사건’이 발발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서울의 보안과 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그 여파로 1970년 도봉구에 대전차 방호



서울 평화문화진지는 민간단체, 정부가 힘을 합쳐 조성한 문화 예술 공간이다. 독일 베를린 장벽, 상설 전시 등이 평화를 되새기게 한다. 단체 관람객을 위한 해설 투어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문의 02-3494-1970





평화문화진지 예술동 '진지한 책방'의 책은 모두 시민이 기증한 것이다. 도서관 안쪽으로 들어가면 평화문화진지의 역사를 담은 전시장이 나온다.

+ 평화문화진지에서 체험해 보세요

평화문화진지는 교육,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방문객을 기다린다. 매주 일요일 평화문화진지 일대에서 6월 4일까지 2023 평화 버스킹을 연다. 4동 예술동에서는 체험 프로그램 '나의 나무 깎기'를 12월까지 진행한다. 목공 기계와 도구로 나무를 조각해 나만의 작품을 만든다. 체험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문의 culturebunker.or.kr

시설을 짓는다. 적이 침입했을 때 건물 자체를 폭파해 잔해로 길을 막을 목적이었다. 특이한 점은 군사시설 위에 시에서 지은 시민 아파트가 들어섰다는 것이다. 1층은 군사시설, 2층부터 4층까지는 실제로 18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였다. 다행히 방호시설이 제 역할을 할 일은 없었다. 시민 아파트 건립 20년이 되던 1997년, 아파트는 건물안전진단 위험 수준인 E등급을 받고 2004년 철거된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방법

1층의 대전차 방호시설은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철거는 면했으나, 이후 10년 동안 방치된다. 폐허처럼 변한 장소는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7년 문화 예술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예술가에게 작업실을 대여하거나 전시를 열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버스킹 공연을 펼친다. 건물 분위기는 따뜻하고 활기차게 바뀌되, 구조와 대전차 방호시설 흔적 등을 최대한 보존했다. 그 덕분에 전쟁을 모르는 세대도 옛 시간을 잠시나마 짐작한다. 차가운 벽면을 살며시 손으로 쓸자 시멘트 가루가 묻

어난다. 벽에는 못과 철근이 박혔던 흔적이 선연하다. 누군가는 잊었는지 몰라도 상처는 아직 그대로다. 손끝에 남은 서늘함이 가슴까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다. 전시관을 나와 전차 모형 뒤 우뚝 선 전망대에 오른다. 여기저기 부서진 방호시설을 20미터 위에서 내려다보다가 도봉산, 중랑천과도 눈을 맞춘다. 안전한 환경에서 평온하게 경치를 감상하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스레 감사한 마음이 든다. 이번에는 평화문화진지 2층의 옥상 휴게 공간으로 간다. 다섯 개 동을 잇는 공중 통로에서 특이한 표지판을 발견한다. 발 딛고 선 장소를 기준으로 독일 베를린, 독도 등까지의 거리를 적어 놓은 것이다. 눈에 가장 먼저 띄는 표지판은 '평양 186km'. 서울과 부산 사이보다 훨씬 짧은 거리이나 까마득하게 느껴진다. 전쟁이 없는 세상으로 갈 길은 멀었지만, 과거를 기억한다면 어려운 일은 아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새겨야 한다.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임을. ㉔



맑은 바람 맞으며 제천 유람

바람은 시원하고 햇살은 따사로운 초여름, 보기 좋게 영근 충북 제천으로 떠났다.

만물이 계절을 탄다. 철 따라 태양의 열기, 바람의 결이 달라 지듯이 나무에 달린 잎사귀 한 장도 색을 달리한다. 봄 가장 자리에 여름이 맞닿은 이맘때의 빛깔은 어떨까? 이 계절의 정수를 느끼기 위해 충북 제천 옥순봉을 찾았다. 산자락 아래는 옥빛 물결이, 위로는 초록 잎새와 파란 하늘이 여행자를 맞이했다.

눈부신 제철, 제천에 닿다

호흡으로 절기를 포착할 수 있다. 들숨에 습한 듯 무거운 열기가 코를 간질이기 시작하는 초여름, 기차를 타고 제천역에 도착했다. 승강장 맞은편 정경은 소박하다. 역을 둘러싼 나직한 가게 사이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간다. 정감 가는 모습 위로 달콤한 꽃향기가 바람 타고 실려 온다. 제천역에서 나와 옥순봉으로 향한다. 남한강 변에 우뚝 솟은 희고 푸른 아름다운 바위들이 마치 대나무 싹과 같다 하여 퇴계 이황이 옥순봉이라 이름을 붙였다. 일찍이 절경으로 알려져 옛 글과 그림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그림 속 옥순봉의 모습은 주로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본 형세다. 선비들이

우러러본 옛 자태와 현재의 광경을 아울러 감상하기 위해 이번엔 배를 타기로 했다.

유람선 선착장에 들어서자 청풍호가 광활하게 펼쳐진다. 잔잔한 초록색 수면 위로 산과 하늘이 비친다. 완벽한 대칭이 데칼코마니로 채운 화폭 같다. 뱃놀이하기에 알맞은 날씨다. 여행에 제철은 없다지만, 그 순간에만 만나는 풍광이 있기 마련이다. 청풍호는 1985년 남한강에 충주댐을 건설하면서 조성됐다. 충주에서는 충주호, 단양에서는 단양호, 제천에서는 청풍호로 불려 지역마다 명칭이 다른데, 충북 제천·단양·충주 세 지역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제천에서는 청풍면에서 이름을 가져와 청풍호라 한다.

뱃고동 소리가 귓전을 울린다. 여행객을 태운 유람선이 청풍나루에서 출발해 단양 장회나루에 갔다 돌아오는 1시간 30분의 여정을 시작한다. 고요하게 반짝이던 옥빛 격자무늬 물결이 일그러지고, 새하얀 포말이 뱃길을 따라온다. 육중한 배의 하체가 수면을 찰방찰방 가르며 작은 물방울을 흩뿌린다. 연달아 나타나는 봉우리가 싱그럽고, 연한 잎사귀들은 살랑살랑 일렁인다. 산과 산 사이로 드문드문 집과 밭이, 마을이 보인다. 배는 유유히 물을 헤치고 나아간다. 지나



광활하게 펼쳐진 청풍호 초록색 수면 위로 산과 하늘이 비친다. 퇴계 이황, 단원 김홍도가 그랬듯 글과 그림으로 읊고 싶은 풍경이다.

쳐 가는 산과 절벽조차 명승지 같다. 암석이 이룬 작은 군락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 주고 싶다.

넉넉한 청풍호, 그 안에 담긴 역사

피부에 닿는 공기가 미지근하다. 뜨거운 태양에 찬 기운이 녹아서일 것이다. 맞바람에 눈 뜨기가 어려워도 경치 하나하나 담고 싶어 연신 눈을 비빈다. 한참 물길을 달리니 빨간 교량이 보인다. 옥순대교다. 현재 청풍호를 보면 상상하기 어렵지만, 본래 이 위에는 나루터가 자리했다. 댐 건설로 일대가 물에 잠기기 이전에 강과 마을이 있던 시절의 이야기다. 수산면 괴곡리와 맞은편 상천리 사람들은 나룻배를 타고 강을 오갔다. 총 5개 면의 61개 마을이 물 밑으로 사라졌다. 학교와 집이 잠겼고 각 마을의 별명과 수호신도 기억과 기록으로만 남았다.





청풍호가 품은 사연을 생각하며 잠시 묵념한다.

배가 옥순대교를 통과하자 옥순봉이 위용을 드러낸다. 세로로 짝짝 갈라진 기암절벽 사이로 푸른 나무가 구름처럼 걸렸다. 보물로 지정된 단원 김홍도의 <김홍도 필 병진년 화첩> 중 '옥순봉도'와 똑 닮았다. 우러러보는 각도 하며, 쪽쪽 뺨은 암석들이 붙은 듯 떨어져 있는 모양새가 지금도 동일하다. 푸른색과 흰색이 섞인 암석에서 옥빛이 나니 옥순봉이란 이름이 맞춘다. 다만 퇴계 이황의 흔적을 볼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조선 명종 3년 단양군수로 부임한 퇴계는 절경에 반해 청풍군수에게 옥순봉을 넘겨 달라 청했다가 거절당한다. 못내 서운했던 퇴계는 옥순봉 암벽에 단양의 관문이라는 뜻의 '단구동문'을 새겼다 전한다. 거대한 돌기둥 밀동은 댐 건설로 물에 잠겼지만, 옥순봉은 여전히 웅장하다.

가은산에 다다른다. 시원하게 쪽쪽 뺨은 옥순봉과는 또 다른 분위기다. 개성 넘치는 기암괴석에 붙은 코끼리바위, 촛대바위, 물개바위 등의 이름이 재미있다. 가은산의 하이라이트는 새바위다. 모양이 새 같기도 하고 얼핏 다람쥐 같기도 한데, 손으로 빚은 듯 정교하다.



유람선을 타고 제천 청풍나루를 출발해 단양 장회나루를 다녀오는 데 1시간 30분이 걸린다. 여유롭게 풍광을 즐기기에 좋다. 문의 043-647-4566

옥순봉과 눈 맞추기



뱃길을 따라 옥순봉을 우러러봤으니, 이제 다른 얼굴을 볼 차례다. 출렁다리에 올라 옥순봉과 눈높이를 맞춰 본다. 222미터 길이의 다리는 봉과 봉 사이에 아찔하게 걸려 있다. 겁이 났으나 용기를 낸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진동이 인다. 다른 통행자가 지나가자 흔들림이 배가된다.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시야를 멀리 두는 것이다. 불과 100미터 남짓한 거리에 있는 옥순봉에 시선을 둔다. 호수에서 올려다볼 때는 발견하지 못한 옥순봉의 옆얼굴을 맞닥뜨린다. 암석의 기개가 드러난 정면과 달리 측면은 나무가 더욱 잘 보인다. 닿을 듯 가까운 암석 위로 나무 하나하나 명도 차이가 느껴진다. 어느새 다리 밑 아찔한 호수는 잊고, 관조하기에 이른다. 출렁다리 끝에서 되돌아오는 길엔 한층 용감해져 아까 못 들은 새소리와 바람소리도 들린다. 경치에 녹아들었기 때문이리라.

시야를 멀리 호수로, 굽이치는 능선으로 옮긴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도 결국 자연만은 그 자리에 있다. 옛 선비도, 지금은 수몰된 지역의 실향민도 모두 이 풍경 속에 머물렀다. 옥순봉의 지층을 이루는 것은 곡절 많은 사연인지도 모른다. 옥순봉은 오늘도 쉼 없이 제천의 기억을 쌓아 간다. ㉠



중심을 향해, 충주

중앙탑이 물가에 우뚝 선 충북 충주는 고즈넉한 자연이 무게중심을 지키는 아름다운 도시다. 우륵이 가야금을 탄 풍류가 지금도 흐르는 듯, 다양한 작품이 충주를 찾았다.



“나라 남쪽 끝과 북쪽 끝에서 사람을 각각 출발시키도록 해라. 그들이 어디서 만나는지 보자.” 785년에서 798년까지 재위한 통일신라 제 38대 원성왕 시절의 전설이다. 보폭이 같은 두 사람이 걸었고, 마침내 마주치자 거기를 나라의 중심이라 여겨 탑을 세웠다고 한다. 국보로 지정된 탑평리 칠층석탑이라는 공식 명칭보다 중앙탑이라는 이름이 익숙한 탑에는 공식 기록 대신 이렇듯 정다운 이야기가 전한다. 현재 이름 충주 또한 한자 ‘충(忠)’을 파자하면 ‘중심(中心)’이니, 여러모로 재미있는 우연의 일치다.

충청도 지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충주는 고즈넉한 자연이 무게중심을 지키는, 산과 강과 들판이 어우러진 도시다. 남한강과 충주호, 우륵이 가야금을 탔다는 탄금대, 월악산국립공원과 수안보온천 등 전통 여행지에 이어 ‘차박’ 명소로 떠오른 수주팔봉, 비내섬, 양성온천 등이 충주를 다시 찾게 한다. 소박한 풍경의 원도심에서는 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충주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듯하다.

도시와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이 영상 제작자를 충주로 불렀다. 특히 접근하기 편하면서도 남다른 깊이가 느껴지는 충주의 자연은 인공물 없는 화면이 필요한 사극이나 북한을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 빛을 발한다. 비내섬이 대표적 예다. 갈대와 역새가 무성하고 사방으로 온통 자연만 눈에 들어오는 이곳에서 드라마 <정도전> <육룡이 나르샤> <징비록> 등을 찍었다. 6·25전쟁 중에 남한 군인과 북한 군인이 조우해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영화 <서부전선> 배경도 비내섬이다. 어느 날 갑자기 전쟁터에 내몰린 평범한 개인에게 전쟁이 어떤 의미인지, 이념과 상황을 떠나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말하는 작품의 화면을 비내섬의 자연이 감싸준다.

물론 충주가 어제의 모습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세운 지 1200년이 넘는 중앙탑 일대는 조각 작품을 군데군데 설치하고 산책로를 내어 공원으로 조성했다. 탑 아래에 둔 대형 달 모형이 독특한 분위기를 더한다. 21세기의 풍류다. 그 옛날에도 지금도 변함없는 물, 오래된 석탑, 오늘의 작품이 한눈에 잡히는 공원은 호젓하고 낭만적이라 혼자 사색하기에도, 사랑하는 이와 걷고 쉬기에도 좋다. 충주가 지금 국토의 진짜 중심은 아니지만 여행에, 추억에 중심으로 삼는 건 가능하다. 충주의 매력을 담은 작품이 여행의 힌트가 될 수 있겠다. **k**

“Send people off from the southern and northern ends of the country, and let’s see where they meet.” This is a legend from the reign of King Wonseong, the 38th ruler of the Unified Silla dynasty. Two people with the same stride walked, and a pagoda was erected at the place where they met. The Seven-story Stone Pagoda in Tappyeongri, Chungju is a national treasure, and it is also known as the Central Pagoda. It is an interesting coincidence that “chung” also means “center” when its Chinese character is broken down.

Considered an axis of the province, Chungju is known for its serene nature, along with the harmony of mountains, rivers, and fields. It offers a wealth of attractions such as Chungjuho Lake, Tangeumdae Height, and Woraksan National Park, as well as *chabak* (car camping) sites like Sujupalbong Peaks and Binaeseom Island.

The harmonious coexistence of the city and nature has attracted filmmakers to Chungju. Chungju’s natural environment shines in historical dramas or works set in North Korea. Binaeseom Island is a representative example. Dramas like *Six Flying Dragons* and *The Jingbirok*, and the movie *The Long Way Home*, which depicts an encounter between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soldiers during the Korean War, were filmed on Binaeseom Island.

Of course, Chungju has transformed with the passing of time. The area around the Central Pagoda, which has been standing for over 1,200 years, is now a park adorned with sculptures. The tranquil park is perfect for spending time alone or walking with loved ones. While Chungju may not be the true center of Korea today, it is possible to make it the center of your memories. Works that capture the charm of Chungju can serve as hints for a more memorable trip. **k**

CHUNGJU



제안권 ©





이곳에서 촬영했어요



DRAMA

<빈센조>

#중앙탑공원, 탄금호무지개길

냉혹한 이탈리아 마피아 변호사가 조직에서 배신당하고 한국에 와 마피아나 다름없는 거대 권력을 응징해 나간다. 음모, 폭력, 계략이 난무하는 가운데 작품에는 시종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독기 오른 주인공이 잠시 느슨해지는 곳이 충주의 수주팔봉, 중앙탑공원, 탄금호. 물과 산, 옛 석탑과 바람이 그에게 숨 쉴 구멍을 내어 준다.

A ruthless Italian mafia lawyer is betrayed by the organization and comes to Korea, seeking revenge against a mafia-like powerful group. In this tense and gripping work, the protagonist finds moments of relaxation in Chungju's Sujupalbong Peaks, Jungangtap Park, and Tangeumho La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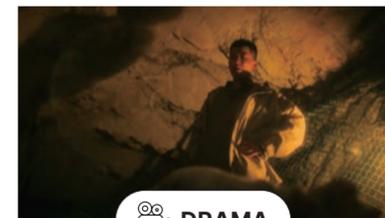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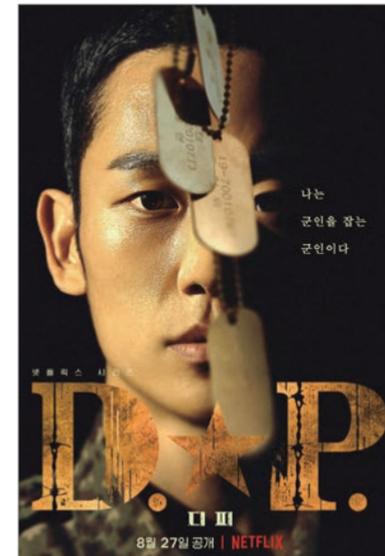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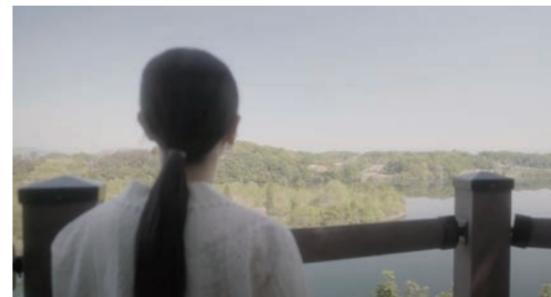
MUSIC VIDEO

<개화>

#탄금대

가야의 우륵이 나라가 기우는 것을 보고 신라에 귀화하자 왕은 충주에 정착하게 했다. 고향과 나라를 잃은 망명객은 강가의 낮은 산에 올라 가야금을 연주했으니, 바로 탄금대다. 젊은 연주자가 여기서 다시 가야금을 탄다. 몽환적 소리를 내는 악기 핸드팬이 가야금 소리와 잘 어울린다. 탄금대 풍경도, 가야금 소리도 언제나처럼 고아하다.

When Gaya's Ureuk sought refuge in Silla, the king settled him in Chungju. Ureuk played the gayageum (a traditional Korean string instrument) on the mountains by the river, known as Tangeumdae Height. In the music video, the mystical sounds of the handpan instrument complement the sound of the gayageum.



DRAMA

<D.P.>

#활옥동굴

탈영병은 무조건 부적응자고 나쁜 사람이다? 군무 이탈 체포조인 D.P.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는 탈영병 뒤에 숨은 사연을 담아 내며 호평받았다. 6회에서 한 탈영병이 자신을 괴롭힌 상사를 납치해 끌고 간 곳이 활옥동굴이다. 극에서는 절박함과 분노를 극대화하는 배경이지만, 실제 활옥동굴은 관람용으로 예쁘게 단장하고 손님을 받고 있다.

The drama centered around the D.P. team, which captures the hidden stories behind deserters, has received critical acclaim. In Episode 6, a deserter kidnaps the superior officer who tormented him, and the place where he takes him to is Hwarok Cave. The actual cave is a popular tourist attraction.



DRAMA

<사랑의 불시착>

#비내섬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북한에 불시착한 세리가 북한군 장교 정혁을 만난다. 정혁은 세리가 남한에 돌아가도록 돕고, 귀환 예정 전날 마지막 소풍을 떠난다. 갈대와 억새 우거진 비내섬에서 즐겁고 애뜻한 한때를 보내는 그들. 삶의 방식도, 가치관도 다른 두 사람이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바라보고 어느새 같은 마음이 된다.

Se-ri crash-lands in North Korea while paragliding and meets a North Korean military officer named Jeong-hyeok. Jeong-hyeok helps Se-ri return home and, in the end, they go on a picnic together. They spend poignant moments on Binaeseom Island, filled with reeds and tall grass.

Ho Tram

반짝이는 해변에서, 베트남

여름 향기로 가득한 베트남 호짬과 캄라인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잔잔한 바다 물결이 마음을 다독여 주었다.

촬영: 김민준, 편집: 나미아, 디자인: 김민준

Welcome, Meliá!



멜리아 호짬 비치 리조트



[베트남 여행 정보]

- ✈ 호찌민시 떼선녓 국제공항에서 리조트까지 차로 약 2시간
- ☀ 여름에는 건기, 겨울에는 우기인 열대몬순기후. 연중 최저기온 약 25도, 최고기온 약 34도
- 🇻🇳 베트남어
- 🕒 -2시간
- 💰 100동(VND)=한화 약 5.73원
- 🔌 220V(110V 어댑터 사용 가능)
- 📅 15일 무비자 체류 가능

여유로운 낙원, 호짬

파도 흩어지는 소리가 귓가를 울린다. 근원을 찾아 돌아보니 눈부신 해변과 바다가 빌라 코 앞이다. 베트남 호찌민에서 차로 약 두 시간을 달려 멜리아 호짬 비치 리조트에 닿았다. 회색 빌딩 대신 적당한 높이의 야자수와 아기자기한 플루메리아나무가 반겨주는 곳, 호짬은 조용한 곳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원하는 이들의 낙원이다.

바다를 눈앞에 두고 수영을 떠올리지 않기란 어렵다. 우선 허기진 배를 달랠 요량으로 아시아 거리 음식에서 영감을 얻은 캐주얼 레스토랑 '사사'에 들러 뜨끈한 쇠고기 쌀국수와 코코넛 음료로 아침 식사를 한다. 그런 후 곧장 호짬 해변으로 가 바닷물에 뛰어든다. 바다수

영이 익숙하지 않다면 메인 풀로 향한다. 키즈 풀이 따로 있어 아이를 동반한 가족도 걱정 없이 물놀이를 즐긴다. 해변과 메인 풀 근처에 자리한 레스토랑 '브리자 비치 클럽'에서 스페인식 해산물 요리로 점심을 해결하니 졸음이 솔솔 쏟아진다. 선베드에 누워 다디단 낮잠으로 기력을 보충한다. 해가 질 때는 햄프턴즈 부두로 달려간다. 총길이 270미터인 부두 끝에 서면 바다 위로 지는 낭만적인 석양이 보이기 때문이다. 부두의 전망대까지 가는 길을 다양한 국기와 포토 존 등으로 꾸며 놓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어둠이 내려도 하루는 끝나지 않는다. 매일 밤 야외 메인 광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감상한다. 은은한 불빛과 풀벌레 소리, 별이 총총한 하늘을 음미하며 베트남의 긴 밤을 보낸다.



Cam Ranh

방해받지 않는 휴식, 캄라인

달팽이 껍데기와 산호로 지은 탑으로 유명한 캄라인은 베트남 현지인도 즐겨 찾는 인기 휴양지다. 캄라인 국제공항에 도착해 차로 약 15분 이동하면 멜리아 빈펄 캄라인 비치 리조트가 보인다. 빌라 200채가 들어설 정도로 넓은 부지 덕에 리조트는 마치 다른 세계의 마을을 떼어 온 듯하다. 리조트 안을 이동할 때는 상시 대기 중인 버기가 '톡톡'을 이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이곳의 자연과 맑은 공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자전거로 구석구석 둘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로비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리조트를 누빈다. 리조트에 심어 놓은 망고나무는 3000그루가 넘는데, 수확한 망고와 코코넛 등은 이곳

주방에서 식재료로 쓴다. 리조트에서 자란 망고로 요리하는 쿡킹 클래스에 참여해 베트남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도 이색적이다. 깊이 1.3미터 메인 수영장에서는 수영복과 튜브 등을 무료로 대여해 주니 맨몸으로 와도 즐거운 시간이 된다. 수영복을 입고 신나게 놀기만 했을 뿐인데 어느새 피로가 쌓인다. 'YHI 스파'에서 긴장한 근육을 마사지로 푼다. 여섯 가지 테마의 오일 중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 한층 편안한 시간이다. 베트남 해산물 요리를 선보이는 '카페 나오'에서 각종 음식과 시그너처 칵테일로 만족스러운 저녁을 보낸 후, 해변 옆에 자리한 빌라로 들어가 침대에 눕는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잔잔하다. 바다에 몸을 맡기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K**

멜리아 빈펄 캄라인 비치 리조트



[캄라인 추천 여행지]

리조트에서 차를 타고 30여분 이동하면 조개껍데기로 이루어진 탑 '투반 파고다'와 마주한다. 1968년에 승려들이 세운 탑은 조개나 달팽이 껍데기, 산호 등 바다에서 나는 재료만으로 지었는데, 높이가 무려 약 40미터에 달한다. 탑뿐 아니라 조개껍데기로 만든 용 모양 건축물, 와불상 등 베트남 국교인 불교와 관련된 조형물도 감상할 수 있다.



IT'S A NEW LEVEL!

GAME BGM!



STAR CRAFT LIVE CONCERT - ENCORE 1 -

GAME BGM!

게임 음악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단순한 비트로 이뤄지던 게임 음악이 오케스트라 연주가 가능할 정도로 진화했다. 예술로 거듭난 게임 음악 세계를 파헤친다.

다음 보기 중 게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고르시오.

1번 진행 방식. 2번 그래픽. 3번 음악.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3번을 선택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게임 음악은 RPG·슈팅·퍼즐 등 진행 방식이나, 눈길을 끄는 화려한 그래픽 같은 중심 요소가 아닌 부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게임 음악 오케스트라 공연이 종종 매진 소식을 알려 모두를 놀라게 한다. 게임이 골칫덩이라는 편견을 깨고 취미 중 하나로 당당히 자리해시킬까?

작은 음악회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1월 발표한 '2022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 게임 시장 예상 규모는 2021년 대비 약 8.5퍼센트 상승한 22조 7723억 원이다. 게임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당연히 게임 퀄리티도 좋아졌다. 게임 음악 역시 마찬가지다. 단순한 전자음을 반복하거나 게임기의 음향효과를 활용해 만든 일명 '8비트 음악'이 점점 발전하더니 유명 가수가 게임 OST 제작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게임 시나리오에 몰입하도록 각종 악기를 동원한 음악이 플레이어의 감성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2001년, 한국에서 게임 음악회가 열린다. 당시 문화관광부가 후원하고 게임 방송국 온게임넷이 주최한 <2001 청소년 게임 음악회>에서는 폭발적 인기를 누렸던 전략 게임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 등의 배경음악이 연주됐다. 이를 시작으로 게임 음악과 관련한 행사가 여럿 있었지만, 예상외로 사람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게임을 사회문제 또

는 규제 대상으로 보는 시선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러 2019년, '스타크래프트'의 배경음악을 연주한 <스타크래프트 오케스트라>가 대성공을 거둔다. 게임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달라지고 산업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 이유는 음악을 듣고 게임을 즐겼던 옛 기억을 떠올리는 플레이어가 있어서다. 게임 음악이 추억을 소환하는 매개체가 된 것이다.

게임 음악, 여기까지 왔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오케스트라 이후 한 게임의 음악만 연주하는 공연이 늘어난다. '리니지' '메이플스토리' '리그 오브 레전드'... 많은 팬을 보유한 게임 또는 배경음악이 좋다고 소문난 게임들이다. 해외에서는 2009년 발매된 일인칭 슈팅 게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의 배경음악 작곡에 영화음악 거장 한스 치머가 참여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게임 음악이 상을 받기까지 한다. 2010년, 미국 그래미 어워드에서 문명을 발전시키는 전략 게임 '문명4'의 메인 테마곡 '바바 예투(Baba Yetu)'가 '편곡 및 보컬'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올해 그래미 어워드는 '비디오 게임, 인터랙티브 미디어' 부문을 신설했고, 첫 수상의 영예는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 라그나로크의 서막' 배경음악을 작곡한 스테파니 이코노모가 안았다. 단순한 멜로디에서 예술의 경지에 오르기까지 여우곡 절이 많았으나, 게임 음악은 앞으로 발전할 일만 남았다. 추억과 감동을 불러오는 게임 음악의 세계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탐구한다. **K**



신속한 게임 음악

슈퍼 마리오

🎵 곡명_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테마(Super Mario Bros. Theme)

🎮 게임 발매_1985년

콘솔 게임 회사 닌텐도의 대표 비디오게임으로,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도 안다는 노래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테마'를 보유했다. 리듬이 단순한 편이라서 피아노, 바이올린, 밴드 연주 등 팬이 만든 버전도 속하다. '슈퍼 마리오' 게임 시리즈의 배경음악은 대부분 이 테마곡을 편곡한 것이다. 게임 음악 사상 최초로 미국 의회도서관 국가 녹음 자료 목록에 등재되었다. 지난 4월 개봉한 영화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의 사운드트랙은 게임에 등장하는 배경음악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재해석해 호평을 받았다.





메이플스토리
MapleStory



가수가 부른 게임 음악

메이플스토리

곡명_스웨어 온 더 소드
(Swear on the Sword)

게임 발매_2003년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대륙을 모험하는 온라인 롤플레이 게임이다. 콘셉트에 절묘하게 맞는 배경음악으로 유명하다. 세상의 평화를 지키는 시그너스를 따르는 시그너스 기사단의 테마곡을 아이돌 그룹 아이오아이의 김세정이 녹음했다. 여러지만 강인한 마음과 희망으로 세계를 지키려는 결의가 가사에 잘 드러나고, 게임 배경음악 '시그너스 가든(Cygnus Garden)' 멜로디를 일부 차용해 작곡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곡명_더 배디스트
(The Baddest)

게임 발매_2011년

플레이어가 하나의 캐릭터를 선택하고, 정해진 맵에서 그를 육성해 상대방 진영을 파괴하면 승리하는 실시간 공성 게임이다. 163명의 캐릭터 중 아리, 아칼리, 이블린, 카이사를 활용해 가상의 K-팝 그룹 'K/DA'를 만들었다. 게임의 평행 세계관으로 여겨지는데, 실제 노래 녹음에는 한국 아이돌 그룹 (여자)아이들 소연, 미연과 미국 가수 비 밀러, 울프타일라가 참여했다.



그래미 어워드 수상작



문명4

곡명_바바 예투
(Baba Yetu)

게임 발매_2005년

'시드 마이어의 문명' 시리즈 중 네 번째 작품으로, 자신의 문명을 기원전 4000년 석기시대부터 발전시켜 다른 문명과 경쟁하는 전략 게임이다. 시리즈 중 역대 최고라는 칭찬을 받으며 성경의 주기도문을 스와힐리어로 부른 메인 OST '바바 예투'가 같이 화제에 올랐다. '바바 예투'는 '우리 아버지시여'라는 뜻이다. 2010년 게임 음악 최초로 제53회 그래미 어워드 '편곡 및 보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별의 커피 슈퍼 디럭스

곡명_메타나이트의 역습
(Meta Knight's Revenge)

게임 발매_2008년

귀여운 외모로 어른에게도 인기 만점인 별의 커피. 시리즈 중 게임기 '패미컴'으로 플레이 가능한 '별의 커피 슈퍼 디럭스' 또는 리메이크 버전 '별의 커피 울트라 슈퍼 디럭스'에 수록된 곡이다. 비디오게임 음악을 연주하는 재즈·팝 오케스트라 '8-비트 빅 밴드'가 편곡한 버전이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편곡(기악 또는 아카펠라)상을 받았다. 음악을 들으면 역동적인 커피의 움직임이 절로 떠오른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게임 음악

스타크래프트

곡명_테란 원
(Terran One)

게임 발매_1998년

'민속놀이'라는 별명이 붙은 정도로 2000년대 초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던 전략 게임이다. '스타크래프트' 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악으로, 2022년 열린 <스타크래프트 라이브 콘서트: 앙코르>에서 진술의 지휘 아래 클래식 게임 심포니 오케스트라&밴드와 위너오페라 합창단이 힘을 맞췄다. 이 곡이 끝나자마자 환호와 감동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게임 배경인 신비로운 우주가 그려지는 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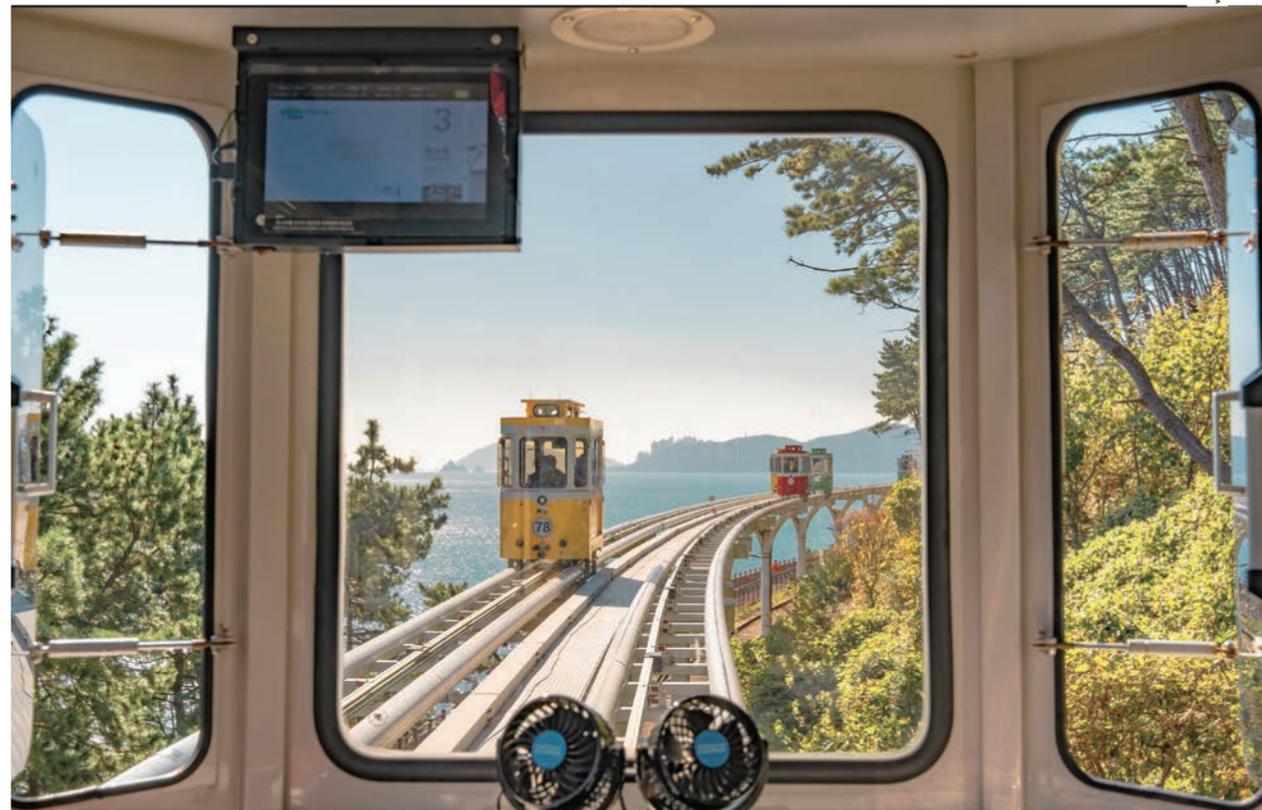


로스트아크

곡명_몽환의 아스탈지어
(Astalgia of Phantasm)-
오페라 버전

게임 발매_2018년

액션 롤플레이 게임으로, 몽환 군단장 아르렐슈드의 막강한 힘을 잘 표현한 곡이다. 2022년 '로스트아크' 배경음악 공연 <디어 프렌즈(Dear Friends)>에서 한국 최고 오케스트라인 KBS교향악단의 환상적인 연주에 합창단과 소프라노를 동원한 무대가 좌중을 압도했다. "어둠을 헤매는 게으른 자여/ 몽환의 주인을 맞이하라"라는 라틴어 가사가 곡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토록 즐거운 폐철길

6월 28일 철도의 날을 맞아, 여행지로 재탄생해 사랑받는 폐철길을 찾아본다.

부산_해운대 블루라인파크

열차를 타고 부산 해운대의 아름다운 백사장과 빛나는 물결을 굽어본다. 해운대 블루라인파크는 미포부터 청사포를 거쳐 송정에 이르는 4.8킬로미터 구간의 동해남부선 옛 철길을 재개발했다. 열차는 두 가지. 해변열차는 전 좌석이 바다를 향해 어느 자리에 서나 절경을 마주한다. 스카이캡슐은 2인부터 4인까지 탑승할 수 있어 일행끼리 편안하게 즐기기가 좋다.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청사포로 116
문의 051-701-5548

포항_포항철길숲

2015년 폐선된 후 용도를 잃고 방치됐던 동해남부선 포항 도심 구간이 철길숲으로 다시 태어났다. 철길숲은 철길 모양을 따라 포항시 남구에서 북구까지 길게 펼쳐진다. 이곳에서 농치지 않아야 할 볼거리가 '불의 정원'. 굴착 작업을 하다 우연히 천연가스가 분출되며 불꽃이 일더니 현재까지 꺼지지 않은 채 타고르고 있다. 철의 도시 포항에 걸맞은 명소다.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점동 171-5
문의 054-270-8282

여수_오림터널

옛 터널의 운치를 만끽해 보자. KTX 전라선이 개통하며 폐선된 옛 철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오림터널을 마주한다. 기차가 터널을 지나가던 모습을 상상하는 것도 흥미롭지만, 터널 안에 전시한 미술 작품은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한 갤러리로, 서양화부터 문인화·동양화·서예·사진·시 등 총 34점을 전시한다.

주소 전남 여수시 오림동 512-6
문의 061-664-8978

서울_경의선 책거리

경의선은 경성의 '경'과 신의주의 '의'에서 이름을 따왔다. 이 구간 철길을 지하화하면서 지상 부지에 나무를 심고 숲길을 조성했다. 경의선숲길을 더욱 특별하게 하는 것이 경의선 책거리다. 책을 주제로 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다채로운 문화 예술 콘텐츠를 갖춘 부스와 스튜디오, 경의선의 역사를 담은 갤러리가 발길을 끈다. 경의선숲길에 왔다가 책의 숲에 빠진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37길 35
문의 02-324-6200





한국철도 관광사업처 관광기획부 철도를 넘어 여행을 아우르다

탁월한 기획력과 실효성 서비스 정신으로
최고의 기차 여행을 완성하는 곳, 한국철도 관광사업처
관광기획부가 일군 결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왼쪽부터) 백종환 대리, 정정호 과장, 홍하림 대리, 이혜선 대리, 김범승 차장, 김석태 부장, 황재식 처장

Q. 한국철도 관광사업처 관광기획부를 소개해 주세요. A. 우선 철도를 연계한 관광사업에 관한 모든 것을 기획하는 관광사업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열차 연계 상품을 구성하는 관광열차부, 도심공항터미널·공항버스 등 연계 교통을 담당하는 연계서비스부, 그리고 KTX와 같은 정기 열차를 연계한 상품을 기획하는 관광기획부로 이루어집니다. 관광사업처장을 비롯해 총 열여섯 명의 직원이 오늘도 고객 여러분의 근사한 여행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Q. 관광기획부 일터 풍경이 궁금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요? A.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전날에 취합한 고객의 소리와 여행 상품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여행사와 상품 운영에 대한 협의 방안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거든요. 외부 기관과 협업을 많이 하는 편이라 무수한 전화 통화와 대면 회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최근 출시한 코레일톡 통합 예약 서비스는 외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했으리라 짐작합니다. 서비스 기획과 개발 과정을 알고 싶어요. A. 21세기 교통 시장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교통 서비스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 중입니다. 수많은 사용자를 거느린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열차, 연계 교통, 숙박 등 여행에 필요한 각종 상품을 한 번에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일명 '코레일톡 토틸 여행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죠. 이와 같은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먼저 렌터카, 카 세어링, 숙박·관광 입장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과 협력해 콘텐츠를 확대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2023년 5월 현재, 전국 300여 개 여객역 중 255개 역을 중심으로 1만 3000여 개 여행 상품을 연계한 통합 예약 서비스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어요. 한국 교통 관련 기업 중 최초로 모바일 분야 실시간 통합 예약 서비스를 실현한 결과물이기도 하답니다.

Q. 고객의 반응은 어땠나요? A. 철도 승차권과 연계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을 실시간으로 추천해 이용 편의가 크게 높아졌다고 들 합니다. 또 코레일톡 회원을 대상으로 렌터카와 카 세어링은 30~55퍼센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입장권의 경우 비정기적으로 특별 할인을 진행하니 비용 절감 효과도 톡톡히 누리지요.

Q. 이번 6월 '여행 가는 달' 캠페인에 철도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2023 여행 가는 달에 대한 정보와 한국철도에서 마련한 할인 혜택이 궁금합니다. A. 여행 가는 달은 여행을 활성화하고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캠페인으로, 2021년 출범해 매년 6월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도 정부의 여행 활성화 정책에 힘을 신고자 참여하는데, 올해에는 KTX 연계 여행 상품과 관광열차 운임을 최대 50퍼센트까지 할인하고, 내일로 패스의 경우

권중 무관하게 1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객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Q. 관광기획부 직원끼리도 여행을 즐기나요? 기차 여행 전문가의 여정을 귀띔해 주세요. A. 여행이 곧 업무라서, 시기별로 주력하는 테마나 일정에 맞게 다니는 중입니다. 최근 상품을 기획하기 위해 다녀온 강원도 폐광 지역 여행이 기억에 남네요. 영월, 정선, 태백, 삼척의 운탄고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때 묻지 않은 오지에서 트레킹은 즐거움이 남다르더군요. 지친 걸음을 이끌고 맛봤던 맛갈스러운 향토 음식을 잊을 수 없습니다.

Q. 정말이지 여행이 업무의 동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기획부, 나아가 관광사업처의 계획과 포부를 들려주세요. A. 'KTX와 함께'라는 모토로 정기 열차를 활용한 전국 여행 상품을 기획해 수많은 여행자가 대한민국의 빼어난 여행 자원을 두루 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랑과 바다열차, 국악와인열차와 교육열차 등 테마에 맞는 다양한 관광열차를 꾸준히 운영·관리해 지속 가능한 여행법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코레일톡 앱으로 시외버스 승차권, 연안 여객선 승선권, 항공권 등 보다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통합해 철도가 닿지 못하는 지역까지 연결하고자 합니다. 이동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죠. ①



+ 한국철도공사 × 한국관광공사 - 여행 가는 달

6월, KTX 연계 여행 상품과 관광열차의 철도 운임을 30~50퍼센트 할인하고, 내일로 패스를 권중 무관하게 1만 원 할인하는 '여행 가는 달' 행사를 펼칩니다. 관광열차의 경우 서해금빛열차, 남도해안열차, 정선아리랑열차, 백두대간협곡열차, 동해산타열차, 바다열차까지 운임을 50퍼센트 할인한다. 그 외 코레일톡 제휴 상품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니, 홈페이지를 확인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 보자. 문의 info.korail.com

Treasure of Korea



영원한 삶을 위한 선물 -상형 토기

상형 토기를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어떤 물건의 형상을 본떠 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동물이나 사물의 모습을 띠며 때때로 인물을 함께 표현한다. 신라·가야의 무덤에서 주로 출토되는 상형 토기는 몸통이 비어 있고 술과 같은 액체를 담거나 따를 수 있는 구조라 제의용 그릇으로 본다. 대부분 무덤 하나에 한두 점 나오는데 최근 함안 말이산 45호 무덤에서 집, 사슴, 배, 등잔 모양 토기가 한꺼번에 발견되어 주목받았다. 종류가 다양한 데다 형태가 완전하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2022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 상형 토기 다섯 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가까운 이를 떠나 보내며 저 너머 세상으로 인도해 줄 사슴과 배, 어둠을 비출 등잔, 풍요를 약속하는 곳간을 정성껏 마련해 놓았는지도 모르겠다. 죽음을 대하는 선인의 태도와 마음이 느껴진다. 토기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이 10월 9일까지 진행하는 특별전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에서 만날 수 있다.

A Gift for Eternal Life -Earthenware Figurines

Earthenware figurines often depict animals or objects, and occasionally human figures. Those excavated from the tombs of Silla and Gaya are seen as ceremonial vessels used to pour liquids like alcohol. While a single tomb usually has only one or two pieces, Haman Marisan Tomb No. 45 was designated as a national treasure last year with the discovery of several figurines in the shapes of houses, deer, boats and lamps. The deer and boats may have been intended to provide guidance in the afterlife, and the lamps to illuminate the darkness. Get a closer look at the special exhibition titled *Companions on the Eternal Journey*, which runs through October 9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 ① 호두 파이
- ② 에그타르트
- ③ 마카롱
- ④ 크루아상
- ⑤ 단팻빵
- ⑥ 파운드 케이크
- ⑦ 초코칩 쿠키
- ⑧ 치즈 스틱
- ⑨ 브라우니
- ⑩ 슈크림 수
- ⑪ 마늘 바게트
- ⑫ 샌드위치
- ⑬ 베이글
- ⑭ 토스트
- ⑮ 햄버거
- ⑯ 와플
- ⑰ 피자
- ⑱ 소시지 빵
- ⑲ 롤 케이크
- ⑳ 케이크
- ㉑ 도넛
- ㉒ 브리또
- ㉓ 유러스
- ㉔ 프래즐
- ㉕ 슈크림 케이크
- ㉖ 햄버거
- ㉗ 감자튀김
- ㉘ 파베기
- ㉙ 핫도그
- ㉚ 풍어빵



<숨은그림찾기 축제 365>
충남 보령 머드 축제, 강원도 강릉 커피 축제 등 한국의 여러 축제와 스페인, 독일 등 세계의 다양한 페스티벌을 배경으로 한 그림에서 물건을 찾는다. 페이퍼 크래프트 만들기, 색깔하기도 수록해 재미가 두 배다.
김현정, 이강실 지음 도서출판 큰그림 퍼넌

Puzzle_ 제주 수국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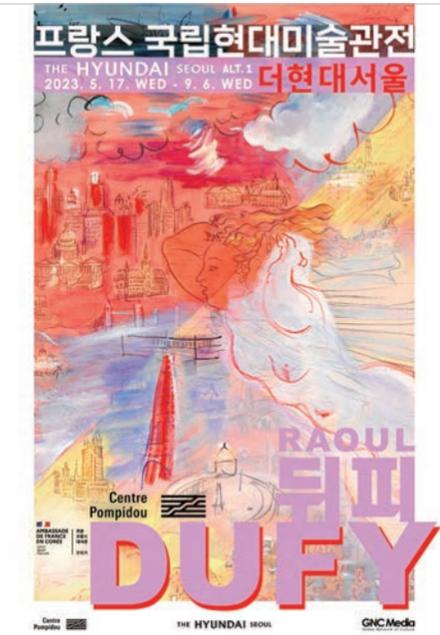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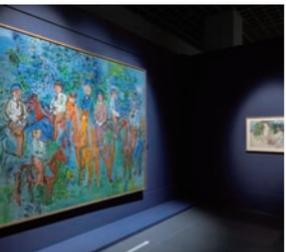
* 다음 여에서 타는 친구도 도전할 수 있게 눈으로만 찾아주세요.

* 정답은 104 쪽에 있습니다.

Culture

전시·시간

EXHIBIT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관전: 뉘피, 행복의 멜로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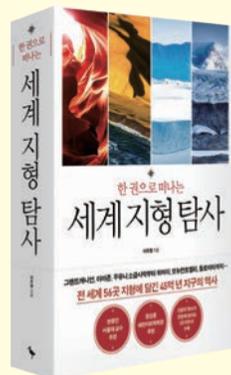
프랑스 르아브르에서 태어나 풍경 화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나, 야수파와 입체파를 거쳐 장식미술까지 아우른 위대한 작가가 있다. 그의 이름은 라울 뉘피.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관이 뉘피의 작품 중 독보적인 것을 가려 뽑아 소개한다. 전기의 역사를 환상적으로 표현한 '전기의 요정' 석판화 연작이 하이라이트다. **기간** 9월 6일까지 **문의** 02-325-1077(더현대 서울 ALT.1)

BOOK



<골목길 봉어빵>

할아버지가 된 시인이 동시를 썼다. 인생 경험에 평생 글을 쓴 이의 시선이 더해진 시는 쉽게 읽히면서도 따스한 감동을 준다. "한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꼬부랑 우리 할머니// (...) // 할머니는 온몸이 아픈데/ 나는 온 마음이 아프다."("꽃은 비" 중) 시집 마지막에 수록한, 시를 읽은 아이들 반응이 웃음을 자아낸다. **서정홍** 지음 **김병하** 그림 **상추쌤** 펴냄



<한 권으로 떠나는 세계 지형 탐사>

'창백한 푸른 점' 지구의 무한 매력.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는 먼지만큼 작은 존재지만, 그 지구엔 빙하부터 사막까지, 화산부터 해저 싱크홀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지형이 분포한다. 책은 45억 살 지구가 긴 시간 빚어낸 전 세계 56곳의 지형을 사진, 지도, 단면도 등과 함께 친절하게 소개한다. 살아 있는 지구를 만난다. **이우평** 지음 **푸른숲**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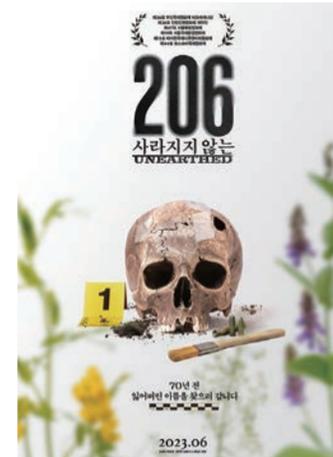


<피나 바우쉬 - 끝나지 않을 몸짓>

춤의 역사를 바꾼 무용가, 현대무용의 전설. 피나 바우쉬를 설명하는 말은 찬사 일색인데, 생전에 자신과 작품에 대한 언급을 꺼린 그를 제대로 알기란 어려웠다. 저널리스트 출신 저자가 방대한 취재로 평전을 썼다. 피나 바우쉬의 팬인 이화여대 이준서 교수가 번역하고 해설을 곁들여 거장의 세계로 안내한다. **마리온 마이어** 지음 **이준서** 옮김 **유훈문화사** 펴냄

영상 콘텐츠·공연

MOVIE



<206: 사라지지 않는>

국가가 은폐하려 한 6·25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의 진실을 찾아 나선 시민 발굴단의 여정을 담았다. 지난 2014년 시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은 발굴 작업으로 유해를 수습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한다. 약식 제례를 진행하고, 감식을 통해 유해를 가족 품으로 돌려주기도 한다. 시민 발굴단의 목적은 오직 하나다. '인간을 구성하는 206개의 뼈를 가족 품으로 돌려주는 것'. 6월 개봉. **감독** 허철영 **출연** 김장호, 김광욱, 박선주

<수라>

제목 '수라'는 새만금 간척 사업 이후 일대에 남은 마지막 갯벌이다. 본래 이름이 없었으나, 그 아름다움에 매료된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이 '비단에 새긴 수라'는 뜻의 이름을 붙였다. 작품은 수라의 새들을 찾기 위해 오늘도 집을 나서는 동필과 아들 승준, 오래전 갯벌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찍다 포기했던 영화 감독 윤의 시선으로 전개한다. 7년간 기록해 만든 작품이 생태 환경의 중요성은 물론 국가사업의 민낯을 통찰한다. 6월 21일 개봉. **감독** 황윤 **출연** 오동필, 황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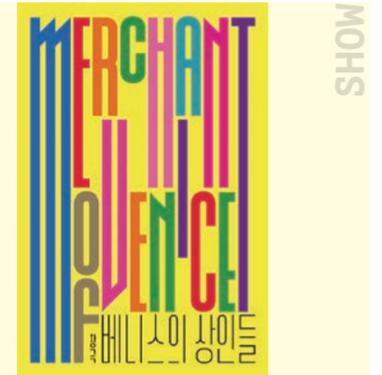


ENTERTAINMENT



<뷰티풀 라이프>

특별한 목소리를 지닌 청년 엘리엇. 어부인 그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음악감독 수잔이 자신의 딸이자 음악 프로듀서인 릴리에게 엘리엇을 소개한 것이다. 엘리엇은 스타로 발돋움하는 동시에 릴리와 사랑도 싹트지만, 어두운 과거가 발목을 잡는다. 덴마크의 유명 가수 크리스토퍼가 이끌어가는 음악영화다. 크리스토퍼는 대표곡 'Bad'를 비롯해 가수 청하와 컬래버레이션한 곡 'When I Get Old'로 한국에서도 인기를 얻었다. 6월 1일 공개. **제작** 넷플릭스 **연출** 메흐디 아바즈 **출연** 크리스토퍼, 잉가 입스도테르 릴레오스



<베니스의 상인들>

국립창극단이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을 창극으로 각색해 유쾌하고 해학적인 무대를 만든다. 중세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무역업자 안토니오를 소상인 조합의 리더로,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은 선박 회사를 운영하는 대자본가로 바꾸는 등 원작과 달라진 점을 찾는 재미가 쏠쏠하다. **기간** 6월 8일~11일 **장소**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문의** 02-2280-4114



<월하가요: Singing in the Moonlight>

강원도 강릉 선교장에서 선계의 결혼식이 열린다. 셰익스피어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 <한여름 밤의 꿈>을 재해석한 뮤지컬로 희, 로, 애, 락 네 개의 달을 하나씩 맡아 관리하는 네 명문가 자제의 합동결혼식에 관객이 하객으로 초청받는다.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작품의 일부가 되어 극에 몰입한다. **기간** 6월 8일~14일 **장소** 강원도 강릉 선교장 **문의** 02-399-1000



Letters from Readers



<KTX매거진>을 보고 나서



안동 세마을 이야기

하회탈 사진을 보니 어릴 적 할머니 댁에서 숙제로 하회탈을 만들었던 게 떠올랐어요. 옆에 앉은 딸에게 그 기억을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덧 내릴 역이었습니다. 즐거운 시절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윤해정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초록빛 강호에 드소, 밀양 기행

밀양 기사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남루와 위양지, 유서 깊은 만어사까지! 기차 안에서 또 다른 여행을 했네요. '제65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열리는 날을 기억하려고 달력에 크게 동그라미를 그려 놓았습니다.

김상현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길

독자 편지를 보내 주세요!

<KTX매거진>을 읽은 소감과 독자님의 여행 사진을 기다립니다. KTX@seoulmedia.co.kr로 독자 평과 들려주고픈 이야기,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세요(사진은 600KB 이상). 메일에 이름, 연락처, 주소를 꼭 기재해 주세요. 마감은 6월 15일입니다.

기차로 여행하면서



첫 월급을 받은 딸이 기획한 부산 여행. 우연히 펼친 <KTX매거진>에서 송도해상케이블카 할인권 내용을 보고 기차 여행의 편리함에 소소한 할인 혜택까지 덩어로 누렸습니다. 이보다 더 즐거운 여행이 있을까요?

한수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KTX매거진>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에서 온 100퍼센트 천연 유기물질 풀빅산을 함유해 두피 탄력 및 모공 관리,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약산성 풀빅 헤어 샴푸 & 토닉 세트(7만 원 상당)를 선물로 드립니다. 허수오 뿌리, 병풀, 창포 뿌리, 어성초 등 식물성 원료 6종이 예민해진 두피 건강에 도움을 주어 가늘고 힘없는 모발을 튼튼하게 해 주는 기능성 제품입니다.



제품 문의 1522-9158



Information



제13회 철도사진공모전 '여행의 끝과 시작'

©이진영



- 090 한국철도 소식
- 098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00 열차 이용 안내
- 102 비상시 행동 매뉴얼





제37차 국제철도협력기구 사장단회의 참석

한국철도가 지난 4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37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회의에 참석했다. OSJD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국제철도 운영과 관련한 국제운송표준을 관장하는 기구다. 회의에는 의장국 폴란드를 비롯해 20개 회원국의 철도 기관 대표가 참석해 국제철도 운영을 위한 여객, 화물, 시설 등의 안전과 의장단 임명 등 주요 정책 사항을 의결했다.

1



한국철도 명예기자단 위촉

지난 5월 한국철도 14기 명예기자단이 탄생했다. 올해 선발된 명예기자단은 온라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파워 블로거, 영상 크리에이터 등 30명이다. 이들은 1년간 한국철도 서비스, 기차 여행 등 철도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온라인 매체에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철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직원 크리에이터도 함께 선발되어 철도인의 일상과 철도 전문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2



강릉·홍성 산불 피해 구호 성금 1억 원 기탁

한국철도의 따뜻한 마음이 다시 한번 산불 피해 지역에 닿았다. 한국철도 노사가 지난 4월 강원도 강릉과 충남 홍성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노사 공동 성금 1억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한 것이다. 이번 성금은 한국철도가 5000만 원, 코레일 노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희망철도재단이 5000만 원을 모아 마련했으며 피해 지역 복구 사업 등에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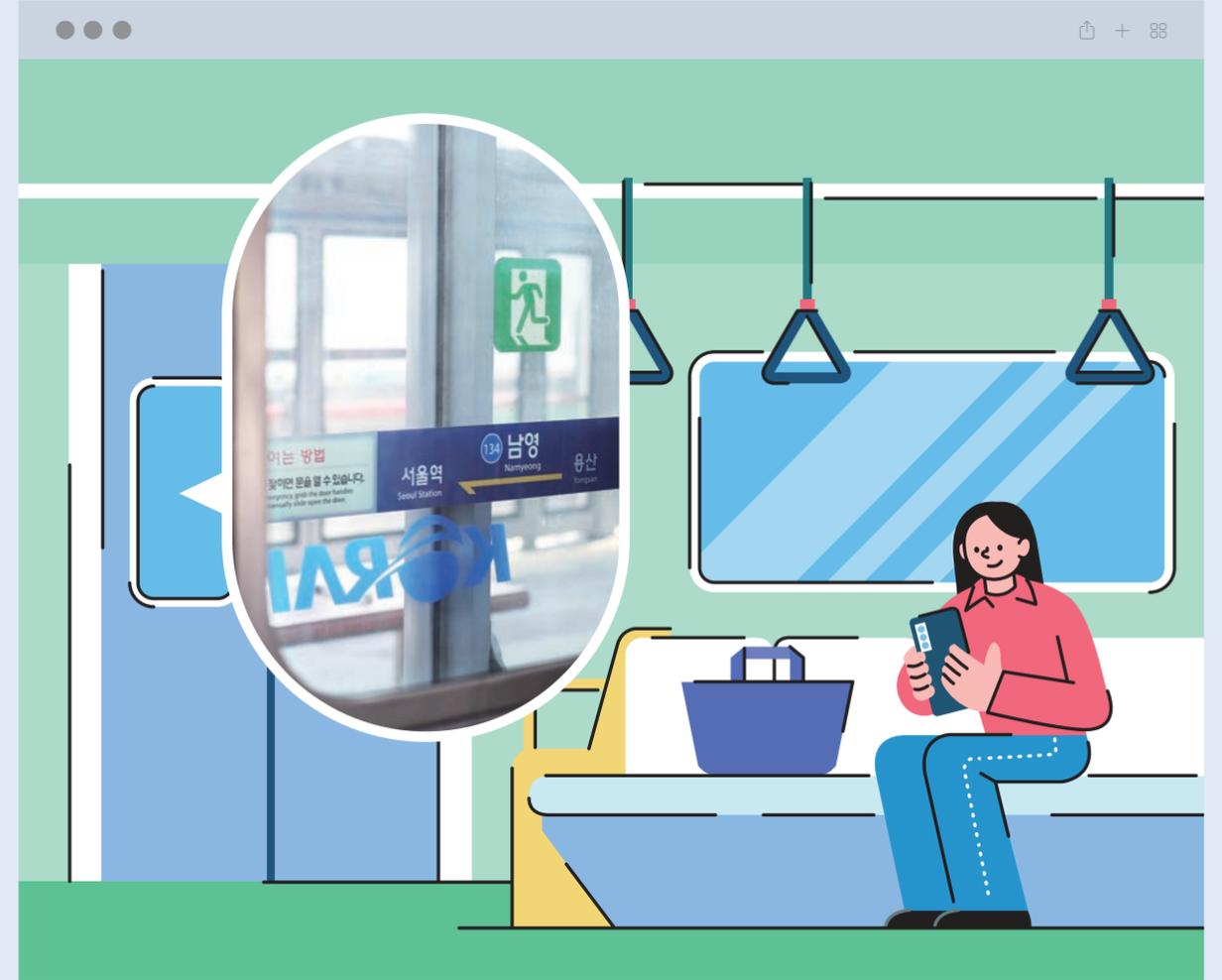
3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철도 시설 집중 점검

정부가 진행하는 '2023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에 발맞추어 전국 주요 기차역 등 철도 시설물 145곳이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한국철도는 6월 16일까지 국가철도공단 등 유관 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전국 철도 현장에서 낙석 우려 장소, 노후 시설 등 위험 요소를 개선한다. 고준영 한국철도 사장직무대행은 지난 4월 서울역에서 역사 내 소방시설에 대해 특별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4



수도권 전철 승강장 안전문에 역명 안내 표지 설치 지금 정차한 역이 궁금할 땐 차창 밖을 보세요

전동 열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문득 내릴 곳을 지나치진 않았는지 걱정될 때가 있다. 열차가 역에 정차하는 순간, 역명 표시판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마음이 불안해진다. 객실 천장에 위치해 노선과 정차역을 알려주는 안내 표시기에 주의를 기울이면 해결될 문제지만, 승객이 가려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매번 고개를 들어 봐야 한다는 점이 불편하다. 자리에 앉아 열차가 어느 역에 정차했는지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 한국철도가 전동 열차 안에서 정차 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승강

장 안전문에 역명 안내 표지를 설치한다. 그동안 좌석 가운데에 앉거나 안내 표시기 아래 서 있는 고객은 정차한 역을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열차 창문 너머 승강장 안전문에 붙여 놓은 안내 표시가 현재 역뿐 아니라 다음 역까지 확실하게 안내한다. 200여 개 역에 설치를 완료했고, 올해까지 한국철도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전역에 부착할 예정이다. 고객이 느끼는 사소한 불편까지 개선하는 한국철도의 노력은 계속 이어진다.



KORAIL SNS



기차 탈 때 알아 두면 유용한 TIP_휴대전화 충전하기 좋은 콘센트 자리,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자리 등 KTX를 이용하는 꿀팁을 알려 드립니다!



유실물 찾아 드립니다_열차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경험이 있나요? 유실물 신고부터 찾는 방법까지 영상 하나에 담았습니다!



철도 기술 혁신, 가까운 곳에 있어요!_승강장 안전문 센서, 전동차 팬터그래프 비상 하강 장치 개발까지 한국철도의 흥미진진한 기술 혁신 사례를 공개합니다.



서해금빛열차 타고 익산으로_기차에 온돌이 있다고요? 한국 생활 베테랑 외국인 안젤리나, 크리스티안, 호훈이 서해금빛열차 타고 떠난 전북 익산 여행기!



정선아리랑열차에서 관광열차를 소개합니다_한국철도 관광열차의 모든 것! 달리는 정선아리랑열차 안에서 관광열차 담당자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광명역과 광명우체국_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광명역과 광명우체국의 자세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 보세요.



*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코레일 x 아놀자

코레일톡, 여행의 모든 것을 품다

열차승차권 + 입장권 통합예약서비스 오픈

- ★★★★★ 롯데월드, 에버랜드
- ★★★★★ 캐리비안베이, 수상스키
- ★★★★★ 동물원, 키즈카페, 박물관
- ★★★★★ 전북패스, 경주패스
- ★★★★★ 패러글라이딩, ATV, 케이블카



친절 직원을 소개합니다



고객의 편지

4월 11일 동해 묵호역에서 서울 청량리역으로 향하는 열차를 이용할 예정이었던 승객입니다. 묵호를 포함한 동해안 지역은 당일 새벽부터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묵호역에 도착했으나 제가 탈 열차는 강풍으로 인해 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직원들은 버스를 이용해 열차가 승객을 기다리는 강릉역까지 모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바깥 상황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때 묵호역 직원들이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버스 이용을 안내해 주셨고, 승객들과 강릉역까지 함께하면서 무사히 강릉에 도착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결국 버스는 별 사고 없이 강릉역에 다다랐고, 저는 청량리로 향하는 열차에 탑승해 집에 도착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직업 정신을 발휘하신 묵호역 직원들과 버스 기사님 등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묵호역 우병도 부역장

철도 생활을 하며 이번처럼 강하고 무서운 바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무가 강풍에 쓰러지는 바람에 열차 운행이 중단되어 많은 고객님이 맞이방에서 장시간 열차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평 없이 안내를 잘 따라 주셔서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더불어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무사히 고객님들을 안내하신 묵호역 정현미 역무원님, 강릉역까지 연계 버스 안내를 담당하신 강원본부 영업처 박민경 대리님, 김민창 주임님 등 여러 직원이 함께 고생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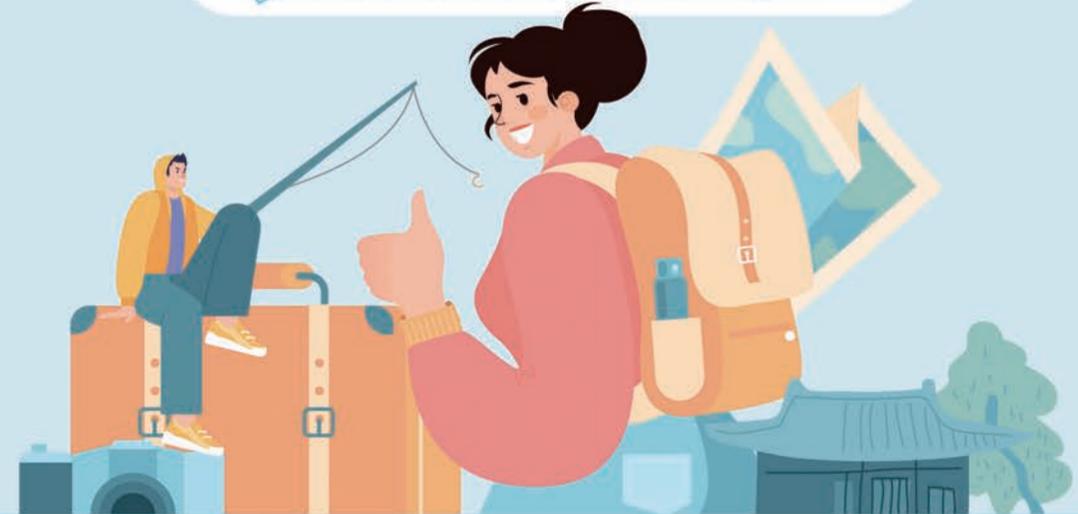
한국철도를 이용하며 기억에 남는 친절 직원이 있다면 한국철도 홈페이지(info.korail.com) 고객의 소리로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2023 여행가는달



특별한 철도할인 꼭 챙기세요!

예약기간 5월 24일(수) ~ 6월 30일(금)
탑승기간 6월 1일(목) ~ 7월 16일(일)



관광상품 결합형 KTX할인
 주중 최대 50%, 주말 최대 30% 할인

- 사용방법**
- KTX 예매 및 지역의 숙박 또는 관광지 입장권 구매 시 할인 적용
 - KTX할인과 결합한 지역여행상품 구매시 할인 혜택 제공 (50여개 코레일 협력 여행사 연계)

판매처
 코레일 웹 (www.letskorail.com) 앱 및 협력여행사 홈페이지

관광열차 6개 노선 할인
 주말 / 주중 최대 50% 운임 할인

- 참여노선**
- 서해금빛열차: 용산 ~ 익산
 - 남도해양열차: 서울 ~ 여수엑스포 부산 ~ 광주송정
 - 동해산타열차: 강릉 ~ 분천
 - 백두대간협곡열차: 영주 ~ 분천 ~ 철암
 - 정선아리랑열차: 서울 ~ 아우라지
 - 바다열차: 강릉 ~ 동해 ~ 삼척해변

판매처
 코레일 웹 (www.letskorail.com) 앱 및 현장발권

내일로패스 할인
 전 연령 대상 철도자유여행패스 1만원 할인

판매처
 코레일 앱 및 현장발권

코레일특 제후상품 할인 이벤트
 승차권, 카세어링, 렌터카, 관광택시 숙박, 입장권 등 다양한 제후서비스 할인

* 코레일특에서 철도승차권과 여행콘텐츠 통합예약시 다양한 할인혜택 제공



TRAVEL NEWS

한 국 철 도 소 식

WWW.KORAIL.COM



월정사 전나무 숲길

강원도 평창 오대산 푸른 침엽수림 사이에 고요히 들어앉은 월정사는 신라 시대 선덕여왕 대에 창건했다고 알려졌다. 약 1000년 전 월정사 앞에 심은 전나무 아홉 그루가 무럭무럭 자라 지금의 숲처럼 울창해졌다는 기록이 전한다. 피톤치드 가득한 길을 지나 고려 시대 석탑인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등 불교의 정수와 마주한다.



발왕산 모나파크

주변 식생을 보존해 자연을 고스란히 감상하도록 조성한 약 3.2킬로미터 무장애 데크 길, 발왕산 정상 해발 1458미터까지 단숨에 이동 가능한 발왕산 케이블카 등을 이용해 숲의 힘찬 기운을 온몸으로 느낀다.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겨울에는 환상적인 설경이 사시사철 여행객의 발걸음을 부른다.



청옥산 육백마지기

별 관찰을 즐기는 이라면 한 번쯤 들어 봤을 곳, 육백마지기. 범씨 600말을 뿌릴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지대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어둠이 내린 평창의 밤하늘은 크고 작은 별 덕에 그 어떤 불빛보다 화려하다. 밤이 아니어도 6~7월은 주변에 샨스타데이꽃이 만발하니, 육백마지기의 낮과 밤 모두 놓치지 말자.



효석문화마을

소설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실제 배경지로, 이효석 생가를 복원해 놓았다. 9월이면 "소금처럼 하얀 꽃과 흐릿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라는 소설 내용이 저절로 떠오를 정도로 메밀꽃 향연이 펼쳐진다. 꽃이 피지 않는 계절에도 생가뿐 아니라 그의 소설을 기반으로 만든 조형물과 전시관 등 볼거리가 많다.

자연 속 휴식처

평화로운 평창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평창의 대표 여름 축제인 '더위 사냥 축제' 기간에만 개방하던 광천선굴이 지난해 11월 새 단장을 마쳤다. 동굴 내부 온도는 약 12도로, 시원한 여행지를 찾는다면 안성맞춤이다. 330미터 길이의 주굴에서 거꾸로 자라는 고드름, 종유석, 천장에 매달린 붉은박쥐 등 신비한 동굴 생태를 느낀다.



대관령 삼양목장

해발 1470미터, 공해 없는 고산지대에서 양과 소들이 여유로이 풀을 뜯는다. 1983제곱미터(약 600만 평)에 달하는 푸른 초원에서 자유롭게 노니는 양을 보면 귀여움과 신기함에 웃음이 절로 나온다. 송아지 우유 주기, 양·타조 먹이 주기 등 동물 친구들과 교감하는 체험도 흥미롭다.

강원도 평창 열차 연계 상품 안내



① KTX + 평창관광택시

친구, 가족 등과 자유롭게 이용하는 관광택시 상품이다. 바비큐 파티를 여는 등 캠핑장에 온 것처럼 저녁 식사를 만끽하는 캠프닉 코스도 운영한다. 관광택시 일정 변경을 원한다면 운영사와 상의해 나만의 여행 계획을 세워도 좋다.

운영 코스

- 평창관광택시 1탄** 발왕산케이블카&오대산(당일)
- 평창관광택시 2탄** 대관령 삼양목장&오대산(당일)
- 평창관광택시 3탄** 허브나라농원&광천선굴(당일)
- 평창관광택시 4탄** 대관령 삼양목장&'별명'(1박 2일, 숙소 미포함)
- 캠핑닉 코스** 관광택시&아이평창유 캠핑닉(바비큐 세트 포함)



② KTX + 월정사 웰니스 여행

녹음이 우거진 신비로운 숲과 푸른 바다를 눈에 담고 싶은 이에게 추천한다. 숲속을 산책하고 차를 마신 뒤, 산채 나물 가득한 비빔밥으로 푸짐한 점심을 즐긴다. 식사를 하고 나면 강릉으로 이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여행을 마무리하는 코스다.

여행 일정(20인 이상 출발)



편의 시설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93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용 콘센트&USB 포트
Socket&USB Port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112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식음료
Refreshment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 4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에 있으며
특실 생수 자판기는 KTX 3, 4
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KTX 미니 도서관
KTX Mini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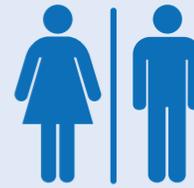
단행본은 KTX 4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잡지·신문은 KTX 3, 5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AMENITIES

편의 시설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KTX 1, 2, 4, 6, 8, 11, 13, 15,
17, 18호차와 KTX-산천 3, 5,
6, 8, 13, 15, 16, 18호차와
KTX-이음 1, 6호차와
ITX-새마을 1, 4, 6호차와
ITX-청춘 3, 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 11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이
KTX 8, 16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4호차와
ITX-새마을 6호차와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 10, 15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음료 및 스낵 자판기가
KTX 5, 9, 11, 13, 16호차와
KTX-산천 2, 6, 12, 16호차와
KTX-이음 3, 4호차와
ITX-새마을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의약품
First-Aid Medicine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금연
No Smoking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
(ITX-새마을,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해당 할인 카드로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①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99-787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운행 시간 오전 5시 20분~오후 8시
(광명역 기준, 30~40분 간격)
소요 시간 (T1 ↔ 광명역) 약 50분, (T2 ↔ 광명역) 약 75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인천국제공항 → 광명역) 인천국제공항 버스 매표소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전국 기차역, 코레일톡 등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Rail+

철도 회원이 KTX 승차권을 Rail+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마일리지 전환 사용 가능
교통카드 구매처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Android, iOS)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 도로, 편의점 등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사항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종류



railplus.korail.com
QR코드를 스캔하면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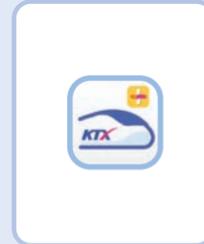
열차 이용 안내

승차권 구입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letskorail.com)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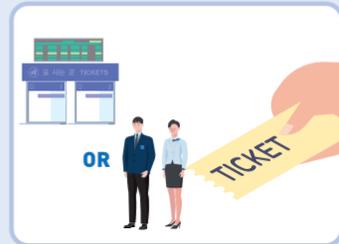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네이버' '카카오 T'
스마트폰 앱

승차권 분실

-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입석과 자유석 승차권,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반환된 경우, 재발행한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린 경우 승차권 반환 불가능



역 창구, 열차승무원에게 운임·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 재발급



열차승무원에게 분실 승차권 미사용 확인 요청



역 창구에서 승차권 금액 반환
(최저 반환 수수료 제외)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구분	출발 전		
	1개월~출발 1일 전	당일~출발 3시간 전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각 전
월~목요일	무료		5%
금~일요일, 공휴일	400원(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5%	10%

구분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	60분 경과 후~도착
월~목요일			
금~일요일, 공휴일	15%	40%	70%

PASSENGER GUIDE

Ticket Boo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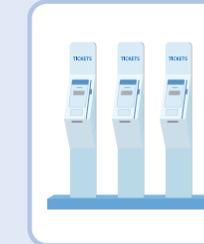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 (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Let's KORAIL Website
(lets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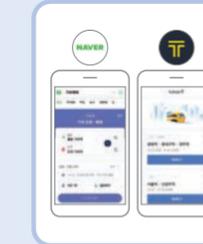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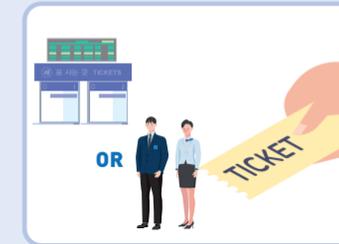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NAVER · KAKAO T
Mobile App

Ticket Loss

- Refunds may be provided for ticket purchases made using the KORAIL membership number or a credit card.
Not applicable to standing tickets, change of lost tickets, change of reissued tickets, and unused sections from alighting before the destination station.



Pay fees at the ticket booth
or to the on-board crew to
reissue your ticket.



Check with the on-board crew that
your lost ticket is unu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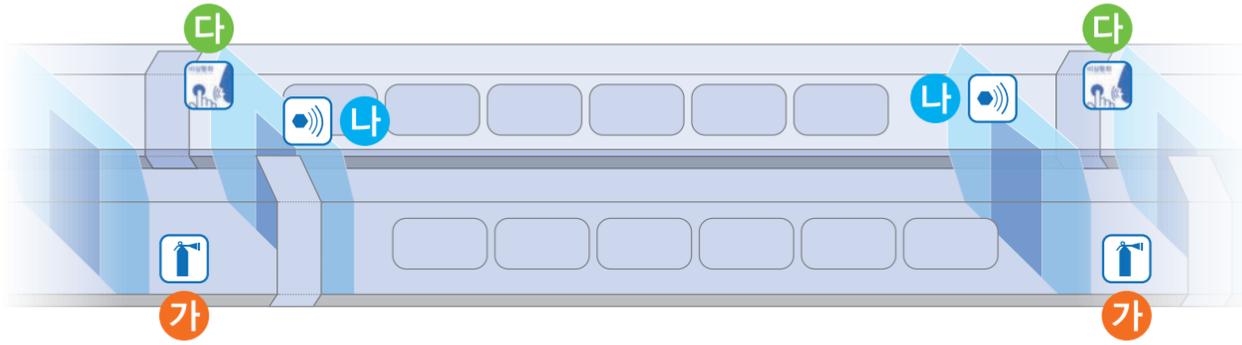
Receive a refund for your lost
ticket at the ticket booth.
(excluding service charge)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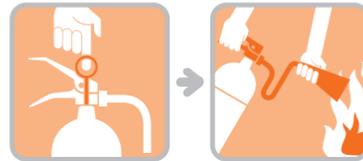
Classification	Before Departure		
	1 month-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Mon-Thu	Free		5%
Fri-Sun, holidays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5%	10%

Classification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Up to 20 minutes	20-60 minutes	60 minutes-arrival time
Mon-Thu			
Fri-Sun, holidays	15%	4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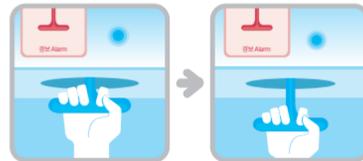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수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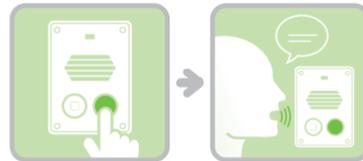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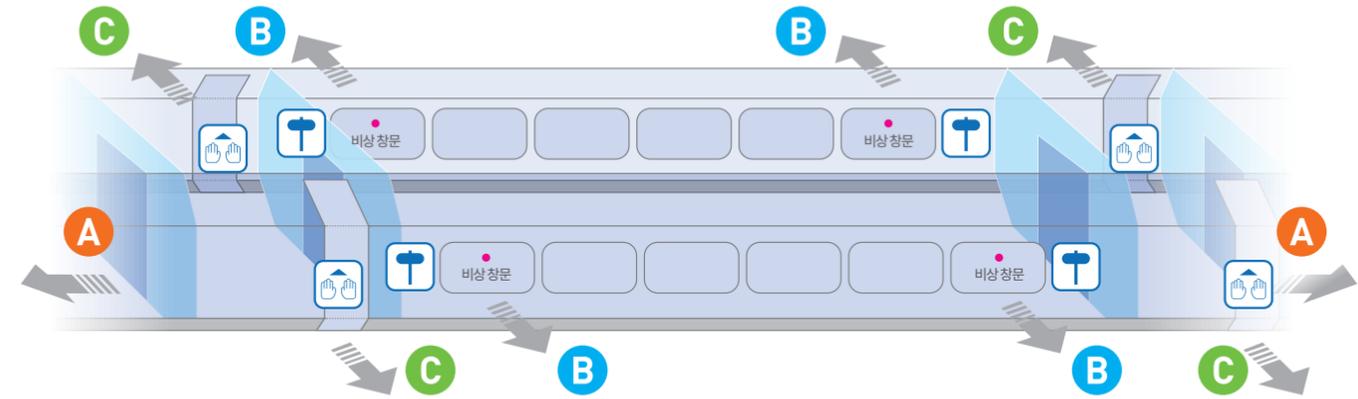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ITX 새마을 | ITX 향촌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ITX-새마을: 4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KT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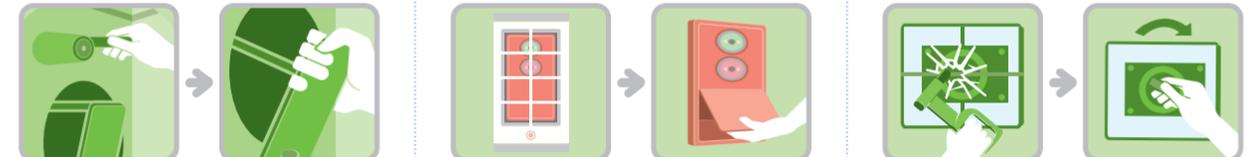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KTX 산천 | KTX 이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향촌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Epilogue



2023년은 무슨 해?

토끼해이자 고창 방문의 해. 운곡습지와 고인돌유적지와 고창갯벌은 예상, 상상, 생각, 무슨 말을 붙이든 그보다 훨씬 좋았다. 운곡습지의 원시림 같은 신비롭고 생명력 충만한 자연은 진정 압도적이다. 자연이 하고 싶은 대로 두면 이렇게 저 홀로 잘하는구나! 습지 본 눈 사세요. 아니, 안 팔아요. 직접 가서 감동하시길 바라요. 함께 2만 보를 걸으며 습지 동식물이 놀라지 않도록 조곤조곤 안내해 주신 박인수 해설사님, 고인돌 이야기를 내 자식 자랑처럼 사랑스럽게 들려주신 김재은 해설사님, 고창갯벌의 특별함을 전문가 수준으로 설명해 주신 정용호 주무관님, 취재 일정을 조율하느라 애쓰신 김아름 주무관님 덕분에 아름다운 고창을 만끽했어요. 고창 방문의 해니까 조만간 또 갈게요. + 규철 실장님은 사진을 항상 잘 찍으시지만 이달 진짜! 사진 장인, 빛의 마술사, 규철 실장님 최고!!! **김현정**



그 플레이어가 저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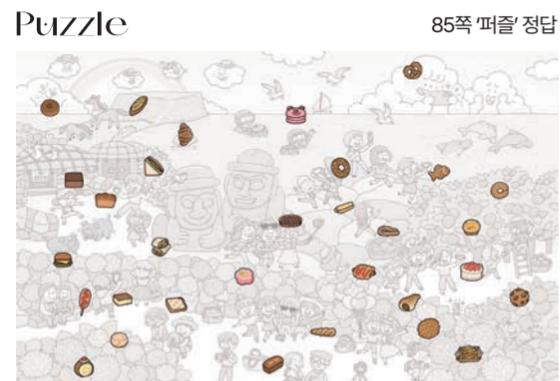
2022년 7월 24일.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그날 일기의 일부를 적었습니다. "전혀 슬픈 곡이 아니었는데 눈물이 주르르. 게임을 하던 기억이 마구 떠올랐다. 열심히 캐릭터를 키우던 꼬마가 이제는 어엿하게 자라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다니, 흑흑..." 네, 그때 저는 게임 오케스트라 공연에 다녀왔습니다. '게임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당시 정말로 객석 여기저기서 조용히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화 돋보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게임 음악 공연이 사랑받는 이유는 "음악을 듣고 게임을 즐겼던 옛 기억을 떠올리는 플레이어가 있어서"라고요. 저와 같은 독자님, 또 게임을 잘 모르는 독자님도 재미있게 기사를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혜림**

버킷리스트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농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마음이 가리키는 곳은 언제나 같다. 평양과 황해도 해주다. 평양냉면과 해주냉면 때문만은 아니다. 어머니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고 자랐으나 영영 다시 밟지 못한 땅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둘째 주 토요일,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 1934년 태어나 열여섯에 전쟁을 맞았고, 서울로 피란 와 여생을 이곳에서 살다 가셨다. 아이 다섯을 낳았고, 그 아이들이 다시 아이 여섯을 낳아 길렀다. 할머니의 삶이 곧 한국 현대사였다. 경기도 김포·연천·파주, 인천 강화 같은 접경 지역을 여행할 때마다 마음 한편이 먹먹해지곤 했는데, 이제는 조금 후련할 것 같다.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원하면 언제든 북녘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오래전 찍어 둔 임진강 사진으로 두 분을 추억한다. **강은주**

계절 사이에서

봄에서 여름으로 접어드는 시기를 가장 좋아한다. 아침저녁으로 남은 서늘한 기운에 습기가 닿아 공기가 달큰하다. 올 초여름은 특별하게 기억할 것 같다. <KTX매거진>에 들어와 첫 여행 기사 취재차 제천을 다녀왔다. 이토록 눈부신 계절이건만, 제천의 풍광을 온전히 느끼기보다는 걱정이 컸다. '어서 일정대로 해 내야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탓이다. 걱정을 잊은 순간은 고요한 청풍호 풍경에 빠져들었던 때다. 잔잔한 호수 위로 산과 하늘이 대칭을 이루었다. 청풍호와 옥순봉의 수려함이 기사의 좋은 받침이 되어 주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 이후 제천이 잘 보였다. 소리도, 공기도, 바람 타고 일렁이는 꽃향기도 더 잘 느껴졌다. 봄과 여름이 맞닿은 이 계절이 지금의 나 같다. 여행 문화 잡지라는 새로운 세계에 입문한 이 시기, 부지런히 배우고 공부하겠다. **옥송이**



영월 in the night

첫 번째 밤에 보는 공연 이야기(夜說)

관풍헌(영월부 관아) & 문화공간 진달래장

기간 6.2.~10.28.(금·토, 주 2회 총 44회)

시간 18:50~20:00(70분)

공연명 창작 뮤지컬 <영월 천년>

장소 (금) 진달래장, (토) 관풍헌 ※ 단, 6.2.(금) 관풍헌

영월관광센터

기간 6.17.~11.25.(토, 주 1회 총 20회)

시간 16:30~18:00(90분)

공연명 가족 연극 <진씨네 잠의사> 6~7월

가족 뮤지컬 <영월 별주부> 8~9월

뮤지컬 <뗏목은 흐른다> 10~11월

두 번째 밤에 비춰보는 문화재(夜景)

세계문화유산 장릉에서 달빛을 느끼다

기간 6.2.~10.28.(금·토, 주 2회)

야간개장 18:00~22:00

세 번째 밤에 걷는 거리(夜路)

복합문화공간 영월관광센터를 즐기고 거닐다

기간 6.2.~10.28.(금·토, 주 2회)

야간개장 18:00~20:00(평일, 월 휴관), 18:00~22:00(금·토)

네 번째 밤에 먹는 음식 이야기(夜食)

문화 야시장에서 지역 청년들과 함께 노닐다

기간 6.2.~10.28.(금·토, 주 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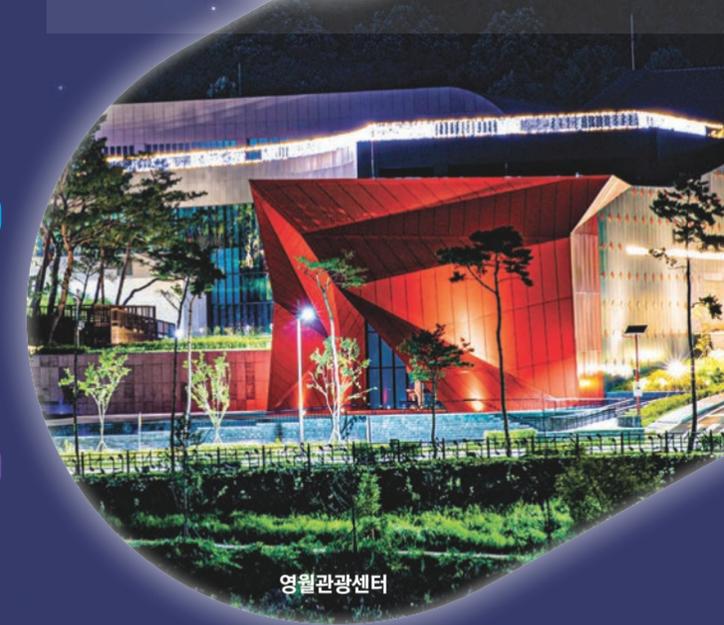
운영시간 18:00~21:00

장소 (금) 진달래장(영월로 2113), (토) 관풍헌 주변

※ 금, 토 야간 상설 공연 연계



관풍헌



영월관광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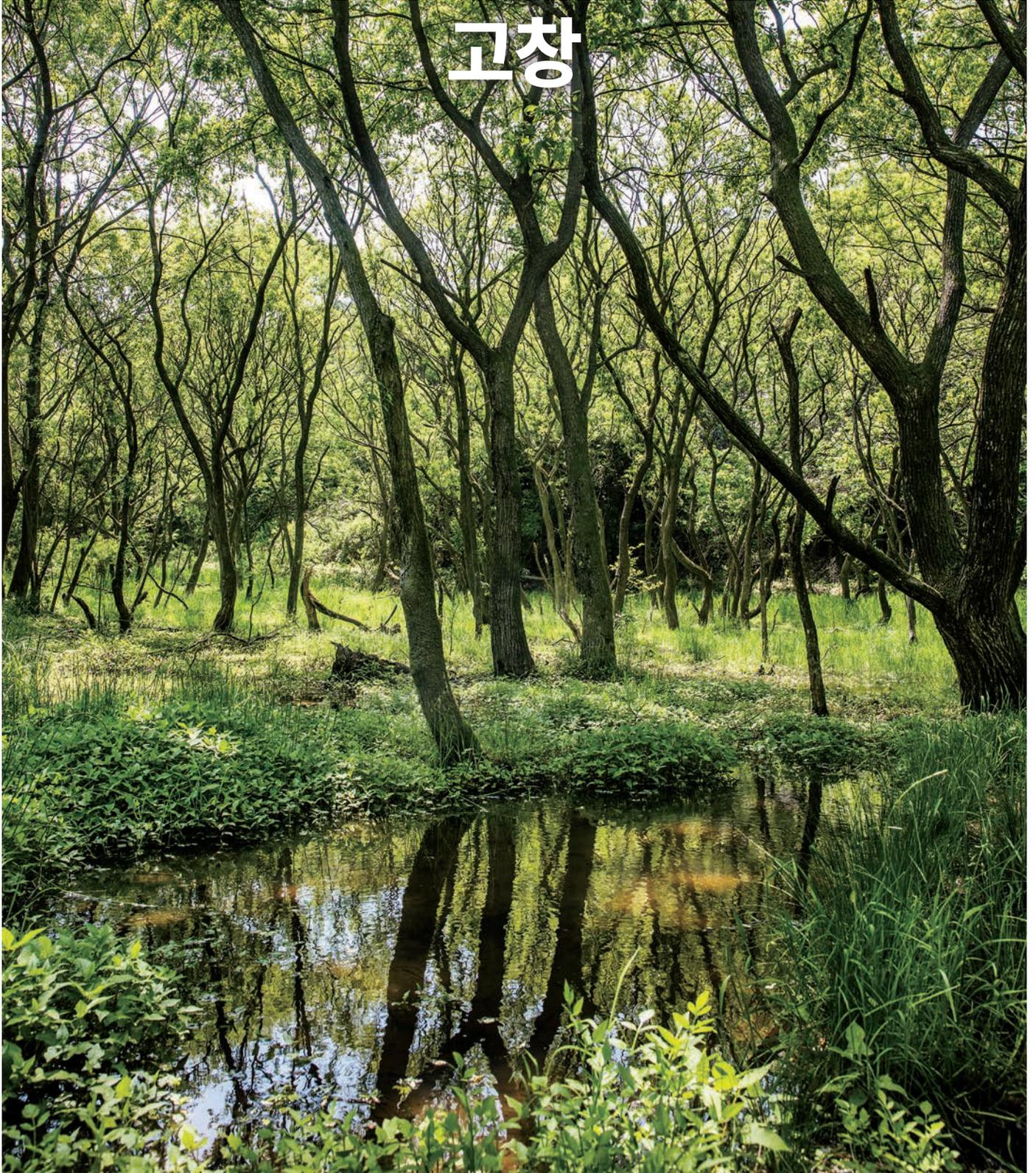
바로 지금, 여행

KTX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고창



찬란하고 신비로운 자연, 고창